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장 방향성 연구

2021

제출문

국립현대미술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장 방향성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0월

연구기관명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김향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안지언 상명대학교 전임연구교수

박정현 경인교육대학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최예령 시니어문화예술교육연구소-K 대표

김연운 아트스페이스 호서갤러리 큐레이터

보조원 : 이민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이 책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국립현대미술관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장 방향성 연구

발 행 일 : 2021. 10. 30.

발 행 처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과

연구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 : 김향미/숙명여자대학교

공동연구 : 안지연/상명대학교

박정현/경인교육대학교

연구보조 : 최예령/시니어문화예술교육연구소-K

김연운/아트스페이스 호서갤러리

보조 : 이민경/숙명여자대학교

© 본 연구의 저작권은 국립현대미술관 및 연구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장 방향성 연구

2021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2. 연구 설계 및 방법	5
제2장	시니어 교육 확대 방향의 다층위적 검토	7
	1. 시니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담론	8
	2. 시니어 교육 관련 사회 동향, 용어, 사회적 확장에 관한 학제적 검토	28
	3. 소결 및 시사점	34
제3장	시니어 미술관교육 체계 심층 분석	38
	1.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개념적 · 이론적 검토	39
	2.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국내외 미술관교육 사례	43
	3.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미술관교육의 역할과 위치	64
	4. 소결 및 시사점	67
제4장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대 방향의 다층위적 검토	71
	1. 심층 요구 조사	72
	2. 국내 유관기관 시니어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1
	3. 전략 및 방향성 모색	115
제5장	개선 과제 및 제언	122
	1. 담론적 · 정책적 제언	123
	2. 시니어 미술관교육 접근 확대를 위한 과제 및 제언	125
	3.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실행 전략	130

제6장	결론	132
참고 문헌		136
부록		144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설계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제는 노인의 삶을 단순히 수명 연장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으며,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노년 세대는 전통적인 노인상과 신노년상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노후를 보냄으로써 노년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해야 하는 문화적 전위(cultural aventurine)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¹⁾.

그러한 점에서 노년 문화 형성은 이제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는 삶에서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 판단력, 상실감의 극복 등 무형자원을 통합해서 우리 사회에 적합한 노년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노년 문화 형성의 과제는 노인들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일하고 나누는 노인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 즉, 노년 문화는 활발한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적인 노년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노인 세대의 특성 및 다양화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 세대가 사회 전반의 잠재적 주류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들을 위한 문화·예술·여가 향유 문화 또한 제대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미래의 잠재된 고학력 노인 학습자들은 자신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복지 차원의 요구를 넘어 다양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요구할 것이며, 그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는 과거의 한정된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충족되기 어렵다³⁾. 아울러 이향란(2007)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은 자신들이 받는 교육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노인 학습자들의 그러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서 노인교육은 노인의 자기계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달의 과정을 조력함으로써 노년의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 시대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이다⁴⁾.

한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은 노인들의 사회성 증진을 통한 고독감과 외로움 감소, 뇌세포와 감각기관, 근육조직의 활발한 활용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미적 체험을 통한 지적인 자극과 창조적 경험을 통한 사고의 확장,

1) 박현식·전오진,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년세대와 신노년세대 인식 비교, 지역사회연구 22(4), 2014, p.219.

2) 박영숙, 신노년 문화를 창출하는 노인복지관의 혁신,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1), 2015, p.22.

3) 김현주,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형교육 30, 2007, p.56.

4) 김향미, 미술교육의 사회적 기능 확장으로서의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형교육 66, 2018, p.79.

창작 욕구를 표출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아정체성 회복에도 큰 영향을 준다⁵⁾. 이주연(2018)의 연구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사회의 변화된 산업구조 속에서는 전 생애발달 관점에서 평생교육으로서의 미술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⁶⁾.

전통적인 미술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나의 교과목으로만 여겨졌지만, 실상 미술교육은 생애 전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며, 따라서 미술교육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 문제의 해결에도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미술교육은 노년기를 맞는 노년층으로도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술작품 감상을 통한 미술이론 학습과 비평활동은 노인들의 자연과 사물을 대하는 관점을 바꿀 수 있으며, 정신적 측면에서는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 사회성 함양과 자아실현, 이를 통한 자존감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비평하는 활동을 통하여 철학적인 사고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사회성을 증진해 세대 간의 격차와 물이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술관교육의 구체화 및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최근 인접 인문사회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담론들이 제공하는 관점과 시선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노년기 삶의 질 함양을 위한 교육 공급망, 여가 및 문화예술 공급망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다층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미술관교육 현장 매개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함으로써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교육을 제공하는 운영자와 제공받는 노인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심민선(2000)의 연구 결과는 현재의 노인 대상 미술관교육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최근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노년기 자아실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흐름 속에서 활동적,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들은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창조적인 생활로 나이 들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종래 일반적인 노인의 여가활동은 단순한 휴식과 기분전환의 소극적인 기능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휴식과 충전은 물론, 인간의 최고 욕구인 자아실현을 위한 노인의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문화예술교육 공급망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은 자못 크다.

최근 고령사회로의 이행 과정 속에서 ‘노인’이라는 용어는 유사 개념인 ‘시니어(senior)’와 병용되고 있다. 시니어는 노인의 의미를 포함한 영문으로 그 뜻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나이 들어 생물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쇠퇴된 사람’이라는 종래 노인의 개념에

5) 박아영, 평생교육으로서 노인미술교육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57.

6) 이주연, 미래 사회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방향 탐색, 조형교육 66, 2018, p.249.

7) 김향미, 미술교육의 사회적 기능 확장으로서의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p.82.

서 비롯된 부정적인 편견이나 관점을 불식하기 위한 사회적 동향의 반영으로서, 위의 액티브 시니어 등의 개념을 통해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이 든 사람’이란 의미를 함축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주제를 포함하여 주로 후자를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호모 헛드레드(Homo Hundred)’ 시대를 맞아 ‘어떻게 나이들 것인가?’는 노년의 삶의 질, ‘창의적 나이들’ 과도 연관이 깊다.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에 의해 고안된 ‘창의적 나이들’의 개념은, 영국 내 고령자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성’을 전제로 하여 복지, 문화, 교육활동으로의 정책, 현장운동으로 확장되고 있다.

창의적 나이들의 담론의 시발점은, 교육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노인들은 이미 다양한 경험과 깨달음을 지닌 ‘재현적 사고’의 소유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재현적 사고’로서의 창의적 활동을 촉발할 수 있는 미술관교육의 확장 방향성을 제시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대 방향성을 위한 다층위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화된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시니어 미술관교육과 관련된 정책적·담론적·실천적 심층 진단을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도 증대 및 향후 유사사업 진단 분석에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기존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개선점 보완 및 현장의 정책 수요가 반영된 사업 설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니어 미술관교육 시스템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1. 연구 설계

기존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 학제적 이론 검토

최근의 시니어 관련 정책 담론 및 사회 동향, 인접 인문사회과학의 견해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학제적 이론을 검토한다.

○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체계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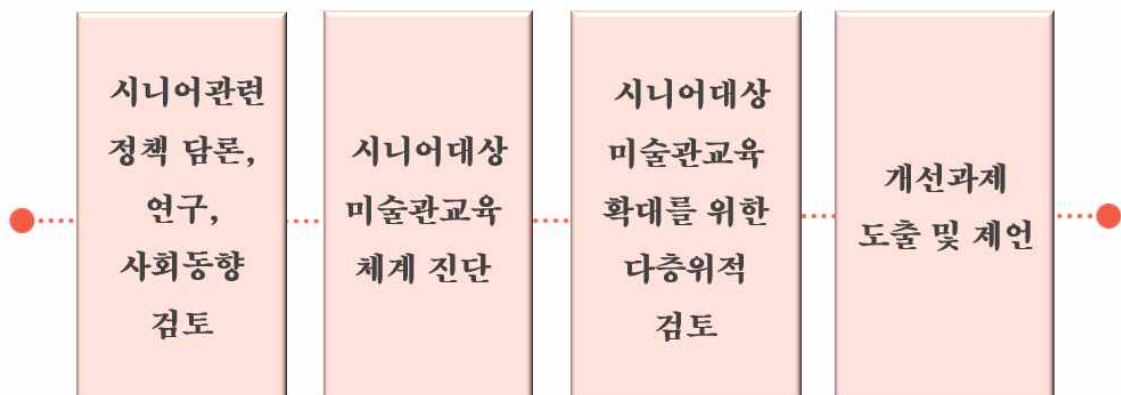
국내외 시니어 미술관교육 사례 검토를 통해 현행 교육체계를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미술관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고찰한다.

○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확대를 위한 다층위적 검토

미술관교육 및 노인교육 현장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유관기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등을 검토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 개선과제 도출 및 제언

시니어 미술관교육과 관련된 일련의 다층위적 검토를 통해 개선과제 및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한다.



〈그림 1〉 연구내용 및 절차

2. 연구 방법

미래교육 환경 속 시니어 미술관교육 활성화를 위한 확장 방향성을 조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 문헌연구

인접 사회과학의 다양한 관점을 포괄하는 학제적 이론 검토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관련 이론 검토

○ 질적 연구

미술관교육 및 노인교육 전문가 FGI를 통해 시니어 참여자 유형에 따른 특성과 시니어 세대별 미술관교육 적용 방안 도출

○ 사례조사

국내외 시니어 미술관교육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과제 및 시사점 도출
국내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유관기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검토



<그림 2> 연구방법

■ 제2장 ■

시니어 교육 확대 방향의 다층위적 검토

제1절 시니어 교육 관련 주요 정책 담론

제2절 시니어 교육 관련

사회동향 · 용어 · 사회적 확장에 관한 학제적 검토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 국내외 노인 연령 기준 및 규정

1) 국내 노인 연령 기준 및 규정

□ 국내 노인 연령 기준

- 노동시장에서 은퇴와 노령보험제도라는 사회보장 수급 시기의 제도화로 인해 ‘노인’ 혹은 ‘노년기’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 노인연령 기준은 일반적으로 역연령(chronological/曆年齡), 생물학적 연령(biological age), 심리적 연령(psychological age), 그리고 사회적 연령(social age)으로 구분된다. 먼저 역연령은 주민등록증상의 나이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노인 관련 제도나 각종 서비스 이용자격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상의 흐름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 및 가치관 등을 고려할 때 이제 역연령을 노인의 연령기준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생물학적 연령은 신체적 외모나 운동능력, 지적능력 등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심리적 연령은 개인의 인지·정서적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 타인과의 관계 형성 능력, 자기 주도적 능력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령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연령에 따라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역할, 즉 ‘연령 규범을 반영하는 연령 기준’이라 할 수 있다⁸⁾.
- 국내에서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의 특성을 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인 연령 기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과거에 비해 현재 시점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 국내 노인 연령 규정 : 노인, 고령자

- 국내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이라는 용어를 통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고용관련 정책에서는 노인 대신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55세 이상’을 기

8) 김춘남,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경기복지재단, 2015, p.6.

9) 김춘남,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p.8.

준으로 두고 있다.

- 국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 대한 연령 정의가 따로 없지만, 노인의 의미로 유추되는 법령의 대부분이 65세 이상을 노인 연령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인 자가 노인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고령자’ , ‘준고령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주거약자로 정의하고 있다.
- 이성과 같이 국내에서 ‘노인’ 의 연령은 법률 상 ‘만 65세 이상인 자’ 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정책의 대상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고, ‘고령자’ 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과 노동이 가능한 연령으로 좀 더 낮게 규정되어 있다.
- 한편 공적연금의 연금수급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상향조정되어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 연장하여 2033년에는 65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수급연령도 65세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표 1〉 노인·고령자의 연령에 관한 법률 규정¹¹⁾

법령	대상자 구분	연령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대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노인복지주택	노인	6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자	65세 이상

- 국내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사업내용별 연령 기준을 살펴보면 65세 또는 60세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8, p.109.

11)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p.109.

〈표 2〉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정책 사업별 노인연령 규정¹²⁾

사업명		연령기준	자격기준
건강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등증 이상(1~5등급)에 해당되는 자
	노인의료복지시설(의료)	60세 이상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 기초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재가노인복지사업(방문요양서비스, 주간·단기보호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60세 이상 65세 이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환자 및 가족
	치매검진사업	60세 이상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60세 이상	60세 이상 치매환자
소득보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만 65세 이상(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 만 60세 이상(시장형)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가능한 노인 (공익활동)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 ※ 사업내용에 따라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도 참여가능
주거보장	노인주거복지시설	65세 이상(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60세 이상(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노인공동생활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인 65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사회서비스제공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가병 방문지원사업,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등
	노인여가복지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65세 이상 60세 이상	-
	결식우려노인 무료 급식 지원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12)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2021, pp.39~40.

	경로우대제(철도, 전철, 국공립공원 등)	65세 이상	-
--	---------------------------	--------	---

2) 국외 노인 연령 기준 및 규정

2015년 국제연합(UN)에서는 평균수명 측정결과를 토대로 18~65세는 청년, 66~79세는 중년, 그리고 80~99세를 노년,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는 새로운 연령기준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은 노인인구 비율, 노년부양비, 총부양비, 자살률, 장기요양 등 많은 지표산출에 있어 노인 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¹³⁾. 입법 상 노인연령의 설정은 공적연금, 은퇴연령과 연관된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공식 정년을 중심으로 국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은 사회법전 제6권(SGB VI)에서 연령에 의한 공적연금 지급대상과 은퇴연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종 복지지원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노인지원과 관련된 법률은 사회법전 제12권(SGB XII)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급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¹⁴⁾, 지급 연령은 연금규정과 동일하다.

○ 일본에서 은퇴 또는 정년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법령은 국민연금법(国民年金法)으로, 연금수급 연령과 은퇴연령을 만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은퇴연령의 경우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 영국에서는 연금법 2014(Pensions Act 2014)에 따라 연금수급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이 증가하여 2028년이 되면 연금수급 연령이 67세로 연장될 예정이다¹⁵⁾. 또한 은퇴연령은 2006년 고용연령 차별금지법(The Employment Equality Regulations)을 개정하여 64세로 은퇴연령을 규정하였으나, 2011년 은퇴연령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현재 법으로 규정된 은퇴연령은 없다.

○ 미국은 연방규정 은퇴연령(Code Of Federal Regulations §404.409 What is full retirement age)에서 연금수급 연령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38년 이전 출생자는 65세,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로 규정되어 있다¹⁶⁾. 미국의 은퇴연령은 1967년 고용

13) 정경희,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80, 2011, p.22.

14)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pp.190~191.

15)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p.193.

16)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p.193.

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에 따라 현재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였다.

- 네덜란드의 연금수급 연령은 일반노령연금법(AOW, General Old Age Pensions Act)에 근거하여 현재는 67세, 2022년부터는 기대수명과 연계하여 연금수급 연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은퇴연령은 2003년에 제정된 고용연령 차별금지법(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Age Discrimination) Act)에 따라 법으로 규정된 은퇴연령이 없다.
- 은퇴연령은 연령차별을 이유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금수급 연령은 여러 국가에서 65세를 기준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에 있다.
- 은퇴연령은 우리나라,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연령차별을 이유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적연금 수급 연령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5세로 조정이 완료되었고, 이후 67세까지 연장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예시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경우 연금수급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고 주기적으로 기대수명을 연금수급 연령에 반영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부터 기대수명과 연계하여 연금수급 연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표 3〉 국외의 연금·은퇴 연령에 관한 규정¹⁷⁾

국가	공적연금 수급연령		은퇴 연령	
	법률	연령규정	법률	연령규정
독일	사회법전 제6권	▪ 1947년 이전 출생자: 만 65세 ▪ 1964년 이후 출생자: 만 67세	사회법전 제6권	연금 연령기준과 동일
일본	국민연금법	▪ 만 65세	국민연금법	만 65세
영국	연금법 2014	▪ 65세 이상 ▪ 2028년 이후 출생자: 67세 이상	고용연령차별금지법	-
미국	연방규정 은퇴연령	▪ 1938년 이전 출생: 65세 이상 ▪ 1960년 이후 출생: 67세 이상	연방규정 연령차별금지	-
네덜란드	일반노령연금법	▪ 66세 이상 ▪ 2021년 이후 출생자: 67세 이상	고용연령차별금지법	-

17)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pp.190~194.

		2022년 이후 출생자: 기대수명과 연계		
--	--	--	--	--

2. 국내 시니어 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우리 사회는 2000년 이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2004년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5년 단위 계획으로, 2006년부터 2021년 사이 제1차, 제2차, 제3차 기본계획은 마무리되었고 현재는 제4차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서 제1차 기본계획은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체계 공고화, 제3차 기본계획은 OECD 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그리고 제4차 기본계획은 출산·양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고령사회의 대응력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¹⁸⁾. 2021년부터 시작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제3차 기본계획의 연속선상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다¹⁹⁾.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사회 정책 중 문화예술분야와 관련한 여가문화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제1차~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기본방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추진방향 및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새로마지플랜 2010)

○ 제1차 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의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제1차 기본계획의 ‘새로마지플랜 2010’은 “새롭고 희망찬 출산에서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²⁰⁾.

○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 확보를 위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변

18)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0340&pageFlag=&sitePage=1-2-1>

19) 강은나,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32, 2016, p.30.

20)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2005, p.3.

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였다.

- 고령화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은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건강·의료체계 보장, 사회참여 및 노후준비 기반 조성,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들의 건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먼저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고령자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봉사 및 여가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령자들의 여가문화 활동 추진계획에서는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충하고, 다양한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노인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화교육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였다. 먼저 정보화교육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기관 및 어르신 IT봉사단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여가문화 프로그램에서는 지방문화원을 활용한 실버문화 노인프로그램과 노인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더불어 노인들이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을 설계하였다.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새로마지플랜 2015)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새로 맞이하는 행복한 출산과 노후를 의미하는 ‘새로마지플랜 2015’로 수립되었고, 저출산·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통한 활력 있는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계하였다.

-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정책대상을 중·장년층으로 확대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고령화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과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

령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으로 3대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 붐 세대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참여 욕구도 높기 때문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고령자 대상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여가문화 향유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 고령자 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은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지역 실정에 맞게 ‘어르신 자원봉사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분야별로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²¹⁾. 또한 고령자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에 보급하고, 시·군·구별로 노인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를 목표로 노인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 지역문화 거점인 지방문화원을 활용하여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어르신 문화학교에서 문화자원봉사자를 양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²²⁾.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브릿지플랜 2020)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고령사회의 인구 BONUS기에서 인구 ONUS²³⁾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넘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준다는 의미로 ‘브릿지플랜 2020’을 설계하였다²⁴⁾.
-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령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후 소득보장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세계금융위기와 만혼 심화 등으로 합계 출산율이 반등세로 전환되지 못하고,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격차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비용과 제도 지원 중심의 미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 고령화 분야의 정책 추진 방향은 안정된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 강화, 활기차고 안전한

21)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2010, pp.142~143.

22)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pp.144~145.

23) 인구 BONUS기: 젊고 생산적인 인구가 경제성장의 토대로 작용, 인구 ONUS기: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

24)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2015, p.42.

노후를 실현하기 위한 여건 확충, 여성, 중·고령자, 외국 인력들이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고령친화산업과 인구다운사이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이라는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가문화 추진계획에서는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베이비부머와 노인 세대, 그리고 전 세대가 아울러 즐길 수 있는 노인 맞춤형 여가문화 콘텐츠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노인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유형, 참여자, 기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를 강화하고, 고령자들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방문교육 서비스와 각 분야별로 운영되는 실버 세대 특화 프로그램(인문학, 지역사회, 실버창업 전공) 등 노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구현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관점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대응과 적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에 기반하여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²⁵⁾.
- 지난 15년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을 통해 저출산 원인을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구조적인 접근에서 모색해야 할 필요성과 고령층을 부양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그들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²⁶⁾.
- 제4차 고령화 분야의 정책추진 방향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고령층 가운데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제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인구로 편입되고, 종료 시점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특정계층

2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보도자료, 2020, pp.3~4.

26)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요약), 2020, pp.6~11.

별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신중년 세대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고용 장려금과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서비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추진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노후준비를 스스로 실시하는 생애전환기 노후준비서비스 제도를 강화하였다.

- 한편 고령자 대상 여가문화 추진계획은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신중년·고령자들의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세대 간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과 선배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찾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였다. 또한 노인복지관(234개소)을 대상으로 전문 예술 강사를 지원하고, 생애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중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한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표 4〉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고령화 분야 주요 내용: 여가문화 추진과제

구분	제1차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제2차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	제3차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	제4차 기본계획
기간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주요 대상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중·장년층	신중년 세대
추진 목표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추진 방향	-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노후준비와 사회참여 기반 조성 -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 생활 보장 -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여가 문화 추진 과제	-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보급 - 노인 여가활동 인프라 마련 - 학교, 공공기관 등 현황파악 및 활용도 제고 - 노인 여가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 노인역량강화 및 고용 대비 강화 신설	- 고령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어르신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노령전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원로 과학기술인 봉사 활동 사업 활성화 - 고령자 여가문화 향유 기반 확대	- 고령 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 활성화 - 고령자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 맞춤형 여가문화프로그램	- 고령자 맞춤형 문화 예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술 강사 지원 - 중·장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운영지역 확대 및 자생

	- 다양한 자원봉사분야를 개발하고 재취업 기회 제공	- 고령자 여가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노인복지관, 경로당, 지방문화원 등)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회관 등에 전문강사 파견 - 문화 바우처 지원 ▪ 고령자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 노인자원봉사 운영 공통기준 마련 - 자원봉사 종합 정보망 연계 구축	- 램 개발·보급 확대 ▪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체계 강화 ▪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 노인대학, 평생교육원 등 고령자 교육기반 강화 - 정보화, 웰다잉, 자살 예방교육 확대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문해교육, 실버 세대 특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적 생태계 구축 ▪ 신중년·고령자의 여가 기회 확대 -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별 가이드라인 보급 및 서비스 강화 -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한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	--	---	---

3. 국내 시니어 여가문화 관련 지원사업

1)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 고령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봉사할 기회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만 50~70세 미만인 미취업자 중 전문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자치단체가 인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²⁷⁾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참여자 활동시간은 연 480시간까지 가능하고, 지원금은 시간당 2천 원의 수당과 1일 기준 식비(6천 원), 교통비(3천 원)가 지급된다. 한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분야는 경영전략, 홍보, 문화예술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5>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분야²⁸⁾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7)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28) 고용노동부,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지침(최종), 2020, p.30.

(200)	203. 유통전략	(800)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랜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인사 노무 (300)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301. 기업문화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행정 지원 (010)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034. 기타 상담멘토링
	602. 의료보건	기타 (040)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 보건복지부의 노인 공익활동 지원사업

○ 노인 공익활동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장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²⁹⁾.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진행되고, 사업특성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자 지원금은 월 30시간 이상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활동비 월 2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본 프로그램 유형은 네 가지 유형별 내에서 지역별 수행기관에 따라 차별화된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구 주

29)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2021, p.48.

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 노인 공익활동 프로그램 유형³⁰⁾

유형	주요 내용
노노케어	▪ 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	▪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	▪ 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교육(보육)시설,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활동	▪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를 통해 참여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가능한 활동

○ 재능나눔활동 사업

재능나눔활동 사업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이다.³¹⁾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총괄·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7〉 노인 재능나눔활동 사업내용³²⁾

유형	세부 사업내용
노인 안전예방	▪ 노인 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 활동
상담 안내	▪ 노인상담 및 학대예방 등 인권지킴 활동 안내, 안내 (박물관, 내외국인 대중교통 안내, 복지 서비스 등)
학습지도	▪ 교육 및 학습 지도 활동
문화예술	▪ 음악회, 공연, 인형극, 동화구연 등 문화공연 활동
기타	▪ 활동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

30)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49.

31)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6.

32)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49.

□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생나눔교실

- 인생나눔교실은 은퇴자 및 은퇴를 앞둔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고민에 부딪히는 아동·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는 멘토링 사업으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³³⁾. 인생나눔교실은 은퇴 인력들의 멘토링 프로그램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타인과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문화적 기여의 계기를 마련하는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인생3모작 인생나눔학교>, <함께하는 인생식탁> 등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업지원 및 운영 총괄을 담당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과 권역별 주관기관들의 행정적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내에 인생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삶의 긍정적 변화와 성숙한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다.

2) 문화예술 및 교육 지원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나눔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행복을 배려하는 문화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복권기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에 투입하여 문화이용권,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 나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면서 2008년부터 관련 사업들의 통합 명칭을 ‘문화 나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³⁴⁾. 문화 나눔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다양한 시행 주체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005년 국고 4억원을 투입하여 문화 바우처 시범운영 이후, 2006년 26억 원에서 2019년 1,299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문화예술 분야의 유일한 바우처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용 이용권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은 이용자의 자발적인 문화향유 욕구를 이끌어내고, 스스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정서

33)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2020, p.138.

34)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p.105~106.

적인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 사업이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들은 ‘나눔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데, 나눔티켓은 국공립·민간의 문화예술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기부한 객석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문화 나눔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문화 향수권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나눔티켓 관람 후기 접수를 통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홍보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예술 향유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³⁵⁾.

－ 신나는 예술여행

신나는 예술여행은 2004년부터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문화 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 양질의 공연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문화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시설과 예술단체를 매칭해 주는 매칭형 사업, 예술단체가 직접 수혜대상과 장소를 탐색하는 발굴형, 그리고 만39세 이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신설된 청년예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되었다³⁶⁾.

〈표 8〉 2019년도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 현황³⁷⁾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 수
매칭형	노인시설순회	450
	아동시설순회	530
	일반시설순회	560
	장애인시설순회	264
	청소년시설순회	427
	특수계층시설순회	301
	소계	2,532
발굴형	문학순회사업	294

35)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p.107~110.

36)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112.

37)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112.

	신나는 예술여행 확산사업	130
	지리적 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 농산어촌마을순회	1,042
	지리적 문화소외지역순회사업: 도서지역 순회	287
	지역협력특화사업: 공공주도형	616
	지역협력특화사업: 민간주도형	793
	지역협력특화사업: 사회적 네트워크형	319
	소계	3,481
청년 예술형	청년 예술형	2,335
	소계	2,335
총합계		8,348

－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의 시설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을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문화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예회관이 유치하는 프로그램의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복권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변경되었다.

○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생애전환기를 맞은 신중년(50~64세)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전환의 기회를 마련하고, 주체적으로 문화적 삶을 설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정책 사업을 추진하였다³⁸⁾. 신중년 세대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개념, 핵심 가치를 분석하여 2018년도에 신중년을 위한 <문학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를 운영하고 <자연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품격 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들의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였다. 2019년도에는 2018년에 연구·개발해온 <자연과 함께 한 달 살아보기>, <품격 있는 고난으로 한 달 살아보기>를 진행하고, <신중년, 관계 재형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신중년, 디지털 에이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더불어 2020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각 지역의 실정과 신중년 세대들의 특징을 반영하여 총 7개의 광역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경남, 인천, 세종, 대전, 충남, 전남, 경북)에서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사업을 진행하고, 총 5개의 기초 자치단체

38)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553.

및 주관단체(부산, 대구, 인천, 강원도, 전라북도)에서는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추진하였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2020년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학교, 신중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³⁹⁾

구분	사업운영주체(사업명)	세부프로그램
생애전환문화예술학교	경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고마운 내 인생 쓸만한교)	- 나의 발견 그림책으로 엮다 - 맛난 생활예술 놀이터 - 찾아가는 프로그램: 오늘부터 삶을 디제잉하다 50플러스 밴드놀이 - 숲에서 시와 놀다 - 그림책 여행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	- 생활학교: 새로운 옷차림으로 삶을 변화시켜라 - 생활학교: 내 인생의 소울푸드 - 생활학교: 새로 쓰는 농사달력 - 예술학교: 몸 그리고 신포 - 예술학교: 사이를 잇는 선, 데일리드로잉 - 예술학교: 온라인으로 나누는 수다 - 생애전환워크숍: 전환을 위한 삶의 방법
	세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청춘사진관 I · II · 청춘극단)	- 청춘사진관 I - 청춘사진관 II - 청춘극단
	대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꽃보다 작가, 어쩌다 마주친 나)	- 기초프로그램(어쩌다 마주친 나,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다) - 심화프로그램(어쩌다 마주친 나,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걷다)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 짝워퍼? 시즌2)	- 낭만 인생극장 - 낭만 사진관 - 낭만 미술관 - 너허그, 나허그
	전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싸게싸게 뛰던 걸음, 싸목싸목 다시 걸소)	- 오물오물 나의 'ㄱ' - 봄꽃보다 아름다운 나의 인생 - 청춘일기 "나에게로의 초대" - 서넛도 생애전환 화첩기행 - 몸으로 드러내는 섬의 인생 이야기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세 번째 스무살)	- 농촌형: 내 삶을 노래하다, 어쩌다 골목대장 - 도농복합형: 예술로 느끼는 다섯 가지 인생의 맛, 내가 살아본 레시피 - 도시형: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아름다운 신포, 50+ - 소풍형-예술로 소풍 가듯 - 수학여행형-노래는 인생을 싣고
신중년문화예술교육	플랜비문화예술협동조합 (수영강은 흐른다)	- 수영(Suyeong) 즐기는 여자들 2060 취향 공유 살롱 - 광안리 드로잉

39)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20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전환, 2020, pp.72~119.

		채식을 통한 뉴라이프
	대명공연예술단체연합회 (Hi-Story 배우고 즐기며 버킷리스트 달성하기)	- 인생 길잡이(문학) - 재취업을 바라는 중년의 대상과 소통하기(영어) -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마술) - 나의 인생을 노래하다(노래영상) - 플리마켓 - 서양 연극사
	(재)연수문화재단 (신중년 인생 2막 변주곡 Song Do)	- 나는 송도스타일 - 머물다 나답게
	태백탄광문화연소-BOW (2020 철암일기-原流에서 원류를 찾다)	- 강의 원류 나의 원류 - 태백의 길 나의 길
	(재)고창문화관광재단 (품격 있는 꽃대)	- 빛나는 꽃대 - 청춘노트 - GO高! 청춘 - 청춘낙서여행 - 열차표 든 꽃대 - 꽃대들의 첫 하모니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예술 분야별 전문예술강사들이 복지시설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교육대상자의 특성과 수요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현장에서 원활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⁴⁰⁾.
- 본 사업은 2004년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후 노인 및 장애인들에게도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1년에 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예술 강사가 참여하는 <지식공유 컨퍼런스>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예술 강사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단위의 소규모 워크숍 및 <지식공유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교육 사례와 노하우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⁴¹⁾.

〈표 10〉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2005~2019)⁴²⁾

구분	시설 수				참여자 수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아동	노인	장애인	합계

40)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519.

41)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p.519~520.

42)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520.

2005	201	-	-	201	7,694	-	-	7,694
2006	213	48	23	284	837	916	285	2,038
2007	201	59	20	280	7,263	1,095	184	8,542
2008	178	67	32	277	6,572	1,297	343	8,212
2009	235	62	30	327	7,695	1,240	310	9,245
2010	143	84	47	274	4,542	2,853	628	8,023
2011	144	132	58	334	4,610	3,410	650	8,670
2012	147	206	89	442	4,243	4,890	1,060	10,193
2013	160	169	96	425	4,423	6,396	1,457	12,276
2014	145	190	124	459	4,545	5,353	2,202	12,100
2015	150	200	182	532	3,690	6,050	2,854	12,594
2016	145	213	250	608	3,246	5,709	3,611	12,566
2017	143	226	237	606	2,993	6,234	3,685	12,912
2018	132	235	208	575	2,910	6,276	3,643	12,829
2019	127	252	209	588	2,654	6,199	3,670	12,523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심리적 상처를 가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7개 각 부처(경찰청, 교육부, 국방부, 법무부, 사행위, 여가부, 복지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치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였고,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 발표에 따라 치매 위험이 있는 어르신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대상까지 확장하여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⁴³⁾.

〈표 11〉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현황⁴⁴⁾

구분	부처협력형					기획형					치매 예방형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15	'16	'17	'18	'19

43)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522.

44)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522.

프로그램	77	84	88	85	74	-	-	11	7	22	-	-	-	6	24
수혜시설	58	77	77	77	68	-	-	6	7	22	-	-	-	5	24
수혜인원	661	853	919	1,388	802	-	-	91	76	282	-	-	-	63	236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령자들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5년 시범사업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어르신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어르신 문화예술교육>, 어르신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사회 소속감 및 역할 확대를 위한 <어르신 문화예술 동아리>, 지역 어르신과 청년·어린이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어르신 & 협력 프로젝트>, 어르신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자와 관람자 모두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총 3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⁴⁵⁾. 2021년도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르신 문화활동>,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개 단위사업 175개 내외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⁴⁶⁾.

<표 12> 2021년도 사업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주요내용⁴⁷⁾

단위사업명	유형	주요내용	비고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 교육형 - 동아리형 - 혼합형	어르신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및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 지원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필수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 사회문제해결형 - 세대교류형 - 지역연계형	문화예술을 매개로 어르신의 사회적 역할 부여 및 주체적 시민활동 지원(최대 3년 연속지원)	

45) 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pp.577~578.

46) 한국문화원연합회, 202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안내문, 2021, p.1.

47) 한국문화원연합회, 202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안내문, p.1.

호모 헝드레드(Homo Hundred)시대의 도래와 함께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유력한 세계 1위 고령국가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45년부터 세계 1위 고령국가로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향후 20년 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37.0%로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 201개국 중 가장 높아지게 된다는 전망이다.

더구나 출산율은 2020년 6월 30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공개한 유엔인구기금(UNPFA) ‘2020년 세계 인구현황 보고서(State of World Population)’ 내용에 의하면,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UNPFA가 집계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평균수를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노인 국가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노인들은 노년기가 예측 불가한 현실 속에 놓여 있으며 ‘노인의 개인화’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노인 스스로 알아서 이 사회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오늘날 ‘인간답게’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모두의 뜨거운 관심사이다.

1. 시니어 및 교육 관련 유사 개념

‘시니어(Senior)’는 노인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영국, 미국 등 영어권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책개념을 지정하고 있는 바, 최근 ‘신중년’ · ‘예비 시니어’ 등 다양한 노인 관련 용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적 시니어에 대한 개념과 연령대에 대한 활발한 고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편의를 위해 보건학 위주의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 구분으로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고,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령 구분은 대개 유아(출생~7세), 아동(8~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64세/최근 신중년 50~64세), 노인(65세 이상/초고령 8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 교육, 평생교육, ‘인문학적 사람의 생애 바라봄’의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이와 같은 개념과 연령 구분의 일치성에 대해서는 여러 비평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생애주기 예술교육’에 공감하는 움직임으로서, ‘생애주기’라는 용어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

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편이다.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생애주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생의 발달 단계’를 말한다. 그런데 생애주기를 단계라고만 이해하면 “어떤 일정한 단계로 구성된 기간의 형태가 한 번 나타난 후 같은 단계로 구성된 기간의 형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주기(週期: cycle)’의 의미를 놓치기 쉽다. 주기라는 말은 일정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한 사회의 전체 인구를 구성하는 개 개인의 생애(일생)는 일정한 연속적 단계로 구성된 기간의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생애기간의 형태가 여러 세대를 거쳐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생애주기(life cycle)’라는 말을 사용한다. 생애주기를 정확히 설명하면,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1) 연속적인 단계로 구성되고, (2) 그 연속적 단계는 발달하는 속성으로 구성되며, (3) 연속적 단계의 기간이 세대를 거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⁸⁾. 즉 생애주기는 단계, 발달, 반복의 세 가지 특성을 가진다. 이처럼 인간은 수정된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신체적, 정서적, 사회·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종래 한 사람의 생애를 사회과학적인 신체적 주기로 나뉘었다면, 본 절에서는 정서와 심리적 차원의 주기에도 함께 주목하고자 시니어(교육) 관련 사회 동향·용어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고찰하기로 한다.

2. 관련 담론

1) 시니어 관련 담론: 회복탄력성, 활동적 노화, 사회적 건강과 사회적 웰빙

□ 회복탄력성 담론

- 회복탄력성은 영어 "resilience"의 번역어다. 이는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 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며,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 회복탄력성은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서도 탄성이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역경으로 인해 밀바닥까지 떨어졌다가도 강한 회복탄력성으로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
-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커다란 성취를 이뤄낸 개인이나 조직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실패나 역경을 딛고 일어섰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보여진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역경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불행하거나 행복해지는 기로에 서게

48) O' Rand, A. & Krecker, M. L. Concepts of the life cycl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1990, p.21.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세상일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구축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과소비되는 감정적 에너지를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한 집중으로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탄력성은 놀랍게 향상된다. 회복탄력성이란 인생의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곳곳하게 튀어오르는 비인지능력 혹은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⁴⁹⁾.

○ 회복탄력성 지수 KRQ-53 (Korean resilience quotient): 모두 53개 문항으로 구성된 회복탄력성 지수는 스스로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력, 주변 사람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력,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각각 세 가지 하위요소를 지녀 모두 9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첫 번째 하위요소는 자기조절력으로, 이는 감정조절력과 충동통제력, 원인분석력 요소의 결합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의 하위요소인 대인관계력은 소통능력과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의 요소 결합으로 정의된다. 마지막 하위요소는 긍정성으로, 자아낙관성과 생활만족도, 감사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 활동적 노화 담론

○ 활동적 노화에 대한 국내 연구는 크게 담론연구와 정책연구로 구분된다. 국내 담론연구는 ‘신노년(New Aging)’ 담론 아래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가 유사하면서 서로 상이하게 노인복지정책 담론으로 발전해 왔다(최희경, 2010; 양윤정, 2011; 박영란, 2013; 변금선, 2018). 정책연구는 WTO 틀을 적용, 패널데이터(한국복지패널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를 재구성하여 다양한 세대·계층 등에 활용해 양적 연구를 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정순돌, 윤희수, 2014; 허은진, 박종용, 김갑성, 2017; 변금선, 2018).

○ ‘활동적 노화’ 개념의 강점은 WTO가 종단 연구를 통해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영역을 도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개념의 한계는 기존의 활동적 노화가 노년기 자아를 활동적 신체에 종속시킴으로써 신체와 몸, 건강에 치부된 경향이 있다.

□ 사회적 건강 / 사회적 웰빙 담론

○ 사회적 건강 및 사회적 웰빙으로도 기술되는 본 개념은 사회의 건강성을 다루는 영역으로,

49) 김주환,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2011, p.2.

노인에게 건강은 타 세대보다 삶의 질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사회적 웰빙을 결정하는 건강 역량을 몸, 마음, 관계, 정신의 네 개 영역으로 구분한 내용이다(이재열, 박상희, 양준용, 2017).

- 사회적 건강 및 사회적 웰빙의 국내 연구동향은 스포츠학, 운동학에서 발달되어 사회적 건강에 대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운동치료 및 행동주의적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권웅, 민들레, 박상일, 2014; 김경애, 함은주, 2019).
- 본 개념의 강점은 사회적 건강을 결정하는 건강 역량을 네 가지 차원으로 도출한 것에 의의가 있다(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 그러나 이 네 가지 영역을 모두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신체와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의 양적 연구로 주로 다루어져 왔다.

2) 시니어 교육 관련 담론: 창의적 나이 듦(Creative Ageing)

- 창의적 나이 듦 담론의 시발점은 교육(education)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노년의 몸은 이미 여러 가지 경험과 깨달음을 지닌 채 ‘재현적 사고 : 이미 내가 경험한 것과 싸움을 벌이는 일’로서의 활동(Activity)에 대한 내용 탐구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 기반하여,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제 생활계(환경적 · 관계적 · 정책적) 측면에서 실천적 현장 속에서 노년의 삶과 노인의 재현적 사고로서의 창의적 활동(Activity)을 촉발시킬 것을 기대한다.
- ‘창의적 나이 듦(Creative Ageing)’의 개념은 배링 재단 디렉터 데이비드 커틀러(David Cutler)에 의해 고안된 개념으로, 영국 내 고령자 논의의 출발점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성을 전제한 것으로 복지활동, 문화활동, 교육활동으로 이어진 정책적 현상운동을 의미한다. 한국에는 2017년 주한영국문화원 주최 ‘한 · 영 컨퍼런스 <창의적 나이 듦(Creative Ageing)>’을 통해 소개되었으며,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공동주최로 한국 · 영국 예술교육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 노인 세대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존의 노인교육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노년의 몸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부딪히며 액티비티(Activity)의 확장(dilation)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재현적 사고⁵⁰⁾가 일어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한 담론이다. 이는 인간과 공동체가 나이 들어감에 있어서 ‘창의적 나이듦(Creative Ageing)’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 Rajan, K. B. & Rajan, R. S.(2017)의 보고에 따르면, 창조적 예술활동을 하는 시니어들

50) 끊임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과 싸우는 투쟁적 사고

은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 및 신체기능의 저하 비율이 낮았으며, 특히 인지 부분은 약 7배의 차이를 보였다. 나이가 창조적 예술활동에의 참여는 예술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창조적 예술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나이듦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성공적 노화를 돕는 데 필수 요소임을 밝힌 연구들이 많으며(Jeffri, J., 2007; Kelly, J. R. & Ross, J. E., 1989), 이로써 창의성과 예술참여는 노인 복지의 핵심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은 노인 또는 시니어 층이 이러한 예술 활동을 단순히 향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예술 참여 또는 창작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나아가 경제적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⁵¹⁾.

3)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관련 담론: 창의적 나이 듦(Creative Ageing)과 문화예술교육

○ 탁지현(2019)은 문화예술교육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징 기능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를 꼽았다. 먼저 ‘수동적 나이 듦’에서 ‘창의적 나이 듦’으로의 인식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많은 이들은 창조성과 예술이라는 개념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거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존재감 상실, 고독과 같은 삶을 당연시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Cohen. G가 강조했듯이, 나이가 든 사람들도 창조적 작업을 통한 자아실현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Uhlenberg, P.(2000)는 “사회구성원이 가족, 사회, 그리고 제도에 기여하는 내용은 단지 화폐적인 가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특히 노인들은 아이디어, 보호, 사랑, 정보 등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세대 이전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킨다”고 하였다⁵²⁾. 지금까지 예술과 노화는 두 개의 분리된 실체로서 존재해 왔고, 문화적 특수성과 다양성에 민감하지 않은 분리된 접근법으로 이어져 왔다. 그렇기에, 앞 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종래 노인들에게 있어 문화예술 활동은 그저 취미교양에 머물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두 번째 기능으로는, 삶으로 환원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시도이다. 장르나 매체에 치우치기보다 삶을 녹여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시도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Stern, D.는 외부의 타자가 어떻게 자아 구성과 관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작용’이 없다면 자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서로의 표현 양식이 달라도 같은 내용의 정서를 공유할 때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형성되는데, 이처럼 동일한 정서가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느끼며 서로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나’, ‘주체’를 인지하게 된다. 즉 타자와 나의 상호작용이 먼저이고, 주체는 나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51) 탁지현,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한국무용학회지 30(4), 2019. p.44.

52) 박차상 외,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2013, p.123 재인용.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은 관계적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며, 그렇기에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을 실현하기 위한 당사자뿐 아니라 예술가(교육자, 매개자)와 그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관계 지향적 에너지가 요구된다. 단순한 문화예술교육 방법, 프로그램의 개발, 적용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예술로써 관계 맺고 변화하고 즐거워하고, 상호 간 삶의 창조와 회복, 그리고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순간이 의미 있는 것이다. 삶을 함께하는 범주에 들어가야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안에 내재된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이 되고, 매개자와 대상자, 예술가와 수요자의 구분이 아닌 너와 나, 나아가 공동체 안의 관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지닌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공동체적 기반 형성과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성숙에 대한 기대이다. NEA(2016:17-18)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최초로 인 증된 이러한 주장은, 몸을 통한 구체적 경험과 추상적 사유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기에 예술 경험을 통한 타자와 나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로 인한 주체적 인 ‘나’의 발견으로 연결될 수 있다. 뉴욕은 고령친화 도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문화예 술은 고립을 타파하고 세대 간 나이와 문화적 차이를 연결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에 건강한 나이 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언급되었다. 사회 구성원 모두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활동과의 적극적인 연결과 교류, 사회적 상호 작용과 ‘평생 예술교육’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집단의 형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담론과 함께 창의적 나이 들(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방향은 문화예술교육의 특정한 해결과제라기보다 개인의 인식변화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정책 등의 전환이 함 께 이뤄지는 노력이 동반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교육에 있어서 문화예 술교육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수요망과 공급망을 파악하여 삶이 녹아있는, 지역사회와 함 께 하는, 적극적인 창의적 나이 들과 함께 하는 고민이 현재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노년을 창의적 존재로 바라보는 ‘창의적 나이 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들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부록 1 참조).

1. 국내외 노인연령 규정과 정책에 대한 소결 및 시사점

- 노인의 연령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주요 노인정책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노인의 정년,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은퇴연령 폐지는 노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강화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로 볼 수 있으며, 연금수급 연령에서 노인의 기대수명은 연금수급 연령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노인 연령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노인 연령을 유지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며, 사회참여에 관해서는 연령차별을 방지하고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령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⁵³⁾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노후 소득보장체계, 노후 준비에 관련된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면, 제2차는 50세 이상 등 베이비부머 세대를 편입하여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공고히 하였다. 제3차의 경우 중·장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추구하며 경제적 도약과 국가 전체의 상황으로 고령화를 바라보았다. 현재 제4차의 경우, 연령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고 있지만 주요 대상을 ‘신중년 세대’로 설정하고 있으며, ‘well-going’을 여가적 관점으로 한 다양한 여가·예술교육·정서적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제1~4차까지 주요 대상과 노인 일자리 중심에서 여가 중심 정책체계로의 개편은 현재 학계에서 활발히 이어지는 담론들과도 그 가치가 연결되고 있어 고무적이라 사료된다.
- 지난 15년간 추진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화 대책 분야를 살펴보면, 제1차, 제2차 기본계획은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3차,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정책의 내실화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대하고 예방

53) 장민선 외,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p.9.

적인 건강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고령화 대책 분야의 주요 성과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관리, 치료, 돌봄을 제공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또한 건강한 노인의 소득보장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반면 고령화 대책 분야의 한계점은 건강보장 영역에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급증하고 건강수명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방-치료-돌봄의 연속적인 건강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여전히 사후적인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⁵⁴⁾ 또한 고령화 대책을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나 지역에서 인구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단위의 정책추진 체계를 강화하고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사회 현상 대응에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사회, 민간 등 전사회적인 협력 및 참여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 1절에서 국내 시니어 여가문화 관련 사업을 부처별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서 특히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로서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며 일경험,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만 50~7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하게 책정된 금액과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미디어 능력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겸비된 활동성 있는 노인을 주된 대상으로 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경우 노인공익활동의 유형으로 노노케어(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으로 구분하여, 비교적 다양한 생애주기와 대상(아동·청소년·다문화·장애인·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에 대해 노인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다. 이는 노인의 주체적인 프로그램 구성, 활동 구성이 가능하여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 국내 시니어 여가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및 교육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나눔사업,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신나는 예술여행,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과 같이 대개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찾아가는, 혹은 바

54) 변수정·황남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p.56.

우치 중심의 사업, 그리고 문화예술창작기능으로서의 예술교육과 접목된 프로그램 등으로 전개해 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바우처의 경우 ‘실효성’에 대한 부분과 신나는 예술여행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이후 찾아가는 예술프로그램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사업의 개선과제로서 계속 거론되는 지점이다.

2. 시니어 교육 관련 담론에 대한 소결 및 시사점

-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업의 연계성, 범 부처 간의 오용 및 남용되는 ‘생애주기 복지’, ‘생애주기 예술교육’ 등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정리하고, 사업적 중복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여가’라는 상위 범주 안에서도 부처 간의 시니어 개념에 대한 다른 이해와 내용의 중복성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므로, 2절 시니어 및 시니어 교육의 개념과 학계 용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그간 노인연구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된 ‘회복탄력성’, ‘활동적 노화’, ‘사회적 웰빙/사회적 건강’ 담론을 살펴보는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 노인 관련 주요 담론들이 주로 보건, 의료, 일자리와 연결되어 이해되고 양적인 접근으로 연구되어 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아울러, 2021년 중위연령이 44.3세이며, 2050년 중위연령을 57.9세로 예견하는 가운데⁵⁵⁾, 국민연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연령 구분을 유아(출생~7세), 아동(8~13세), 청소년(14~19세), 성인(20~64세/최근 신중년 50~64세), 노인(65세 이상/초 고령 85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데 사회적, 학문적 동의가 얻어질 수 있는지, 생애주기교육, 평생교육, ‘인문학적 사람의 생애 바라봄’ 등의 관점과 연령 구분의 일치성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다.
- 이제 이러한 사회적 동향과 담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그 안에서 정서와 심리도 중요시되는 가운데 인간의 삶과 생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노년을 창의적 존재로 바라보는 ‘창의적 나이 들’이 실현되고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사례들을 부록으로 정리하였다. 2015년 시작된 실버문화페스티벌은 국내 최대 규모로, 전국 단위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서 비대면 예술축제를 통해 융·복합적 예술장르로의 예술체험, 예술창작이 가능하도록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다.

55) 통계청: <https://kostat.go.kr/>

- 또한 2015년 연극 중심으로 시작된 ‘서울 시니어연극제’는 2회부터 전국적으로 확산, 3회는 아마추어 시니어 연극단과 전문 연극단이 함께 하는 형태, 세대교류를 위한 특별공연, 노인문화 콘텐츠를 자체 개발함으로써 그 내용과 구성에 있어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는 긍정적인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 해외 볼드(B)old 축제의 경우, 다원예술을 근간으로 예술가, 정책 입안자, 시니어,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형태의 관객참여 프로그램, 치매 노인들의 놀이로써 예술을 대하는 접근, 개방된 공간에서 일반 관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심포지엄과 워크숍 등의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고무적이라 평가된다.
- 이처럼 이제 한국 사회 인구의 허리 영역을 차지하게 될 노년의 몸과 생각과 행위들은 그들의 삶의 축적의 결과이며, 노인들은 그들이 맺고 있는 여러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적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들이 생활 속에서 맺고 있는 세계들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반면, 단순한 연령대의 구분에 의해 ‘노인’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예술을 포함한 모든 배움의 실현과 창의적 실현의 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행위’라고 본다면, 노인 역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적응과 행위가 기대되는 존재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통해 문화 예술행위자, 문화예술교육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로서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제3장 ■

시니어 미술관교육 체계 심층 분석

- 제1절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개념적·이론적 검토
- 제2절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국내외 미술관교육 사례
- 제3절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미술관교육의 역할과 위치
-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1.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개념적 검토

○ 미술관에서의 교육은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이는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스스로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계발시키는 평생교육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평생의 5분의 1 가량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히려 성인이 된 이후부터 노년기까지 받게 되는 사회교육이 개별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은 자못 크다.⁵⁶⁾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관람객과 교육 참여자 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까지의 미술관교육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평생교육, 사회교육의 맥락에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에게 그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최근 국공립을 포함한 많은 미술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점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자 동향이다. 그러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더더욱 미흡한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Midori(2011)는 ‘모두를 위한 박물관 (Museum for Everyone)’⁵⁷⁾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노인계층을 포함하여 미술관 · 박물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수 계층 사람들 모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⁵⁸⁾

○ 미술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잠재적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층을 위해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미술관이 주로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며,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관련 교육은 노인층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국내외 연구 보고들이 적지 않다. 즉, 문화예술을 경험한 노인들은 자존감 회복과 가족관계 개선, 건강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미술관은 노인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포한다. 이는 특히 정서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노인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반대

56) 김형숙, 미국의 미술관과 교육-미술관이 사회기관으로서 관람자층과의 연계성을 담당한 역사와 이론적 전제, 미술교육논총 제9집, 한국미술교육학회, 2000, p.15.

57) Midori, 모두를 위한 박물관-시각장애인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박물관교육: 혁신, 2011, p.42.

58) 김명희, 박물관교육과 질적연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5, p.291.

로 우울감은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⁵⁹⁾. 나아가, 미술관은 계층통합을 이룰 수 있는 사회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각 지자체 및 노인복지기관 등에서는 노인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치매를 예방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인 미술관에서도 역시 고령화 및 치매 이슈를 바탕으로 시니어 학습자를 교육적 논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가운데 능동적으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 전시물을 기반으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오감을 통해 체험 및 탐구학습을 하며, 이들에게 미적 체험 및 창작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질병에 직면하기 쉬운 노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으로서의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연구가 보다 더 심도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따라서 고령사회의 세대갈등, 질병 등 여러 문제들이 시니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모든 구성원들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시니어 계층과 청년 계층 간의 소통과 이해를 목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의 특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니어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활동적인 시간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손과 머리를 사용하며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니어 미술관교육이 지니는 교육적 의의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이론적 검토

- 맥과이어와 보이드는 2013년 발간한 *Leisure and Aging*에서, 생산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빈도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적인 여가활동은 우울감과 고독감, 자살 위협의 감소에 도움을 주며,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창의성은 보다 능동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으며, 창의성 증진과 창의적 활동이 건강하고 주체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데 의미 있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창의성, 문화예술 향유가 노년기 인생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의

59)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용인: 문음사, 2010, p.146.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여가문화 활동 정도와 빈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Silverstein과 Parker는 스웨덴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가운데 영화, 연극, 콘서트, 박물관 및 전시회 관람 등의 문화 엔터테인먼트(Culture-entertainment) 활동이 노인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력이 약화되어 문화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동시에 이들의 수준과 관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사회적 제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부재, 공간의 부재는 노령인구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의 감소로 이어지며, 젊은 세대가 문화예술 향유에 있어 질적, 양적으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누리는 데 반해 노인 인구의 사회적 소외는 점차 심화되며 이는 문화예술 경험의 세대 간 불균형으로 이어진다.

- Houle(1961)은 시니어를 포함한 성인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동기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세 가지로 나누었다⁶⁰⁾. 그는 『탐구하는 마음(The inquiring mind)』을 출간함으로써 본격적인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22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피실험자의 학습경험과 계속학습을 유도하는 요인, 학습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각에 관해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그는 성인들이 갖고 있는 다음의 세 가지 학습 성향을 식별해 냈다.

〈표 13〉 Houle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

학습참여 동기유형	학습참여 동기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학습자	교육을 별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습참여
활동 지향적(activity-oriented) 학습자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거나 활동 그 자체를 위해 학습에 참여
학습 지향적(learning-oriented) 학습자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

- <표 13>을 살펴보면, 먼저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학습자는 교육을 별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습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한다든지, 특정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기술을 배우는 것 등이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즉각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며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필요성과 흥미에 대해 자기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⁶¹⁾. 또한 이들은 외재적 또는 경제적으로 동기부여되는 경향이 있다. 활동 지향적(activity-oriented) 학습자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려는 욕구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얻거나 활동

60) 김진봉, 노인의 평생교육강사활동 참여동기 및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노인회 K숲해설가클럽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16.

61) 신덕상, 성인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과 학습 메타포의 관계, 한국평생교육 제2권 제1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p.103.

그 자체를 위해 학습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주로 고독감이나 외로움, 본인이 처한 불행한 상황에서 탈피하고자 학습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거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외적 또는 내적으로 동기부여 될 수 있고, 사회적 내지 욕구 충족적인 동기부여에 의해 구동된다⁶²⁾. 마지막으로 학습 지향적(learning-oriented) 학습자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유형으로 배움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 Houle(1961)은 이 세 가지 유형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을 더 선호 또는 강조하느냐에 따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어느 유형이 우위에 있거나 더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그의 이론은 여러 학자에 의해 검증되었는데, 그 중 Boshier & Collins(1985)는 Houle의 이론을 토대로 아프리카, 아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출신의 13,442 명의 학습자로부터 받은 응답을 분석하여 기존의 세 가지 유형과 유사한 세 가지 군(Cluster)으로 분류하였다⁶³⁾.

- 제1군은 인지적 관심 항목으로, Houle의 학습참여 동기유형 중 학습 지향적(learning oriented) 유형에 해당하며, 제2군은 사회적 자극, 사회적 교제, 외적 기대, 지역사회 봉사 등의 항목으로 활동 지향적(activity-oriented) 유형과 일치한다. 마지막 제3군은 직업개선 항목으로 목표 지향적(goal-oriented) 유형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oshier&Collins(1985)는 이후 성인 학습자의 동기를 측정하는 '교육참여척도(Education Participation Scale: EPS)'를 개발하였으며 Houle을 기점으로 Morstein & Smith(1976), Dia, Smith, Callow와 Bliss(2005) 등의 학자들에 의해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Houle의 동기유형론은 성인의 학습동기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켰으며 실제 학습동기는 많은 변수와 맥락에 영향을 받고 훨씬 복잡한 유형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나⁶⁴⁾, 성인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려는 첫걸음이었으며, 노인 평생교육의 실천에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2) Sharan B, Merriam, Luana L, Bierema,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2016, p.222 참조.

63) Sharan B, Merriam, Luana L, Bierema,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p.223 참조.

64) 신덕상, 성인의 학습참여 동기 유형과 학습 메타포의 관계, p.104.

제2절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국내외 미술관교육 사례

1. 국내 시니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사례

국내 미술관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한 국공립 미술관 또는 사립미술관 중 대표적인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1)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사업은 열린 교육을 지향하며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인 소장품 및 전시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기반 교육영상 제작 및 온라인 비대면 교육 운영의 일환으로, 선제적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탑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 가능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매진하고 있다. 관별 특성화 및 어린이미술관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모든 연령층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관장이 들려주는 ‘미술관 소장품 강좌’, ‘MMCA 작가와의 대화’ 등 교육영상을 비롯하여, 공교육 현장에 대한 감상교육 자료 배포 등 최근 온라인(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교육청, 학회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 그룹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효율적인 온라인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미술문화 접근성을 강화한 ‘장애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청소년 진로탐색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미술관교육’ 운영을 통해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지향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사업의 방향성을 지속하고 있다⁶⁵⁾.

○ 이와 더불어 유튜브 등을 통해 관객과의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제작된 전체 영상 중 교육용 영상이 40.1%를 차지하는 등 교육 관련 영상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회 수 기준으로 top 50 인기 영상 중 32개가 코로나 19 이후 업데이트 되었고, 이 중에는 교육용 영상이 3개 포함되어 있다 ⁶⁶⁾.

○ 성인 대상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하여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교육, 열린 미술관’을 실천하고 있다. <열린 강좌>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한 콘텐츠를 선보였고, <시니어 라운지>는 문화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는 치매 환자 시니어 교육

65) 국립현대미술관, 2020 미술관 연보, 2020, p.104.

66) 진희근, 한·중 미술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pp.14-15.

을 흡수하여 통합 브랜딩화하고 이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인지장애 시니어 매개자 대상 온라인교육을 통해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매개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확장함으로써 교육의 외연을 다지고 있으며, 더불어 전년도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운영한 온라인교육 <미술관 소장품 강좌>는 팬데믹 상황에 선제 대응한 미술관교육 사례로서 내·외부 및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한층 다층화된 온라인교육, 자기 주도적 상시 워크숍 등 비대면 교육의 다층적 모색은 코로나 19 이후 전환기의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 있다⁶⁷⁾. 그 중에서도 특히 상기한 인지 장애 시니어 매개자 대상 온라인교육은 의료 및 미술치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치매 노인들의 회상활동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소장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교구화하여 교육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노력과 시도는 전국의 여러 미술관, 박물관에서도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되며, 이는 국립미술관으로서의 상징적인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다음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 요약한 것이다.

□ ‘낭만 수요일’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 ‘낭만 수요일’ (어르신 대상 작품 감상 프로그램)
- 대 상: 60세 이상 어르신
- 비 용: 무료
- 일 시: 2014. 6.- 2019. 매주 수요일 오전 10:30~11:30(60분)
- 장 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덕수궁관 전시실
- 내 용: 전시와 작품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삶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교육 프로그램
- 목 적: 시니어 관람객의 감상 기회 확대를 통한 전시 및 작품에 대한 이해 제고

○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작품 감상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덕수궁관에 서 운영된다. 회당 15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접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덕수궁관 전시와 연계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 작가, 그 시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간단한 창작 활동을 해보는 프로그램이다.

67) 국립현대미술관, 2020 미술관 연보, p.106.

○ 에듀케이터와 함께 전시를 감상하고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더불어 전시 작품들 중 인기 있는 작품 4-5개를 선정하여 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전시는 주로 참여자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작가 전시로 진행된다. 참여자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근현대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지난 시절을 회상하고, 공감을 나누는 것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내고 있다⁶⁸⁾.

○ 미술관이라는 공간적인 특성 상 어르신들에게는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힘들다는 제한점이 있으나, 참여자들은 전문가를 통해 직접 전시 설명을 듣고 동년배의 다른 참여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유대감을 느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다고 술회하였다. 이러한 점은 미술관 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통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 대 상: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60세 이상 시니어와 보호자 20명 내외 (최소 10인 이상)
- 비 용: 무료
- 일 시: 2016년-2019년, 10:00~12:00, 5주간
- 장 소: 과천관 야외조각공원 및 교육공간
- 내 용: 과천관 야외조각공원의 작품을 감상 후, 창작 워크숍 활동
- 목 적: 미술관교육 접근성 · 공공성 강화 및 모두를 위한 미술관교육 실천

○ 세부 프로그램 내용⁶⁹⁾

〈표 14〉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교육내용 및 진행순서

순서	교육 과정	교육 내용	비고
1	도 입	인사 / 관람예절	야외조각공원
2	감 상	산책 / 작품감상	감상도구 활용
3	자료 활용 이해	감상 작품 기억	PPT자료

68) “미술관을 찾는 어르신들의 낭만 가득한 하루, 국립현대미술관 낭만 수요일” <문화체육관광부 공식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2015.8.5., <<https://blog.naver.com/mcstkorea/220615259792>>, 접속일: 2021.08.02

69) 황지영 · 홍해지,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미술관교육 관점에서의 의미와 방향, 2017 국립현대미술관 · 대한치매학회 공동세미나: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국립현대미술관 · 대한치매학회, 2017, p.31.

4	표현재료	‘나의 동그라미 기억정원’	특수제작 색종이 활용 만들기
5	발표와 나누기	작품과 스토리텔링 공유	환자와 가족 간 편지쓰기, 발표

-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은 국내 미술관의 대표적인 치매 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과천관 야외조각공원에서 작품감상 및 창작 워크숍 활동이 진행된다. 이는 미술관 및 미술관교육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과를 검증하고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문 연구자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니어 교육 관련 이론과 실천의 균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 <표 14>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입 단계에서 미술관 관람 예절에 관한 교육을 시작으로, 다 함께 야외조각공원을 산책하며 직접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제목, 재료, 작가 등에 관하여 이야기 나눈다. 또한 작품에서 나오는 노래 소리 들어보기, 사진 찍기, 가족 바라보기 등을 통해 참여자와 작품 간, 혹은 가족과 다른 참여자들 간에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감상이 끝난 후에는 실내 교육실로 들어가 기억 활동을 한다. ‘나의 동그라미 기억정원’이라는 주제 하에 감상했던 작품들을 떠올리며 동그라미 색종이로 참여자들만의 작품을 새롭게 만들어본다. 작품이 완성된 후에는 발표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참가자 가족들 모두 다 함께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편지로 전하며 마무리한다⁷⁰⁾.

- 본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대한치매학회와 협업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고령화로 인해 치매를 겪는 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진행된 프로그램이다. 과천관의 야외조각공원이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치매 노인과 더불어 그들의 가족들로까지 참여를 확장시키며 미술관 교육의 범위 안에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70) 황지영 · 홍해지,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미술관교육 관점에서의 의미와 방향, p.31.



〈그림 3〉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프로그램 활동 장면

(출처: <의학신문> 2018.05.14.)

□ ‘시니어예술라운지’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시니어예술라운지’
- 대 상: 50세 이상 준고령자, 고령자 / 회별 40명 (프로그램별 상이)
- 일 시: 2019. 5. 30. - 6. 27. 매주 (목) 10:30-12:30 총 5 회
- 장 소: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세미나실
(* 덕수궁 입장 시 입장료: 1,000원/ 만 65세 이상 무료 입장)
- 내 용: 식물과 나, 그리고(drawing) 덕수궁
- 목 적: 식물을 중심으로 한 인문, 사회, 예술, 여가, 삶의 통합적 탐색

- 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사회 인구 변화에 부응하여 2018년부터 본격적인 시니어 대상 미술 관교육이 시작된 이래 2019년 시행한 <시니어예술라운지>는 사회 은퇴 연령이 평균 50세에 준함에 따라 준고령자로 구분되는 50세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은퇴자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상반기 프로그램은 ‘식물과 나, 그리고(drawing) 덕수궁’이라는 주제로, 근대 미술가를 재조명하는 덕수궁관의 전시 <근대 미술가의 재발견> 속 근대 식물 세밀화를 그린 작가 정찬영의 작품과 식물학자 도봉섭의 아카이브 자료를 계기로 주제를 확장하여 진행하였다. ‘식물’을 주제로 하여 인문, 사회, 예술, 여가, 삶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보통의 시니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수준의 강연이 진행되는 편인데,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진행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15〉 ‘시니어예술라운지’ 교육내용 및 세부사항

일 시	내 용	강 사
1회차 5. 30.(목)	[강연 + 토크] 어느 식물학자의 세밀화 이야기 어지러운 근현대사 속에서 꽃피운 한국의 식물분류학, 한국의 식물을 기록하려는 학자들의 노력은 식물 일러스트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과학과 미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지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15세기 전부터 생물 일러스트를 제작하였고, 린네의 생물 분류 시스템과 함께 17-18세기 전성기를 누렸다. 학술적 기록에서 예술까지 아우르는 식물분류학과 식물세밀화의 역사 속에서 국내외 뛰어난 식물분류학자들과 그림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하는 식물 연구 등의 경험을 나눈다.	신 혜 우 식물학 세밀화가 스미소니언 연구원
2회차 6. 6.(목)	[강연] 선비, 꽃과 나무를 벗하다 -강희안(姜希顔)의 양화소록(養花小錄) 조선 시대 원예학의 고전인 강희안의 〈양화소록〉(16C)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의 다양한 문헌 자료를 보태어, 조선의 문인들이 꽃과 나무를 벗으로 삼은 운치와 함께 이를 격물(格物)과 성찰(省察)의 공부로 확충한 양상을 살펴본다.	이 중 목 국문학 고전문학 서울대학교
3회차 6. 13.(목)	[워크숍] 내가 사랑하는 식물과 사람 1인 가구 시대의 문화적 화두로서 반려식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닮은 식물을 떠올리며 ‘식물·사람·덕수궁’을 주제로 한 야외 사생 워크숍을 통해 식물의 선·색·면·질감·양감·공간감 등 아름다움과 정서를 경험하고 나와 타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	손 정 민 작가 일러스트 레이터
4회차 6. 20.(목)	[강연] 식물 그리고 사람 덕수궁의 식물, 〈근대 미술가의 재발견〉 전시 속 정찬영 작가의 세밀화에 등장하는 식물, 전통적으로 우리 문화와 연관된 식물 등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사람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 등을 살펴본다.	이 유 미 식물분류학 국립수목원장
5회차 6. 27.(목)	[강연] 자연을 욕망하는 미술 식물을 포함한 자연은 미술의 가장 오랜 벗이자 창작의 원천이다. 예술은 자연을 동경하지만 동시에 자연을 재현함으로써 스스로 자연이 되고픈 욕망을 감추지 않았고, 이는 예술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본 강의는 미술의 개념이 탄생하기 전부터 미술의 개념을 초과한 당대까지의 미술을 종횡으로 넘나들며 자연의 재현을 넘어 그것을 스스로 창조하려 한 예술가와 예술의 현장을 살펴본다.	정 현 미술비평 인하대학교

□ ‘일상예찬-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신경과 전문의와 에듀케이터가 공동개발한 교육자료 배포, 매개자 대상 온라인교육)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일상예찬-집에서 만나는 미술관’
- 대 상: 인지장애 시니어·가족, 매개자(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등)
- 비 용: 무료
- 일 시: (교육자료 배포) 2020-2021 (매개자 교육) 2020-2021
- 장 소: 서울관 / 실시간 온라인교육
- 내 용: (교육자료) 미술관 소장품 교구재·교육영상 전국 치매안심센터 배포

(매개자교육) 인지장애 시니어 매개자(작업치료사) 대상 실시간 온라인교육

- 목 적: 미술관교육 접근성 향상 및 미술관의 공공·공유 기능 확대

- 팬데믹 상황 하에서 미술관교육 기능의 적극적인 확장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통해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인지장애 시니어 매개자들을 교육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신경과 전문의와의 협업을 거쳐 공동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치매 노인들의 회상활동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인 소장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교구화하여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인지장애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의 대상을 시니어와 그 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 속 상호작용의 기회가 많은 매개자들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2) 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은 우리나라 사립미술관으로서 근대를 대표하는 화가 김환기 선생 작고 이듬해 설립된 환기재단에 의해 1992에 세워졌으며 김환기 선생의 작품전시를 비롯한 다양하고 활발한 기획전시,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다. 환기미술관의 전시와 행사, 교육 프로그램은 특별히 유행이나 상업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함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목적 하에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 취지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어린이 대상의 ‘아트핑크’,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크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 ‘노크 프로젝트(Knock Project)_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 2013년 11월 환기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해외 한국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알츠하이머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노크 프로젝트(Knock Project)_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사립미술관으로서 가장 먼저 치매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노크 프로젝트는 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모티브를 주제로 하여 작품 감상(Art-Looking)과 작품 제작(Art-Making)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 이미지를 통해 먼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미술 표현으로 내적 심리를 표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아성취감 증진 및 생의 의미 발견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⁷¹⁾.

71) 박소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노크 프로젝트’는 환기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예술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치매 노인들에게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기획된 미술관 아트 힐링 프로그램이다. 고령사회에서 심화되는 노인 문제 중에서도 특별한 대상인 치매노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다. ‘노크 프로젝트’는 작품 이미지를 통해 먼저 시각적 자극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진행자와 참여자 사이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소통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치매 노인이 잃어버렸던 기억을 일깨우면서 불안감을 덜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참여자는 “나는 내 기억을 믿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술을 통해 여전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라는 후기를 남겼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치매 노인은 문화예술 향유뿐만 아니라 예술적 경험을 통한 자아실현까지도 성취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⁷²⁾.



〈그림 4〉 ‘노크 프로젝트’ 시니어들의 활동 모습

(출처: 환기미술관 홈페이지)

(출처: http://www.whankimuseum.org/new_html/04_edu/preview.php?no=105&page=&checkPage=)

3) 백남준 아트센터

-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백남준 아트센터는 작가가 생전에 명명했던 ‘백남준이 오래 사는 집’을 구현하기 위해 그의 사상과 예술활동에 대한 창조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편, 이를 실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백남준 아트센터는 종이 없이 새로운 미디어 세상에서 교육의 방식도 변모해야 함을 역설한 백남준의 글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확장된 교육」(1968)을 발전시킨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라는 교육 미션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pp.76-77.

72) 환기미술관 공식 홈페이지.

http://www.whankimuseum.org/new_html/04_edu/preview.php?no=105&page=&checkPage= 접속일: 2021.08.05.

-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NJP 학교>, 창작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NJP 크리에이티브>, 문화예술강좌 <NJP 아카데미>, 전문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도슨트 양성>, 일상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있다⁷³⁾. 또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전시연계 프로그램도 진행된 바 있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수집된 물질들’_<#예술 #공유지 #백남준> 전시연계 교육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수집된 물질들’
- 대 상: 60세 이상 어르신 15명
- 비 용: 무료 (간식 제공)
- 일 시: 2018.11.1./11.8/11.15/11.22 9:30~12:30 (4회차 연속 프로그램)
- 장 소: 백남준 아트센터 지하 1층 교육실, 야외
- 내 용: 야외체험 후, 창작워크숍 및 작품전시
- 목 적: 시니어 대상 창작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 <수집된 물질들>은 현대미술 작가 김준과 함께 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이다.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주변의 다양한 ‘소리’와 ‘물건’들을 모아 ‘나만의 수집 상자’를 제작하는 예술활동이 진행되었다. 무심코 스쳐왔던 주변의 소리와 평범한 사물들이 다양한 관점을 거치며 새로운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소리’와 연관된 미디어를 활용해 주변의 소리를 수집하고 사물에 얹힌 추억들을 꺼내어 어르신들 일상의 풍경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기획되었다⁷⁴⁾.

〈표 16〉 ‘수집된 물질들’ 교육내용 및 세부사항

구분	주제	내용
1차	생각 나누기	‘예술’에 대한 나의 경험 이야기하기 일상과 풍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2차	미디어 배우기	‘소리와 연관된 미디어 작동방법 이해하기 (스피커, 앰프, 녹음기, 마이크 등)
3차	수집과 표현	주변에서 흥미로운 소리 녹음하기 의미 있는 물건 수집하기
4차	작품 제작과 아카이브 (수집)	‘소리와 ‘물건’을 모아 작품 제작하기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

73) 백남준 아트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njp.ggcf.kr/%eb%b0%b0%ec%9b%80/> 접속일: 2021.08.05.

74) 백남준 아트센터 공식 홈페이지 <https://prenjp.ggcf.kr/archives/education/collect03> 접속일: 2021.08.05.



〈그림 5〉 ‘수집된 물질들’ 프로그램 홍보물

(출처: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s://prenjp.ggcf.kr/archives/32611>)

4)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SeMA)은 ‘사용자, 매개자, 생산자 모두가 함께 하는 공동의 기억을 짓고, 뜻깊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일구는 미래’를 상상한다는 구호 아래, 서울 전역의 각 분관들이 시대와 미술의 변화에 조응하여 성장하는 ‘서울형 네트워크 미술관’을 표방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은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미술관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며 공원 산책로와 미술관 출입구를 연결한 개방형 건물, 야외 조각 전시를 비롯해 미로형으로 설계된 전시실, 아트 도서실, 카페, 다목적 홀에서 이곳을 주로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라, 미술관 교육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 최근에는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 관련 영상이다. 2020년 업로드 동영상 126개 중 44.4%인 56개가 교육용 영상이며, 2021년 5월 12일 현재까지 올라온 36개 동영상 중 교육용 동영상은 15개로 41.7%를 차지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미술관 교육 사례로 꼽을 수 있었다⁷⁵⁾.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대부

75) 진희근, 한·중 미술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구, p.21.

본의 미술관 교육은 일반 성인 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자료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아직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 ‘청춘극장’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청춘극장’
- 대 상: 시니어
- 비 용: 무료 (선착순 접수)
- 일 시: 매주 화요일 13:00 / 금요일 14:00 (공휴일 제외)
- 장 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 내 용: 시니어 대상 무료 영화관람
- 목 적: 지역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형성

- 북서울 미술관의 대표적인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작된 <청춘극장>이다. 본 프로그램은 소재지인 노원구와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으며, 노원구 지역의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화 상영을 제공한다. 북서울미술관이 위치한 노원구는 많은 노인 인구가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게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커뮤니티 공공문화 콤플렉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취지이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다목적홀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많은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림 6> ‘청춘극장’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북서울 미술관 홈페이지)

(출처: <https://sema.seoul.go.kr/it/artinfo/northart/getIntro>)

□ ‘사각 생각 삼각’ 전시연계 시니어 음악 프로그램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사각 생각 삼각’
- 대 상: 시니어
- 장 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 내 용: 판소리 및 춤사위 활동

○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또 다른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사각 생각 삼각> 전시 연계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전통 소리꾼과 함께 판소리에 대해 학습하고, 직접 장단을 배워 ‘춘앵무’ 동작까지 익혀보는 활동이다.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움직여보는 등의 풍성한 융합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림 7> ‘사각 생각 삼각’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홈페이지)

<https://sema.seoul.go.kr/ee/ctzAcadmy/getSketchDetail?ctzSketchNo=438100>

□ ‘몸으로 그리는 그림’_ 시니어 무용 프로그램 <소프트 카오스: 공간 상상展>_전시연계 교육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몸으로 그리는 그림’
- 대 상: 65세 이상 시니어
- 장 소: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다목적홀
- 내 용: 무용 체험을 통한 창작활동

- ‘몸으로 그리는 그림’ 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이다. 인근 동북부 5개 구내 시니어 센터와 연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되었으며, 무용의 요소를 가미하여 보다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6) 어렵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무용과 함께 콜라보하여 진행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 <소프트 카오스: 공간 상상>은 평면과 입체, 시간과 공간,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깨는 실험적인 전시이다. 대중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현대미술을 무용과 접목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먼저 전시를 감상한 후,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이해하고 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전시공간의 작품을 통해 느낀 점, 또는 영감을 몸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작으로 표현해 본다. 시니어 스스로가 한 명의 퍼포머가 되어 자신만의 동작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림 8〉 ‘몸으로 그리는 그림’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mabukseoul/221543097950>)

□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

- 프로그램 개요
 - 프로그램명: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
 - 대 상: 시니어

76) 공감언론 뉴시스 문화파트 보도자료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520_0000656381&cID=10701&pID=10700&fbclid=IwAR1uNgylQroMKYzl3zxcE0yp8YKcNs9axZamE_1_2YAHgya4hHP7imGORBk 접속일: 2021.08.06.

- 비 용: 무료
- 일 시: 2019.10.15
- 장 소: 정릉 실버복지센터
- 내 용: 실기수업

○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은 "뮤지엄을 넘어선다"는 의미의 포스트 뮤지엄 비전 하에 미술관 밖 학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미술관의 영역을 확장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수의 비가시적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사람을 위한 미술관’이라는 미션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9년도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미술 감상교실>은 정릉에 위치한 실버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캐주얼 드로잉 클래스’, ‘낙서도 예술일까’ 라는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평소 미술교육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캐주얼 드로잉’은 시니어들이 쉽게 드로잉을 할 수 있도록 강사가 옆에서 직접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낙서도 예술일까’는 미술에 대해 낯설고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에게 낙서라는 친숙하고 다가가기 쉬운 주제를 선정하여 낙서에 대한 추억과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⁷⁷⁾.



<그림 9>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공식 블로그

<https://sema.seoul.go.kr/ee/fArtCiss/getLatterDetail?revwNo=431485>)

77) 이민경, 고령사회의 신중년을 위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pp.44-45.

2. 해외 시니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사례

시니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시니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과 현황, 그리고 성과를 거둔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시니어 관련 제도를 잘 실행하여 큰 성과를 거둔 일본의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미국

□ MoMA_: The MoMA Alzheimer's Project, Prime Time

‘모마에서 나를 만나다(Meet Me at MoMA)', '프라임 타임(Prime Time)’

- MoMA에서 진행된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를 위한 알츠하이머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모마에서 나를 만나다’ 를 들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트라이프 재단(MetLife Foundation)의 후원을 받아 ‘나를 만나다(Meet Me)’ 라는 이름으로 실행되었다. 알츠하이머 환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보호자들까지 포함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술 관련 전문가, 건강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교육자료를 제작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매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림 10〉 ‘모마에서 나를 만나다(Meet Me)’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뉴욕현대미술관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ju4adbg0DB8>)

- 뉴욕에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일반 시니어 대상 ‘프라임 타임(Prime Time)’ 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근현대 미술교육을 위한 강연과 토크를 진행하며, 미술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진행되었다. 또한 그림 그리기, 판화제작 등 창작활동이 포함된 교육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였다⁷⁸⁾.

□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 ‘시니어 스튜디오 아트 프로그램(Senior Studio Art Program)’

○ 휘트니 미술관은 커뮤니티 파트너를 대상으로 1994년부터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노인들이 스스로 전시에 직접 참여하며,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자신들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노인의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지역사회의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업을 통하여 운영되며, 직접 기관에 방문하여 영상, 또는 슬라이드를 통한 미술사, 창작 실기 교육을 진행한다. 노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스튜디오 아트 프로그램은 1회 90분 수업으로 4주간 진행되는 미니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미술사 교육, 창작 워크숍 등을 모두 제공하는 3개월 과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또한 미술관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오픈 액세스 데이(Open Access Day)’를 통해, 미술관 휴관일에 협력 커뮤니티 센터의 노인을 대상으로 도슨트 투어와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텔레컨퍼런스 코스(Teleconference Courses)’를 진행하는데 이는 우편이나 배송을 통해 교육자료를 집으로 발송하고, 원격회의를 통해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79)



<그림 11> ‘시니어 스튜디오 아트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휘트니 미술관 공식홈페이지,

<https://whitney.org/education/community/senior-programs/community-partners>)

2) 영국

□ Dulwich Picture Gallery

: ‘좋은 시간들(Good Time)’

78) 박민진, 고령사회의 박물관·미술관교육 연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p.38~42.

79)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pp.36~37.

- 영국 런던에 위치한 덜위치 픽처 갤러리는 1817년 설립된 영국 최초의 공공적 성격의 미술관이다. 17~18세기 바로크 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아동, 성인, 학교, 가족, 노인 등의 다양한 방향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전시장 투어, 창작 워크숍, 강연,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 미술관·박물관 밖의 넓은 범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독창적이며 우수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박물관·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⁸⁰⁾.
- 덜위치 픽처 갤러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좋은 시간들(Good Time)’이라는 예술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영국 사회의 심각한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덜위치 갤러리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노인들이 실제 겪고 있는 노화 문제 또는 치매와 같은 질병에 의한 인지적인 문제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성격의 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



〈그림 12〉 ‘좋은 시간들(Good time)’ 프로그램 진행 모습

(출처: 덜위치 픽처 갤러리 공식홈페이지

<https://www.dulwichpicturegallery.org.uk/learning/older-people/>)

□ National Museums Liverpool

: ‘기억의 집(House of Memories)’

- 영국 중부도시 리버풀에 위치한 리버풀 국립박물관은 유럽의 가치 있고 다양한 소장품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으로, 7개의 연합을 지칭한다. 인상주의 시대의 작품들, 희소성 있는 비틀즈 관련 소장품, 타이타닉호의 구명조끼, 고대 이집트 시대의 예술품 등 다양한 성격의 소장품들을 보유하고 있다. 다채로운 소장품과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사회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80) 덜위치 픽처 갤러리 홈페이지 <<http://www.dulwichpicturegallery.org.uk>> 접속일: 2021.08.07.

- ‘기억의 집(House of Memories)’은 치매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미술관의 역할과 방법을 찾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포함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활동 장소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인 ‘내 기억의 집’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음은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박물관에서 나를 만나요’ 프로그램이다. 이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노인들이 유년기를 보낸 시절을 통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은 서로의 추억을 공유하며 유년기의 영화, TV 프로그램, 음식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기억의 집’ 프로그램은 치매 노인뿐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전문가 또는 가족들까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기억의 집 치매 바로 알기’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들이 치매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숍을 진행한다.⁸¹⁾
- 영국 정부 보건부(The Department of Health)의 지원금을 받아 2012년 1월에서 3월까지 약 두 달간 ‘기억의 집 치매 바로 알기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프로그램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훈련 프로그램에 대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억’을 활용한 활동이 치매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억의 집’ 프로그램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 가족과 관계자들까지 수혜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써 그들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교육적 역할까지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그림 13〉 ‘기억의 집(House of Memories)’ 프로그램 진행 현황

(출처: 리버풀 국립박물관 공식홈페이지

<https://www.liverpoolmuseums.org.uk/>)

81) 기억의 집 홈페이지 <https://www.dulwichpicturegallery.org.uk/learning/older-people/> 접속일: 2021.08.07.

3) 일본

- 일찍이 일본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령대책기본법을 제정한 이후로 노인의 정의를 ‘수동적, 소극적 수혜자로서의 노인’ 이 아닌 ‘사회에 능동적,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 으로 규정하고 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일본 정부는 노인들을 사회활동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시켜 경제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통한 삶의 보람을 얻게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추구하여 의료비용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YMCA, YWCA 종교단체와 각종 학습기관뿐만 아니라 시정촌(市町村)⁸²⁾의 공민관⁸³⁾과 도도부현(都道府県)⁸⁴⁾의 평생학습센터도 대표적인 노인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외에 노인의 건강과 복지, 교육을 담당하는 후생성(厚生省)⁸⁵⁾의 「노인대학」, 노인의 취업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노동성의 「실버인재센터」 등이 있다⁸⁶⁾.

□ 공민관 <고령자 교실>

- 공민관은 문부성 정책에 의해 생겨난 시정촌 단위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교육기관이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스포츠, 문화 등의 활동을 하며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배우고’, ‘상호교류’ 를 하는 장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모든 시정촌에서 최소 1개 이상의 공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고령자 교실이 가장 활발하게 실행되고 있다.
- 60대에서 70대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지만 특히 여성의 참여율이 높다. 프로그램은 종교학, 노인심리학, 건강보호, 생애교육과 노인죽음학, 스포츠, 가족관계, 영양 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지역활동 참여, 지역아동 돕기, 지역사회론, 재활용, 노인복지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을 섭외하여 다채로운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

□ 평생학습센터 <장수학원(advanced classes for seniors)>

- 장수학원은 1989년 일본 중앙정부에서 개설한 평생학습센터 중심의 전문적인 노인교실이

82) 市町村, 우리나라 시, 동, 마을의 개념.

83)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에 해당.

84) 광역 자치단체인 도, 도, 부, 현(都道府県)을 묶어 이르는 말.

85) 일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와 유사한 역할 담당.

86) 석주연, 고령화에 따른 노인미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53.

다. 이는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뉘어 총 2년으로 구성된다. 기초과정은 학습자 모두가 수강해야 하는 필수공통과목(생활, 건강에 관한 과목)이며, 전문가 과정은 지역과 전문가로서 필요한 교양을 기르기 위한 전문적인 과목(문학, 역사,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4개의 전공코스로 나뉜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일정 학점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지역사회 리더로 인정된다.

□ 후생성 <노인대학>

- 후생성은 노인교육 중 특히 노인의 건강, 복지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래 일본의 노인복지에 대한 접근은 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하는 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 건강,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후생성은 노인대학을 개설하여 노인의 건강 체육코스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문부성에서 개설한 고령자 대학과의 차이점이다.

□ 박물관 · 미술관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현황⁸⁷⁾

- 일본의 박물관 · 미술관 정책은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문화청(文化庁)에서 관장하고 있다. 문화청은 예술진흥정책을 관장하는 문화부와 문화재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재부로 나뉘는데, 박물관 정책은 문화재부 미술학예과 미술관 · 역사박물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문화청은 1998년에 ‘21세기를 향한 미술관 · 박물관 진흥정책-뮤지엄 플랜’을 발표하였다. 21세기를 향한 일본이 운택한 국가로서 발전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문화활동의 거점이라 할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전제하여 여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⁸⁸⁾.
- 그 중 ‘박물관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정책은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자원봉사자로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일본 박물관과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 성인, 교사, 학교 제휴, 가족 단위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시니어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주로 평생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기관인 공민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및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편이다. 그 외에 공립 박물관 · 미술관에서는 출

87) 기영화, 일본의 노인평생교육과 노인직업교육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노인평생교육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 정립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7(1), 2004, p.74.

88) 양현미 외, 박물관 · 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정책과제 17,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p.150.

장 강좌를 통해 각 분야의 학예사들을 학교, 공민관 등에 강사로 파견하여 평생학습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구마모토시립 현대미술관에서는 구마모토나 큐슈 거주 예술가를 응원하기 위한 전시를 마련하는 한편, 구마모토시 실버문화 작품전 등의 시니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노인 문화활동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⁸⁹⁾.

89) 홍정숙, 박물관·미술관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p.35-36.

제3절 변화하는 미래교육 환경 속 미술관교육의 역할과 위치

1. 미술관의 개념과 사회적 기능의 변화

-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미술관·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서 당대의 시대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1945년에는 수집·보존·전시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고, 1968년에는 연구에, 1969년에는 교육에 집중되었다. 국제박물관협회에서 미술관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존립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는 바, 이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미술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 교육적 기능은 미술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20세기까지의 권위주의적 역사에서는 교육 전문가와 기관이 사전에 준비된 교육 프로그램을 피교육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제공, 훈련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었다. 전시를 통한 단선형 교육관의 원칙은 미술관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왔다. 종래 전시를 통한 교육적 기능의 경우에도 미술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관람자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미술관교육의 정석이라고 믿어 왔다.
- 최근 미술관의 동향을 통해 미술관의 사회적인 기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미술관 개념을 재정의한 1974년 국제미술관협회(ICOM)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비영리적인 상설 기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은 모더니즘 미술관의 엘리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으로서 그동안 소외시킨 하위계층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⁹⁰⁾.
- 영국의 지역박물관회(Group for Large Local Museums)는 2000년 <박물관과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영국의 많은 박물관들이 실업, 건강, 주거, 교육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⁹¹⁾. 이를 통하여 미술관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 높은 기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술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특징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숙한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0) 김지호, 미래의 미술관; 국내외 미술관교육의 역사, 현황, 대안, 2011, p.34.

91) 민소영, 문화소외계층 대상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65.

2.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

- 미술관이 지니는 고유의 기능은 교육의 기본 성격이 결합된 것이며, 최근 미술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소통의 활동, 즉 소장품의 수집·연구·전시·교육 활동 전반을 교육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
- 최근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미술관교육은 참여자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하기에 사용자 분석 작업 또한 중요하다. Elli Bourdon Caston은 미술관교육의 구성요소를 미술관의 철학과 기능, 인문주의적 학문과의 연계적 접근과 사물 중심 등의 미술관적 요소, 미술관적 요소와 통합되는 미술관교육, 주제별 과목별 방법론의 교육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기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관찰, 이야기를 통한 의미해석, 감상, 제작, 교과 연계, 놀이와 체험으로 제안하고 있다⁹²⁾.
- 미술관에서의 교육은 미술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고, 미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와의 접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개개인의 생각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교육적인 성과는 풍성해질 수 있다. 아울러 미술관의 관계를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미술관의 공적 가치와 그 의미를 경제적 이익으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미술관과 공공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요소들로, 미술관 존립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미술관의 공적 가치가 기능주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공성에 대한 정의가 기능적인 틀 안에서 논의되다 보니 공공성에 대한 상반된 입장들이 나타나기도 한다⁹³⁾.
- 미술관을 교육의 장으로 인식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다. 오늘날의 미술관은 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장이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즉, 미술관은 우리 사회의 요구와 관심사를 담아내고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미술관은 사회변화와 관련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미술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 미술관은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역사,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능동적인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술관의 관람객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두터워지고 있다. 이전에는 관람객이 수동적으로 미술관에서 관람을 통해 많은 경험치를 쌓아가기만을 바랐지만, 요즘은 미술관이 빈 그릇과 같은 관람객의 지식을 채워주고자 움직였다. 이제는 관람객이 주도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92) Caston E. B., A model for teaching in a museum setting. In Berry N. & Mayer, S., Museum Educat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Virginia: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1989, p.92.

93) 주명진, '확장된 공론의 장'으로서 미술관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p.98.

의미를 덧붙여 지식들을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람객 스스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미술관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대상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적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다⁹⁴⁾.

94) 강보라,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p.87.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체계의 심층 분석을 위해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개념과 이론을 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외 미술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 가장 빠르게 고령화 현상을 경험한 영국은 미술관 내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행해 왔으며, 그 사례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우수한 선행 모델로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복지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평생교육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인종, 젠더, 사회적 계층의 갈등을 통합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시니어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시니어 예술교육이라는, 연령에 한정된 교육만이 아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고르게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며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이주하여 복합적이고 새로운 문화들이 공존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시니어 미술교육의 방향도 이러한 점을 수용하여 다양한 방식과 함께 각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니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가에서 미술관 설립 시 당초부터 교육적 기능을 특히 강조하며 설립을 계획한다는 점은 미국의 넓은 지리적 조건과 다양한 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이념 갈등을 막기 위한 미국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 사례들을 통해 시니어들이 겪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변화와 개인의 환경적 조건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기획 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MoMA에서 시행한 치매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이 겪는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에 잘 적용시켜 일반인들의 인식 환기는 물론 다른 기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만하다.
-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고령화를 겪으면서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제도적으로 이를 구체화함으로써 국민복지 수준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문제를 국가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여 체계화된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우수하게 평가되는 부분이다. 또한, 시니어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시니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박물관·미술관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은 고령사회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

-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이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해외의 선행 사례에 비해 국가 제도적으로 체계적이고도 현실적인 교육이 구현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경제성장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개인적 요구가 증가되면서, 비교적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연령대인 시니어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교육은 해외의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여 국민 전체를 위한 복지혜택의 한 방향으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공립 미술관을 중심으로 선행적, 선도적인 사례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다른 미술관 및 유관기관으로의 전이와 영향은 물론, 넓게는 미술관교육을 통한 사회적 통합과 국민복지 증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내외 미술관들의 시니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기관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대상자인 ‘시니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세대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을 실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델위치 미술관의 <좋은 시간들> 프로그램과 리버풀 박물관의 <기억의 집>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가족, 지역주민까지 확장하여 교육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따라서 미술관교육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범주의 시니어 관련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 세대통합의 목표를 이루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많은 미술관들이 시니어교육 프로그램 기획시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연극 등의 타 장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치매 환자 대상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타 장르와 융합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을 때, 신체 움직임 등을 통해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참여자들의 활동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술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과 통합됨으로써 새로운 미술관교육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업을 강조하였다. 델위치 미술관의 <좋은 시간들>, 리버풀 박물관의 <기억의 집>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각 지역의 자치단체 또는 관련 교육기관 등과 함께 협업함으로써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술관이 갖는 사회 공공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넷째, 미술관들은 시니어라는 연령층의 특징과 제한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 환경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종래 미술관 교육부서의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교육 프로그램에서 한 발 나아가 각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 전문 강사 등을 다양하게 섭외, 투입함으로써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내 미술관 역시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환경 또한 시니어들이 새로운 환경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시장, 강의실, 미술관 내외부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교육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미술관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시니어의 제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또는 환경적 조건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술관의 시니어교육을 바라볼 때 반드시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섯째,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2주에서 4주 정도로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끼며 점차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미술관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친근하고도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부분의 시니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미술관이 갖는 공익적 성격을 나타낸다. 국공립 미술관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하게 되지만, 나머지 사립기관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진행이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의 어려움은 발빠르게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어 연구·개발되고 있으나,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실시된 인지장애 시니어 매개자 온라인교육을 제외하고는 아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미술관은 시니어가 아닌 일반 성인으로 포괄하여 대상을 설정하거나,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교육 영상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미술관에서는 전시와 교육을 세분화하여 영상자료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와 교육을 통합하여 만든 영상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미술관교육은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연장자들에게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시니어들의 접근성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술관은 시니어들의 리듬과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전략적인 홍보, 시니어들의 원활한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사용 매뉴얼 제작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 이상 국내외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국가별 기관들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한 다양한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전체적인 운영 방법, 형태에 관해 더욱 심도 깊은 연구와 개발, 적용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코로나 19를 계기로, 미술관교육은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나아가, 지속적인 시니어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통해 세대 간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자원으로서의 미술관이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 제4장 ■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대 방향의 다층위적 검토

제1절 심층 요구 조사

제2절 국내 유관기관 시니어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제3절 전략 및 방향성 모색

1. 인터뷰 조사

1)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제에 기존 연구가 부족하고 현장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분석해야 함에 따라 질적 내용 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본 연구 주제가 노인이라는 특수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와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의 간학문적 특성을 포괄함에 따라 인터뷰 참여자의 전문 분야와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2회에 걸쳐 진행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특히 용이하고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FGI는 2회(2021년 7월, 8월)를 시행하였고 이 중, 8월에 시행한 인터뷰의 경우 현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 FGI를 통해 고찰한 내용을 토대로 코딩과정을 거쳐 맥락화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내용분석을 토대로 중심주제와 상위-하위 범주를 추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2) 연구개요

□ 미술관교육 전문가 FGI

- 주요목적: 시니어 참여자 유형에 따른 차이 특성 도출 (대상 세대, 관, 교육방법 등)
- 일 정: 2021년 7월 28일 (수) 15:00-17:00
- 장 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
- 소요시간: 120분

□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FGI

- 주요목적: 시니어 세대별 적용방안 도출
- 일 정: 2021년 8월 4일 (수) 오전 10:00~11:40
- 장 소: 비대면 화상 회의실(zoom)
- 소요시간: 100분

3) 인터뷰 참여자 및 질문체계

- 인터뷰 참여자들은 미술관교육 분야 전문가 6인과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분야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총 5인이었다.

〈표 17〉 전문가 면접조사 참여자

FGI 차수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소속(직위)	직무	비고
1차	1	A	남	4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만) 연령 기재
	2	B	여	4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3	C	여	5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4	D	여	41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5	E	여	33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6	F	여	32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	
2차	7	F	여	54	공연예술교육 협동조합	대표, 50+ 예술교육	
	8	G	여	44	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전시/교육	
	9	H	여	55	50+ 관련 기관	대표, 50+ 교육	
	10	I	여	39	예술단체 시니어 도슨트 교육 담당	시니어 도슨트 교육	

- 면접조사를 위하여 개방형 질문 (open-ended)을 반구조화(semi-structured)하여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니어 참여자 유형에 따른 차이 특성과 시니어 세대별 적용방안에 관련해서 반구조화된 질문 순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18〉 미술관교육 전문가 대상 FGI (1차) 질문

- [익명위크숍][정책 방향성 수립을 위한 기본 진단]**
 -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현재 방향성에 대한 생각
 -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교육 관련 사항, 필요 시 코로나 19 전후 구분
- 현장 분석 및 요구사항**
 - 미술관교육 시니어 프로그램 설계 시 중점 고려사항 / 운영 시 중점 고려 사항
 - 미술관교육 시니어 참여자 설문 의견 중 인상적 사항, 만족하는 프로그램 유형
 - 프로그램 유형 및 주요 내용 / 시행 년도
 - 미술관교육 참여 시니어 세대별 차이
 - 신중년 / 준고령, 고령 등 ※ 시니어교육 및 성인 프로그램 시니어 참여자 포괄
 - 국립현대미술관 관별 미술관교육 참여 시니어 유형 차이 및 특성
 - (과천/덕수궁/서울 - 일반교육/특수교육)
 - 선호하는 관과 관별 공간, 관별 선호하는 교육유형, 선호하는 교육시간대, 교육 신청방법과 온라인 활용도 등

- (5) 신중년 부각 현상에 대한 미술관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시행 시 고려 및 필요사항
- (6) 코로나 19 이후 대면/비대면 상황에서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대응, 장단점, 필요사항
- (7) 미술관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니어교육을 바라보는 입장 (전체/일반교육/특수교육)
- (8) [의명워크숍]
그 외 현재 문제점에 관한 의견, 연구팀에게 요청 및 고려사항, 자유 의견 등

3. 호모 현대레드 시대 시니어 미술관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 수렴

- (1)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차별화 방향 모색을 위한 고려사항
- (2) 시니어 대상 공간, 접근성, 환경 조건, 기본 인프라 요건 구축 관련 고려사항
- (3) 사회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지역 연대 등) 관련 사항
- (4) 시니어 특성 분석에 따른 교육 설계와 교육방법 관련 사항
- (5)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이 가질 수 있는 시니어교육의 차별화 전략 수립 고려사항
- (6) 그 외 의견, 연구팀에게 요청 사항 등

<표 19>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대상 FGI (2차) 질문

1. 시니어 (50+ ~ 고령, 세대별 분류 연구) 용어와 개념화에 대한 전략 (개념)

2. 시니어 특성 고려 미술관교육 환경 구축과 확장 방향(기반)

- (1) 관람객 유형별 차이특성 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설계 방향
- (2) 정보 매체 선호도, 관별 시행 고려사항, 적용 방향
- (3) 시니어 대상 공간, 접근성, 환경 조건, 기본 인프라 요건 구축 관련 고려사항

3.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방향성에 대한 생각(제언)

- (1)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차별화 방향 모색을 위한 고려사항
- (2) 사회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지역 연대 등) 관련 사항
- (3) 시니어 특성 분석에 따른 교육 설계와 교육 방법 관련 사항
- (4)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교육이 가질 수 있는 시니어교육의 차별화 전략 수립 고려사항
- (5) 그 외 의견, 제안 사항 등

2. 조사 결과

□ 미술관교육 전문가 FGI 결과

- 미술관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술관교육의 현재 방향성을 진단, 현장교육 실태와 요구를 분석,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20> 질적연구 자료의 중심 주제와 범주

중심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시니어대상 미술관교육 에 대한 현재 방향성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교육의 방향성	미래 시간을 함께 준비하는 시니어 미술관교육
		대상 맞춤형 교육 형태의 모색
	코로나 19 이후 변화	새로운 교육 형태의 모색
		미술관 교육의 차별성 모색의 필요성

현장분석 및 요구사항	미술관교육 시니어 프로그램 설계 시 중점 고려사항/운영시 중점 고려사항	노인 학습자의 경험적 / 세대적 특성
		공론장으로서의 미술관
		노인을 위한 물리적 교육여건 개선
		심층적인 노인학습자 분석
		세대통합 교육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시니어 미술관교육 참여자 설문 의견 중 인상적 사항, 만족하는 프로그램 유형	전시 기반 감상·창작 프로그램
		치매 환자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
	미술관교육 참여 시니어 세대별 차이	'시니어' 용어 사용에 대한 고려 필요
		세대별/계층별 분석보다는 콘텐츠별 기획 필요
		다양한 노인 학습자 분석
	국립현대미술관 관별 미술관교육 참여 시니어 유형 차이 및 특성	선호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공간
		자연, 휴식, 힐링의 과천관
		세대를 연결하는 도심 속 서울관
		기관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
	코로나 19 이후 대면/비대면 상황에서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대응, 장단점, 필요사항	대면·비대면 교육의 다각적 활용
		비대면 교육에서 시니어를 위한 기술 접근성 강화
		현장 관람객 대상 참여형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타 자유 의견	기관·지역과의 협력 필요성	유관 기관 협력과 홍보 체계 강화
		전문 기관 협력 모델·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성을 강화하는 콘텐츠 확대
	시니어를 배려하는 공간, 전문 담당자의 필요성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적 배려
		시니어를 대상 교육적 공간과 전시의 개발
		시니어를 위한 공간 조성 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진단
	시니어 용어의 새로운 정의 모색 필요	미술관만의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제목 고민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고려	물리적인 접근성과 한계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교육의 설계와 방법	노인 학습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교육의 환원과 선순환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1)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에 대한 현재 방향성

-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담당자를 통해 시니어미술관 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상위범주로는 (1)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에 대한 현재 방향성, (2) 현장분석 및 요구사항으로 정례화할 수 있었다.

(1)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교육의 방향성

① 미래 시간을 함께 준비하는 시니어 미술관교육

미술관은 예술작품을 수집, 보존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람케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안목과 식견을 넓히고 국민들이 자국의 문화를 이해하며 문화적 생활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술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회교육의 장이 된다.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서 ‘삶’ 혹은 인생의 미래와 연결된 이야기, 미래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을 준비하는 미술관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누구나의 미래’라고 적었는데, 교육은 사람의 삶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인생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에서 ‘누군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의미 있는 교육이 바로 시니어 교육의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A, 인터뷰 발췌록)

② 대상 맞춤형 교육 형태의 모색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는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 진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장단점이 있는 존재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방향성 모색 시 미술관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의 형태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어르신 대상의 교육을 제가 찾아가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낭만 수요일>이라는 어르신 대상 작품 감상 프로그램에서 미술관을 방문한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 운영 시 날씨나 환경, 건강 상의 이유로 갑자기 못 찾아오시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방문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C, 인터뷰 발췌록)

(2) 코로나 19 이후 변화

① 새로운 교육 형태의 모색

미술관교육 담당자들은 작품감상과 비대면의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 ‘찾아가는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프로그램 형태 자체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오히려 비대면 시대에 소수 대상의 찾아가는 형태도 고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온라인으로 어떤 방법이 시니어 대상에게 더 적합할까라는 고민도 물론 있지만 형태 자체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B, 인터뷰 발췌)

② 미술관교육 차별성 모색의 필요성

우리나라 미술관의 경우 노인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노인들의 참여 접근성이 쉽지 않는 점이 아직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또는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전시 설명을 통해 노인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어 미술관이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들이 미술관을 찾아오게 하는 방안 역시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기존의 ‘찾아가는 미술관’에서 나아가 ‘찾아오는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과 더불어 미술관교육이 일반적으로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도 모색해야 하겠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은 비대면으로 개편 운영하고 있지만, 시니어 미술관교육 정책 방향성에서 코로나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나야 이야기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근본적인 차별성과 방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A, 인터뷰 발췌)

2) 현장분석 및 요구사항

(1) 미술관교육 시니어 프로그램 설계 시 중점 고려 사항 / 운영시 중점 고려사항

① 노인학습자의 경험적·세대적 특성

노인학습자의 ‘특성’에서 경험적, 세대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 대상 미술관교육 프

로그램에서 효과적인 콘텐츠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며 그 시대만이 가지는 ‘사회적 이야기’를 끌어내는 공감적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또한 미술관은 노인들에게 질 높은 시설과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가족들과 다채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2016년 - 19년까지 치매 환자 대상 프로그램 설계 시,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부분은 ‘노인 학습자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 특성 가운데서도 ‘경험’적인 특성, 그리고 ‘세대’적인 특성 부분을 많이 고려하려고 했었는데요. 노인 대상 프로그램, 미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좋은 콘텐츠는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 그리고 그 세대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인 레퍼런스를 통해 공감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이라구요. 소장품, 전시 콘텐츠 바탕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내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녹여낼지를 가장 많이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한 사항은 치매 환자 대상 프로그램이 한 두 번 미술관에 와서 프로그램 참여한다고 해서 변화나 효과를 준다는 것이 학술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미술관은 문화기관이지 병원이나 의료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 정서적 교류와 소통 부분에 초점을 두어 진행했습니다.
(E, 인터뷰 발췌)

② 공론장으로서의 미술관

‘공적인 장소’를 매개로 그 시절(과거)과 맞닿는 대화의 장(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니어의 경험적·세대적 증언을 바탕으로 문화적 기억의 형태로서의 체험교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론장적 주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술관은 자전적 이야기와 사회적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해석의 공간이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시니어 대상 교육에서는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전시와 소장품 콘텐츠의 교육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순서를 풀어가거나, 시니어가 경험한 시대와 관련한 작품 혹은 전시를 과거와 연결할 때 그 시대와 정서를 경험한 분들과 대화의 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러한 나눔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하며 낯선 가운데 이야기를 나눌 때 공적 장소에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 색다른 경험으로 즐거워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E, 인터뷰 발췌)

③ 노인을 위한 물리적 교육여건 개선

미술관교육 담당자는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시 영향을 미친 사항으로 노인들의 신체적인 특징을 들었다. 이는 거동이 다소 불편한 노인 학습자들의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과 접근성 개선을 의미한다,

실제 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 시 영향을 미친 사항은 신체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에서 시니어가 갖는 신체적인 특성, 즉 거동이 불편하므로 내용을 천천히 전달하며 운영한다던가, 동선을 수월하게 짜거나, 의자를 반드시 준비하는 사항 등 진행 중에 필요한 물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난제였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④ 심층적인 노인학습자 분석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미술관의 많은 관람객은 노인 학습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60 / 70 / 80대 안에서 세대 간 차이가 있음에도 노인 학습자에 대한 자료들은 70-80대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므로 노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직접 신청해서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있는 5-60대가 많았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딸, 아들, 며느리 등 자녀가 대신 신청해서 참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기관과 협업 진행 시 교육 참여자는 50대부터 80대의 모든 세대가 한 그룹에 모여 있었는데, 참여자들 간 세대 차이, 흥미도와 관심사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차도 존재하지만 연령대별 신체적 노화 단계의 차이도 두드러져 이동 시 계단 오르내리는 등 서로의 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B, 인터뷰 발췌록)

제가 처음 느꼈었던 것은 60대, 70대, 80대 참여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 세계에서도 세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고, 현장에서 발견한 것은 그러한 차이점이었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⑤ 세대통합 교육의 장으로서의 미술관

세대소통 프로그램을 시도함으로써 가족들과 대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미술관은 사회 교육기관이며 사회통합과 다양성, 포용성을 담아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므로, 미술관이라는 ‘공적인 장소’를 매개로 그 시절(과거)과 맞닿는 세대 간의 대화의 장(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소통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며 시니어를 중심으로 그 가족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상에서 지역주민까지 확장하여 교육하는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미술관에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는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디자인으로 되어야 한다.

세대 간 소통 요소를 고민하며 기획하였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내용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창작 워크숍 형태의 시니어 교육에서는 재료에 관한 고민을 오래도록 거치는데, 성취감을 주기 위해 작은 크기의

손바닥만한 캔버스를 재료로 사용한 교육에서 그 재료로 인해 손자-손녀와 대화하는 계기가 되고, 교육 이후 재료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우리 손자가 좋아한다.’ 하시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B, 인터뷰 발췌록)

(2) 시니어 미술관교육 참여자 설문 의견 중 인상적인 사항, 만족하는 프로그램 유형

① 전시 기반 감상·창작 프로그램

전시를 감상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으려면 노인들 스스로에게 예술에 대한 안목과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학술적인 문화강좌 이외에도 실생활에서 미를 발견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작가의 삶과 관련된 미술 이해 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시니어 교육의 경우 강사의 강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표현 활동, 체험 활동과 다양하게 연계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서울관 개관 초기, 2013년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작가의 삶과 연결지는 작품 세계를 강의자로부터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교육 참여자 중에는 여성 시니어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근대기 여성 예술가의 삶과 연결지어 시니어 분들의 젊은 시절과도 시대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A, 인터뷰 발췌록)

<낭만수요일>의 경우 짧은 시간 동안 전시장 내 이동식 의자를 놓고 전시 대표작 5점 내외 분량의 작품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작품 감상 시간 이후 10-15분 가량 작품 감상과 연계한 간단한 체험 활동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마무리하는 과정 중 인상 깊었던 장면은, 여든 넘은 연세로 지팡이를 짚고 오신 할머니께서 초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연필과 종이로 그림을 그려본 것이 뜻깊었다던 교육 참여 소감이었습니다. 사실 4B 연필과 사각 종이 외 별 것 없는 간단한 재료였고 간단히 자신의 신체를 그려보는 체험이었는데 그러한 경험이 그 분께는 인상적인 경험이었었던 것이죠.
(C, 인터뷰 발췌록)

② 치매 환자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지속

치매 환자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가족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가 많은 만큼 가족 참여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인 학습자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치료적 관점이 아닌 일상의 회복과 확장의 측면에서 동반자를 포함하는 가족 참여 치매 환자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치매 가족 프로그램 참여자 리뷰를 짧은 수기 형태로 남긴 자료 중 몇 가지 사항을

공유하자면, 치매 환자 가족의 경우 24시간 붙어 보호자 역할을 해야하니 피로도가 높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에서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손을 잡고 울었다는 내용의 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활동에 참여한 분 중에는 매일 매일 24시간 붙어있었는데도 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앵글로 아버지의 얼굴을 본 마음을 적으신 분도 있었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3) 미술관교육 참여 시니어 세대별 차이

① ‘시니어’ 용어 사용에 대한 고려 필요

미술관교육 담당자는 노인 학습자들을 신중년·중고령·고령 등으로 나누고 있지만 학습자 본인은 노인, 시니어로 분류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시니어’라는 용어는 64세 이상 성인 학습자의 경우에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시니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연령을 지칭하는 ‘신중년’과 같은 신조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시니어 내에서도 세대 혹은 연령이 세분화된다면, 50대인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나는 40대, 50대, 60대 중 어디에 속하여 그룹화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던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C, 인터뷰 발췌록)

② 세대별 / 계층별 분석보다는 콘텐츠별 기획 필요

노인 학습자들은 ‘시니어’나 ‘실버’라는 제목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므로 프로그램을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콘텐츠별로 전문화, 세분화하여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고령, 고령 등 시니어라는 카테고리보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미술관에 방문하시는 분들 성향이 좀 더 그렇지않나 싶습니다. 프로그램명에서부터 층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 인터뷰 발췌록)

50대인 제가 교육에 참여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50로 젊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오히려 성인 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C, 인터뷰 발췌록)

③ 다양한 노인 학습자 분석

노인 학습자에 대해 단순히 연령보다는 관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고, 노인의 세대별·계층별 차이보다는 개인적으로 미술문화를 얼마나 접해왔는가에 따라 수준이 다를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노인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미적, 문화적 취향을 포함한 노인 학습자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는 대상의 다양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학습자 집단의 일상생활 태도, 가치 성향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미술관교육 참여자 간 발생하는 ‘문화 경험’ 및 기타 차이로 인해 한 그룹으로 일괄하여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경험의 차이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참여자들의 이러한 차이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갖춘 프로그램을 기획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으로 집중하여 수립할 것인지, 성인 대상 통합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갈 것인가의 고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립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장해 갈 것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짚어보고 정리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B, 인터뷰 발췌록)

제가 시니어 교육에서 만난 참여자 연령은 50대 초반부터 최고령 91세였습니다. 당연히 연령에 따른 차이는 컸습니다. 노인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지만 일부 노인 학습자에 대한 특성을 모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시니어 교육에서 효과적인 콘텐츠라 할 수 있는 ‘자전적인 이야기’, ‘세대의 특징 공유’와 같은 요소의 경우에도 50대 분들에게 시도할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세대가 확장된 만큼 학습자에 대해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관교육에서 시니어 대상을 구체화하는 기준은 단순히 연령뿐만이 다각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프로그램 운영 시 연령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미술 문화를 얼마나 접해보았는가였습니다. 같은 연령일지라도 특히 현대미술에 대한 경험의 차이는 교육에서 많은 요소들을 변화하게 합니다.

(E, 인터뷰 발췌록)

(4) 국립현대미술관 관별 미술관교육 참여 시니어 유형 차이 및 특성

① 선호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

노인 학습자들의 프로그램 접근방식에 있어서 신청 방법은 주로 전화(유선)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선호하는 시간대는 차이가 없고, 선호 프로그램 유형은 대부분 대화형인 것으로 파악된다.

교육 참여 신청은 대부분 전화 등 유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니어 분들이 온라인 접근성을 능숙하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시간대는 자유롭게만 선호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은 대화형입니다.

(A, 인터뷰 발췌록)

②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

덕수궁은 근대적 장소성으로 인해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드나드는 종로와 인접한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덕수궁의 접근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르신 대상 작품 감상 프로그램 <낭만수요일>의 경우 과천에서 시작해 덕수궁까지 확장한 사례입니다. 서울관은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이 주요 콘텐츠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낯선 장르와 매체로 내용 면에서 진입의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보면 덕수궁과 서울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와 달리 과천은 지리적 접근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덕수궁은 전시 주제나 내용도 근대 미술 중심이다보니 어르신 분들에게서 이 공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 인터뷰 발췌록)

치매 환자 시니어 가족 프로그램을 덕수궁에서 운영할 당시, 이곳의 역사적·장소적 특징으로 인해 참여자들에게 장소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 오고 처음 와봤다, 50년 만에 와봤다,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기억나느냐 등의 이야기를 자연스레 나누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③ 자연, 휴식, 힐링의 과천관

과천관은 자연과 함께하며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휴식하고 힐링하는 장소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이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장소성의 특징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과 섬세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교육 형식에 따라 선호하는 장소가 조금씩 달랐는데, 강연은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서울을, 자연을 경험하는 것에서는 과천을 더 선호하셨습니다.

(D, 인터뷰 발췌록)

선호하는 이유는 모두 달랐습니다. 과천은 자연 속 미술관으로 특성화된 공간으로 오랜만에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에서 휴식하고 힐링하는 느낌을 좋아하셨고.

(E, 인터뷰 발췌록)

④ 세대를 연결하는 도심 속 서울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서울관은 이동 동선은 크지만 쾌적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관의 두드러진 특징은 젊은 연령의 관람객 비율이 높다는 점, 동시대 미술·현대미술이 주요 콘

텐츠라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미술관 방문 장벽을 높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니어 대상과 연결성이 부합할 때의 교육적 효과는 매우 높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시니어 가족 대상 교육을 3관으로 확장하여 실시할 때, 참여자들이 처음부터 서울관 콘텐츠를 흥미롭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최정화 작가 전시와 연계한 프로그램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시 전시 작품 속에서는 오래된 빨래판, 빗자루와 같은 옛 일상 소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전시를 아주 친근하게 받아들이며 좋아하셨고 지금까지도 당시 활동을 인상적인 사례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서울관은 시설도 좋고 쾌적하다 보니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시 공간적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은 드물었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⑤ 기관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

시니어 대상 교육에서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할 경우, 교육 신청·참여 과정 전반의 매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어 단체를 통한 참여율이 높다. 서울 권역 주요 시니어 전문기관·시설 등과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어 지속적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은 개인보다는 단체를 통해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개인 신청 참여자의 경우, 신체 건강하고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면, 단체의 경우 누군가의 보호 아래 안전한 이동이 확보된 분들의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C, 인터뷰 발췌록)

(5) 코로나 19 이후 대면 / 비대면 상황에서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대응, 장단점, 필요사항

① 대면·비대면 교육의 다각적 활용

미술관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면 교육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 반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미술관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교육의 장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를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현재는 교육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대면과 비대면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익숙한 일상의 공간을 떠나 미술관 공간이 주는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참여하는 특별함이 미술관교육에서 대면 교육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거동이 불편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더욱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미술관교육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비대면 교육의 장점과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 인터뷰 발췌록)

② 비대면 교육에서 시니어를 위한 기술 접근성 강화

대면 교육의 장점은 미술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교육의 장점은 시공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디지털 매체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면 시니어가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플랫폼은 확장될 것이다.

대면 교육의 장점은 미술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서도 장점은 존재하는데, 무엇보다 시간에 자유롭고 장소에 자유롭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기술적으로 개발된다면, 비대면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 VR 등 기술 활용 프로그램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입니다. (D, 인터뷰 발췌)

③ 현장 관람객 대상 참여형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관람객 수용 인원 제한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데 제약이 생겼지만, 미술관 전시는 계속되므로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비대면 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19 이후 시니어 교육의 특장을 살펴보자면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 점입니다. 덕수궁 전시와 연계한 <시니어가족워크숍>은 현장에서 참여 가능한 상시 워크숍의 형태지만 직접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비대면 교육입니다. 올해의 경우 전시가 개막하고 비대면 교육을 확장적으로 시도하던 무렵에 코로나가 더욱 심해져 시간당 관람객 인원을 시간당 대폭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전시는 계속되므로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F, 인터뷰 발췌)

3) 기타 자유 의견

(1) 기관·지역과의 협력 필요성

① 유관 기관 협력과 홍보 체계 강화

시니어 대상 교육에서 참여자의 모집은 기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확대·보완할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센터 대상의 홍보 및 대한치매학회를 비롯 의료계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시니어 교육은 개별 신청자만으로는 모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혹은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으로 참여자를 모집할 경우, 한 그룹 내 참여자들의 성향이 다양하고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B, 인터뷰 발췌록)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직전 서울노인복지센터와의 협업 과정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서울관 인근에 위치한 기관이었고, 참여자 모집과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다양한 분들이 미술관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치매학회와의 협업에서는 교육자료의 공동 개발과 같은 전문적인 부분에서의 협업도 물론이지만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참여자 모집 등을 도맡아 주시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저희 미술관은 프로그램 기획개발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관계에서 업무 분담은 교육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러 기관으로 협업을 확대해 가는 것이 중장기적 과제이며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B, 인터뷰 발췌록)

② 전문 기관 협력 모델·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과의 지속적 연대는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협업의 모델을 만들고 파트너로서 협력한다면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파급력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중심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한치매학회와의 협력 구조는 의료 전문가 협업의 좋은 사례이지만 의료계뿐만 아니라 시니어 전문기관과 다양한 방법으로 접목할 수 있는 구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니어 전문 기관의 전문가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기관이 추진하는 시니어 사업 전반에 대해 강연하는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특색있게 추진하는 기관의 사업이 특히 인상적이었는데, 시니어 전문 기관이 다양하게 전개하는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국립현대미술관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수도 있겠지요.
(A, 인터뷰 발췌록)

시니어 복지관이나 시설, 문화센터 등과는 구별되는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교육만의 특화된 차별성이 필요하겠지요.
(C, 인터뷰 발췌록)

2015년 대한치매학회와의 MOU 이후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교육자료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학회 소속 의사가 모두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협업이 실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술뿐만 아니라 의료적 측면에서도 특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계점도 존재하는데, 미술관이 수도권에 있다보니 참여하는 분들도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전국 확대를 위한 논의 결과 4-5시간의 이동 시간이 교육 대상자 분들에게는 큰 제약임을 발견했는데, 당시에는 ‘프로그램 전국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치매안심센터 등 지역의 전문 기관, 무엇보다도 지역 미술관과의 연대가 필요하고, 국립현대미술관 프로그램을 모델화하여 각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환경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여 교육자료와 매개자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지요.

(B, 인터뷰 발췌록)

치매 환자 시니어 가족 교육은 대한치매협회와 협업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전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의료계 내에서도 좀 더 다양한 분야와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D, 인터뷰 발췌록)

③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성을 강화하는 콘텐츠 확대

오늘날 미술관은 미술품만 보관, 전시하는 곳이 아니며 연구 및 교육 기능이 매우 중요시됨으로써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교육적으로 활용되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층에 대하여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어린이나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여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미술관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의 관점을 견지하고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양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과 다른 미술관 방문의 경험은 우리를 고양시키지만 한편으로는 고급스러움에 접근하기 어렵게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소외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존재하겠지요. 공공기관으로서 미술관이라면 이러한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가성을 포괄하는 미술관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확산, 이를 통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C, 인터뷰 발췌록)

(2) 연결의 구심점으로서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미술관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지역의 미술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들이 있는데, 시니어 대상 특화 교육도 미술관교육 확장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심점이 되어 시니어교육 특화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좋을 것이다.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을 강조하는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교육 후 사회 확장을 도울 수 있으며 노인들의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과 같은 '진지한 여가' 로의 판로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미술관이 갖고 있는 사회 공공적 역할과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자리매김하게 한다.

제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때 지방에 있는 미술관 관계자분들이 많은 참관을 하셨어요. 타 미술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전 과정을 지역 미술관이 모델 삼을 수 있도록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심점이 되어 특화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성 모색
결과를 이번 연구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3) 시니어를 배려하는 공간, 시니어 전문 담당자의 필요성

①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공간적 배려

시니어 교육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률적인 의자 배치보다는 노인 학습자들의 교육 공간, 예를 들어 ‘ㄷ’ 자 의자 배치 등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휴식 공간을 위한 시니어 라운지 조성,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르신들은 쉽게 지치고 미술관 방문 자체도 이미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미술관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미술관 진입하기 전 이미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 ‘즐거운 프로그램입니다~’ 하며 웃어 보이기도 하지만 순간 줄기도 하는 모습을 자주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하기 전 잠시라도 대기하며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전시실에서 자유롭게 작품 감상하기 전 잠시라도 한숨 돌릴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C, 인터뷰 발췌록)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미술관교육은 복지센터나 시설과는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잠시 움직였다 쉴 수 있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함께 필요합니다.
(C, 인터뷰 발췌록)

② 시니어 대상 교육적 공간과 전시의 개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미술적 활동이 이뤄지는 사랑방 개념의 공간이 노인 학습자들에게 ‘예술적 샤워’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공간적 불편함을 해소하는 교육적 전시를 염두에 두고 작가들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휴식 공간이나 라운지가 생긴다면 좋겠지만 현재 시니어를 위한 공간적 배려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간적 배려뿐만 아니라 전시 개최 시 제공되는 자료의 경우에도 시니어 관람객을 배려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시와 연계하여 <큰 글자 교육자료>를 개발, 배포 중입니다. 신체적인 불편함을 배려하고 공간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적 장치들을 작가들과 함께 워크숍 등의 형태로 개발하고자 생각해 본 바도 있습니다.
(B, 인터뷰 발췌록)

③ 시니어를 위한 공간 조성 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진단

대부분의 공공 박물관 / 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이므로 교육과에서는 시니어교육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세밀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평가까지 실행하는 것은 양질의 박물관 / 미술관 교육으로서 발돋움하기 어렵다. 공간의 조성만큼이나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며, 운영 인력도 함께 상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실 어떤 대상을 위한 교육적 공간이 조성된다면, 교육에서는 공간 조성 자체로 끝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부분과 인력까지 두루 연결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시니어 관련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면 그에 맞는 사업의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고,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시니어 대상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운영 인력 충원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인터뷰 발췌)

(4) 시니어 용어의 새로운 정의 모색 필요

① 시니어 용어 및 프로그램명에 대한 고민

‘시니어’, ‘실버’ 등과 같은 용어들이 유행되고 있는데, 그 용어와 맞는 프로그램 제목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미술관이 어떤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시니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불려지고, 한 때는 ‘실버’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현재 ‘신중년’이란 용어도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의 출현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라는 용어는 미술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 참여의 주요 타깃을 연령 중심으로 갈 것인지, 문화적 배경을 참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A, 인터뷰 발췌)

(5) 접근성에 대한 고려

① 물리적인 접근성과 한계점

몇 년 전부터 미술관이 변화하고 있고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언덕의 경사가 심한 과천, 건물 자체가 문화유산인 덕수궁은 엘리베이터 공사 등의 부분에서 여전히 제약이 따른다.

물리적인 접근성은 시니어뿐만 아니라 미술관 전반적인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미술관에서는 공간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꾸는 등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생겼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특히 과천은 언덕의 경사로가 심하다보니 운영 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덕수궁은 건물 자체가 문화유산이라 엘리베이터 설치의 어려움과 같은 제약이 따르기도 합니다.
(E, 인터뷰 발췌록)

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 배려도 중요하지만 리플릿이나 팸플릿에 상세한 지도나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의 세심한 노력도 필요하다. 디지털보다는 지면 홍보에 익숙한 65세 이상 노인 학습자의 경우, 세심하고 친절한 교육 분위기와 안내가 교육에 참여 시 교육자와의 라포 형성에 중요한 까닭이다. 이와 더불어 대면 교육의 경우에는 관별 미술관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인근 지역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코로나 19 이전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협업 시, 교육에 참여한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서울관, 덕수궁관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센터에 나오는 분들이다보니 미술관 방문에 호의적이었고, 오히려 복지센터에만 있는 것보다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활동을 더욱 좋아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B, 인터뷰 발췌록)

(6) 교육의 설계와 방법

① 노인 학습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

미술관교육 담당자들은 사회과학적 자료, 통계청, 문화관광연구원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시니어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고 접근 방법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역자치단체와 관련 대학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각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 콘텐츠에 맞는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노인 학습자들의 인지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시니어 관련 기관 담당자들, 미술관교육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또는 워크숍 형태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역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니어 대상 교육의 특성 및 여러 가지 사회 과학 측면에서의 통계 자료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니어 대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교육을 계획하고 보다 실제적인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인터뷰 발췌록)

어떤 연령층이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르신들에게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분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미술관에서 문화 향유의 여러 가지 방법 중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 인터뷰 발췌록)

국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 경험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술관교육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과 현대미술 콘텐츠가 시니어가 접근하기에는 낯선 부분이 있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특성과 속성을 고려한 전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E, 인터뷰 발췌록)

② 교육의 환원과 선순환

시니어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시니어 분들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노인 학습자의 경험적, 세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전적 이야기’와 그 시대만이 갖는 ‘사회적 이야기’를 이끌어내어 문화적 자산의 축적으로서 노인이 가진 경험과 증언이 사회에 유용하게 환원되며 시간의 축적을 이룰 수 있는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적 연륜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 분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치가 미술관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맥락을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인터뷰 발췌록)

③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시니어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보호자,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교육에 대한 학습도 이루어져야 한다. 미술관은 사회교육기관이며 사회통합과 다양성, 포용성을 담아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므로 미술관이라는 ‘공적인 장소’를 매개로 그 시절(과거)과 맞닿는 세대 간의 대화의 장(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 소통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며 시니어를 포함하여 가족들과 같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까지 확장하여 교육하는 세대 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미술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는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디자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니어 대상 교육이 시니어만 교육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 주변에 대한 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니어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 보호자, 그리고 지역 기관 관계자들이 미술관 교육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시니어에게도 잘 공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에 시니어 교육 담당자가 많지 않고,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도 없기 때문에 지역 기관 관계자들과 보호자 가족까지 포함하는 교육이어야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폭넓게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연구에서 그러한 개념까지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F 인터뷰 발췌록)

□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FGI 결과

- 노인 /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술관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환경구축, 확장 방안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 특히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FGI를 통해 시니어 (50+ ~ 고령, 세대별 분류 연구) 용어와 개념화에 대한 전략 (개념),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미술관교육 환경 구축과 확장 방향(기반),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방향성에 대한 생각(제언)을 정리할 수 있었다.

<표 21> 질적연구 자료의 중심 주제와 범주

중심 주제	상위범주	하위범주
시니어와 노인에 대한 개념	시니어 용어의 부적확성	시니어 / 노인 용어에 대한 반감: 우리는 청춘
		참여자 모집 시 세부적 연령대 고지: 용어의 직관적 이해 어려움
		젊은 층과 노년의 준비로 브릿지 역할에 대한 50+ (신중년, 50+로의 부드러운 용어 대체 제안)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개념 요소화	활동성과 성취를 기대하는 수요자: level과 수요조사
		동반자와 함께, 속도의 다름, 치매노인 증가: 차별적 요소 고려
시니어 대상 미술관 환경구축 및 확장 방안 (기반)	교육 설계 방안	가르침에서 존중으로: 문화적 자산의 축적으로서 노인, 그가 가진 경험 이 사회에 유용하게 환원되는 교육적 설계
		미술관교육 담당 부서에서 시니어 교육의 %와 예산에 대한 진단
		몸의 재현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 (특히 공연 장르)와의 협업과 효과성 (예: 국립국악원)
		시니어가 시니어를 만난다: 교육의 선순환
		동반자, 가족이 함께 받을 수 있는 교육적 설계
		직업 연계교육과 평생교육(취미, 취향 개발)의 니즈 차이
		미술관 교육 후 사회 확장: 진지한 여가(봉사활동 등)로의 판로 확장
		지속성: 소비가 아닌 시간적 축적을 이룰 수 있는 교육 내용 설계
		다금자 의자배치 등: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분위기 지향

	홍보 방안 (채널, 플랫폼 등)	카카오톡 활용 구독서비스 : 대문의 일원화
		유튜브 안에 국현-국현 시니어 채널 연결
		시니어 방장 등을 만들어서 온라인 홍보 주도권을 시민참여자와 연대
		초기의 안정성과 지속성: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과 구조보다 초기에 계획, 설계, 안정의 촘촘함
	시니어 대상 환경구축 (제반 사안)	미술관 staff(행정인력, 교강사, 큐레이터 등)의 태도
		미술관 인력들의 미적 체험을 위한 연수나 자문
		편안한 이야기 공간에서 예술적 사위를 꿈꾸기(사랑방)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미술관 인력들의 근속 지속성 확보 (안정 인력 확보)
		40-50대가 인구의 허리를 차지: 허들이 달한 공간구조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방향성 (제언)	지역 유관시설과의 파트너십	서울 권역의 50+센터와의 만남의 날
		지역 유관 예술단체의 공모사업 시스템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확대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과의 지속적 연대
	관별 고려 사안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 문화해설사와 연대한 예술기행 프로그램 제안
		통합 교육으로 청주관: 실험과 융합적 예술교육 시도
		오래된 과천관, 그러나 접근성 어려움: 노인분들에게 참여시 지도, 카톡을 통한 찾는 길, 세부안내와 같은 작은 차이의 안내가 필요함
		팬시(Fancy)한 서울관: 심리적 거리 줄이기
	국립현대미술관만의 차별화 제언	허브적 역할로 '국립' 현대 미술관 : 수도권, 지역 미술관 특색 파악한 현황자료 배포, 프로그램 공유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작가, 공간)와 노인교육 프로그램 연계
		90년대 국현 찾아가는 미술관의 부활: 버스 안에 소장품 싣고 소외지역을 돌아다녔던 프로그램
		미술관 기행 프로그램: 관을 연대하여, 2박 3일 기행 프로그램 설계(예시: 해외 루브르 성 투어)

1) 시니어 (50+ ~ 고령, 세대별 분류 연구) 용어와 개념화에 대한 전략 (개념)

- ☐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정책 전문가를 통해 시니어 용어와 개념에 대한 의견 청취.
- ☐ 상위범주로는 (1) 시니어 용어의 부적확성, (2)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개념 요소화로 정례화할 수 있었다.

(1) 시니어 용어의 부적확성

① 시니어 / 노인 용어에 대한 반감: 우리는 청춘

대개 시니어 또는 노인이라는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반감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로 삶의 후반부에 젊었던 시절의 뒤치닥거리를 하는 듯한 약간의 암울함을 주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고, 그래서 현장 전문가들은 50+ 또는 신중년이라는 호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근래의 동향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각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미술관 또는 미술을 애호하는 모습에도 큰 차이가 일어나지만 이들 모두의 공통적 특징은, 당신은 여전히 ‘청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또한 시니어의 범주가 매우 넓은데 50~60대의 시니어와 75세 이상의 시니어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50~60대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되며 문화·경제·사회적 부흥기와 민주화를 겪은 세대로 직접 콘서트를 찾아다니고 LP 판을 모으는 등, 21세기를 살지만 타 세대보다는 여전히 20세기 모더니즘적 가치를 추구하고 섭취한 세대라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 75세 이상 어르신은 전쟁을 경험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을 경험한 살아계신 역사로서 또 다른 전통과 문화적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F,G,H). 하지만 이들 모두 예술적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렇듯 예술 애호가로 나서는 분들은 내·외면적으로 활동성과 활동성취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는 당신들을 청춘이라고 여기는 시니어 세대와, 시니어 안에서도 세대별 특성(사회·문화·경제적 배경), 무엇보다도 활동적 문화자산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와 관점을 문화예술(교육)현장에서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② 참여자 모집 시 세부적 연령대 고지: 용어에 대한 직관적 이해의 어려움

사실 ‘시니어’는 ‘노인’—일반적으로 영국, 미국 등 영어권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을 가리킨다—의 의미와 같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정책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는 정책개념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최근 ‘신중년’, ‘예비 시니어’ 등과 같이 다양한 노인 관련 용어가 쏟아져 나오면서 한국적 시니어에 대한 개념과 연령대에 대해 활발히 고찰되는 가운데 정책 보고서 및 현장에서도 용어가 혼용·남용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도 ‘시니어 대상’이라고 할 때 외래어로서의 낯설음과 동시에 연령대·특성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증언이 있었다(H,I). 따라서 오히려 연령대보다는 교육에의 노출 빈도나 교육의 Level을 설정해 주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간혹 현장에서 저한테 시니어는 노인만 해당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요. 또 시니어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60대 이후면 권장한다던가 이런 멘트가 학생들을 교육을 할 때 광고를 할 때 이렇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시니어 용어로 참여자를 모집할 때 교육현장에서 혼동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분들도, 그리고 70대 분들도 생각보다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지식량이 굉장하세요.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미술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도슨트라는 것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니어교육을 처음 받아본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무조건 60대 70대는 이렇게 한 부류, 4-50대 한 부류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그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초보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수업하는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초보 분들은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래서 그에 맞춰서 초보 분들의 그 지식량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또 약간의 지식이 많으신 분들, 이미 막 몇 년씩 서양미술사를 들으셨던 분들이나 도슨트를 이미 경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한테 너무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I, 인터뷰 발췌록)

③ 젊은 층과 노년의 준비로서의 브릿지 역할에 대한 50+

실제로 50~64세 정도의 연령은 시니어라는 용어보다는 신중년, 50+라는 부드러운 용어가 현장에서 더 환영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에서 젊은 층과 노년의 준비로서 브릿지(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감당하길 기대하는 시선 또한 중요하다고 밝혔다 (F,G,H). 실제로 50+재단에서는 이들의 문화·경제적 자본 안에 조기 은퇴, 육아 은퇴, 새로운 인생 이모작을 위한 사회자본의 필요, 새로운 공동체(Community)의 필요성이 타 세대보다 더 많이 대두되는 현상을 꼽고 있다⁹⁵⁾.

(2)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의 개념 요소화

① 활동성과 성취를 기대하는 수요자: LEVEL과 수요조사

모든 현장 전문가의 의견 가운데 동일하게 거론되는 방향은, 이들을 ‘교육’이라는 용어와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경험의 제공, 재현적 사고(이전의 일들과 사투하는 행위)’의 관점에서의 전환으로 교육 공급이 이뤄져야 하며, 교육 공급의 중요한 지점은 수요자 위주의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속도, 반응, 물리적 상황이 타 세대와 같을 수 없으며 이를 이해하는 교육 설계자, 현장 인력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고 밝혔다 (F,G,H,I).

② 동반자와 함께, 속도의 다름, 치매노인 증가: 차별적 요소 고려

대한민국의 치매노인은 10인 중 1명 이상 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가속화, 세분화되고 있다. 또한 노년의 몸은 자연발생적으로 속도가 느려지며 삶을 도와줄 동반자를 동원하여 삶을 영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생활 세계의 반영’이 시니어 용어와 시니어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95) 안지연·이병준, ‘진지한 여가’ 담론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의 미래방향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5(4), 2020, p.290.

우리가 30대 40대 정도의 분들과 도슨트를 진행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성인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세요. 너무 건강하셔서가지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니어 교육에서 특히나 되게 강조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들어갈 때 동반 입장을 할 수 있는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노인도 똑같습니다. 80대 이후부터 치매라든가 아니면 몸의 장애라든가. 몸의 거동 상태에 따라서 혼자 갈 수 없는 분들이 이 노인층 즉 시니어층에 포함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장애 수준이 있는 어른들을 위한 그 동반자와 함께할 수 있는 시니어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몸이 불편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생기기 때문에 동반자 무료입장이라던가 동반자하고 같이 갔을 때 이들을 위한, 이들을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하면 좋겠어요. 또 치매도 요즘은 65세 이상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치매 노인이라고 했을 때 사실 다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종종 치매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은 조금 아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시 같은 거를 만들었을 때도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시니어에게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 맥락상 이런 전시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돼야 되는지에 대한 도슨트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연구 조사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동반자를 동반해서 반드시 해야 될 교육을 나눠가지고 좀 더 사회 안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G, 인터뷰 발췌록)

2)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미술관교육 환경 구축과 확장 방향(기반)

- ☐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현장·정책 전문가를 통해 기반 사안에 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
- ☐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미술관교육의 환경구축과 확장방향으로 (1)관람객 유형별 차이·특성 분석 결과에 따른 교육설계 방향, (2)정보 매체 선호도, 관별 시행 고려사항, 적용 방향, (3)시니어 대상 공간, 접근성, 환경 조건, 기본 인프라 요건 구축 관련 고려사항에 관한 질의를 하였으며, 상위범주로는 (1)교육설계 방안, (2)홍보에 대한 방안(채널, 플랫폼 등), (3)시니어대상 환경구축(제반 사안)으로 정제화할 수 있었다.

(1) 교육설계 방안

① 가르침에서 존중으로: 문화적 자산의 축적으로서 노인, 그가 가진 경험이 사회에 유용하게 환원되는 교육적 설계

그분들에게 ‘뭔가를 주입하겠다. 뭘을 드리겠다.’ 라기보다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우리 예술가들이 그 다음에 예술 교육가들이 끌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내서 어떻게 어떻게 문화적으로 자산으로 만들까?’ 이러한 부분에 저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경험에 비추어 얘기 드립니다.

(F, 인터뷰 발췌록)

다른 선생님들은 ‘자산’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자산은 어떤 자본주의적인 가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경험이 얼마나 사회에 유용하게 환원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축적 그것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 인터뷰 발췌록)

이처럼 시니어 용어, 요소에서도 거론된 ‘교육에서 경험’으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의 가치와 맞닿은 것을 염두에 두고, 교육 설계에 있어 노인의 존재를 ‘문화적 자산, 삶의 축적의 가치’로서 노인에 대한 바라봄을 인식전환하여 교육설계에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② 박물관 / 미술관교육 담당 부서에서 시니어교육 예산 비율 및 인력에 대한 진단

실제적인 예산 책정에 대한 진단으로서, 미술관교육 담당 부서에 ‘시니어교육’을 위해 책정된 예산 비율이 얼마이고 한 해 얼마 정도까지 늘릴 수 있으며, 해당 정인력, 부인력, 계약직 인력,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평가까지 실행하는 것은 양질의 박물관 / 미술관교육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G).

③ 몸의 재현을 통한 다양한 예술장르(특히 공연장르)와의 협업과 효과성 (국립국악원 사례)

해외의 많은 미술관교육은 융·복합 장르로서 기존의 공연예술 중심 문화예술교육, 시각예술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서 노인의 몸을 시각화하는 상상력으로 몸의 움직임(무용), 이야기(연극), 노래/선율(음악), 글(문학) 등 다양한 예술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감각화하는 교육을 통해 그 효과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미국 MoMA 중심의 치매노인 구술채록 미술 프로그램, 뉴욕 아우구스토 보알의 토론연극은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국악원이 옛것과 노인의 몸의 움직임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를 국립현대미술관 등 미술관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에도 적극 차용·협업할 필요가 있겠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시니어 모델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친구분들하고 같이 부채춤을 추면서, 한국무용을 배우심으로써 나이들, 생애전환시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춤을 배워가지고 공연까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데가 국립국악원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거기는 왜냐하면 국악원 자체가 직접 춤을 추는 사람들이 국악원 안에 이제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연말에 공연까지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되게 딱딱딱 이어져 있거든요. 그건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술은 사실은 이 시니어교육이 공연 교육에 비해서 되게 늦은 편이에요. 사실은 뭐 연극이라든가 공연 같은 데는 행위 주체자로 활동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자가 아니라 이 참여자 분들이 창의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든다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G, 인터뷰 발췌록)

④ 시니어가 시니어를 만난다: 교육의 선순환

실제로 일본에서 ‘노노(老老)케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시니어가 시니어를 돌보고 교육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교육의 선순환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경험한 시니어가 다른 초기 진입하는 비기너(Begginer)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케어하고 교육하는 생태계가 조성되면 박물관·미술관교육에서의 인력부족, 아이디어, 기획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의 필요를 바라보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F,G). 현재 이러한 맥락에서 시니어 도슨트, 문화해설사, 책 읽어주는 할머니 지원 사업 등은 그 효과성을 증명하고 있다.

⑤ 직업 연계교육과 평생교육(취미, 취향 개발)의 니즈 차이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직업으로 연계되길 원하는 사람과 평생교육(취미, 취향 개발)을 원하는 이들로 구분되는데, 취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업이나 봉사로의 연계를 소소하게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부터 직업 연계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해 직업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활동적 노화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이 평생교육 관점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자신의 적성 개발과도 연결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⁹⁶⁾.

현장에서는 보면 취미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뭐 직업 연계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크게 나뉘고 있어요. 보통 취미로 많이 듣는 사람들은 박물관 대학교, 대학원 이런 게 각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마다 많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대학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직접 들으시거나, 아니면 탐방을 많이 가시고 그런 식으로 많이 들으시고요. 아니면 또 구립이라든지 시립 같은 데서 이제 저 같은 교육 강사가 와서 미술사 수업을 한다든지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 구립회관 같은 시민강좌도 많이 하는 편인데 대개 20명이 정원이지만 요구에 따라서 정말 강의실은 너무 작은데 이게 이렇게 입소문이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분들은 지인들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27명 30명까지 간이 의자를 두고 앉아서 교육을 듣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취미로서 지식을 다른 곳에 활용한다기보다는 나 자신의 지식을 쌓아가는 데 중점적인 분들이 대부분 많으셨고, 예를 들어 이제 또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도슨트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 스무 분들이 8주라든지 10주라든지 계속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으시고 직접 도슨트로 연계되어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에서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직업 연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계속 발전, 연계되지 못하고서 경력 단절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I, 인터뷰 발췌록)

96) 안지연·이병준, ‘진지한 여가’ 담론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의 미래방향 탐구, p.293.

⑥ 미술관교육 후 사회 확장: 진지한 여가(봉사활동 등)로의 판로 확장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는 여가 학자 로버트 스테빈스(Robert A. Stebbins)가 착안한 개념으로, 단순 여가로서의 취미, 관심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진지한 여가로 발전하여 아마추어로서 자신과 사회에 기여하는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여가 이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 여가, 노인 문화예술교육 현상에서 두드러지는데 비교적 시간 여유가 있는 노년 세대 에서 이와 같은 교육 후 사회확장이 중요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닌데 로댕미술관, 파리에 있는 로댕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니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연계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뭐 당연히 루브르나 오르세도 많이 하긴 하는데 로댕 같은 경우는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병원인데, 소아암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 또는 병원에 있는 분들이 그런 미술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로댕의 경우는 당연히 조각이나 만들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린이 선생님이 병원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편안하게 친구처럼 접근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니어 분들에게 적용되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시니어 분들이 또 다른 병원에 시니어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컨셉이요. 8주든 12주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연계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싶던가. 아니면은 일정의 아주 조그만한 돈도 지불을 하는 형식으로 그분들을 계속 계속 디벨롭하면서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직업 체험까지 연계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그냥 읽는 것보다는 그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요즘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10년 전, 5년 전만 해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진 않았던 거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40대 분들도 그런 거를 저한테 와서 같이 도슨트가 시니어 도슨트임에도 불구하고 40대 분들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강을 하고 그리고 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자기는 도슨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꼭 박물관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뭐.. 고궁이라든지. 아니면 묘라든지 그런 유적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뽐내고 돈을 꼭 바라지 않더라도 봉사를 하시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시니어 분들을 활동적으로, 액티브 시니어로서 사회에 환류되도록 돕는 부분도 미술관 노인교육에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I, 인터뷰 발췌)

⑦ 디글자 의자 배치 등: 세심한 행김으로,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분위기 지향

노인교육 현장에서 어르신들은 듣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의자 배치보다는 디글자 등 소통방식으로 강의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였다. 또한 리플렛이나 팜플렛에 상세한 지도나 이미지 첨부가 필요한데 이는 아직 디지털보다는 지면 홍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65세 이상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세심하고 친절한 교육 분위기와 안내가 수강생의 태도 및 교수자와의 라포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

(2) 홍보 방안 (채널, 플랫폼 등)

① 카카오톡 활용 구독서비스 : 대문의 일원화

가히 노인문화예술교육도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과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 모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다음 카카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카톡 열면은 샵 버튼.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샵 버튼을 누르면 버튼 위에 뉴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카카오에서 구독서비스로 바뀝니다. 근데 그 구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1인 매체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우리가 왜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다 구독서비스잖아요. 유튜브도 다 1인 매체들을 우리가 그걸 구독 구독 눌러서 만 명을 갖고 있느냐. 2만 명을 갖고 있느냐. 10만 명. 100만 명 이거에 따라서 1인 매체의 힘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게 유튜브 서비스인데 그거를 이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서비스를 완전히 일방향적으로 뉴스다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여러 선호 매체들이 갖고 있는 여러 부분들을 개인 혹은 사업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포섭을 한 다음에 이제 100개의 구독서비스에 100개의 사람 100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구독을 하고 그거를 즐겨찾기를 누르면 그 사람들이 올리는 콘텐츠만 계속 뜨게 되는 거죠. [...] 빅데이터(알고리즘) 처럼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시니어교육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현대미술관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 갤러리 샵 안에 나름대로의 구독 매체 서비스를 갖게 돼서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계속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달에 한 10개 정도가 이 기본 콘텐츠인 걸로 알고 있어요.

(G, 인터뷰 발췌)

② 유튜브 안에 국현-국현 시니어 채널 연결

국립현대미술관의 유튜브 구독자는 4,26만 명으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의 경우 전시 자체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전시투어를 공개함으로써 구독자, 방문객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으로 유튜브 안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채널을 생성 연결하여 알고리즘적으로 환류되는 플랫폼 체계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네이버로 들어가든 유튜브로 들어가든. 유튜브 안에 국립현대미술관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서비스, 시니어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채널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아주 간단한 교육들을 받음 좋겠어요. 진짜 현장 체험적인 부분들은 신청을 미리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돼요. 저희도 이제 예산에 따라서 20명 제한, 이러거든요. 20명에서 딱 끝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럼 다음 달을 기다려야 되면 1년에 저희가 많이 해봤자 400명 정도밖에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도 같이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는 10만 뷰 20만 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초보적인 교육은 예를 들어 1에서 8회까지는 온라인교육으로 하는 거죠.

(G, 인터뷰 발췌)

③ 시니어 방장 등을 만들어 온라인 홍보 주도권을 시민참여자와 연대

이제는 거버넌스 운영방식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시니어 방장이나 적극적인 열성 참여자를 발굴하고, 온라인 홍보 주도권을 시민참여자와 연대하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론이었다(F,G,H,I).

우리 사이버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방식처럼 받아서 적극적인 참여도가 높은 분들을 위주로 해갖고 우선권을 줘서 이분들이 와서 실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뭐 권한을 준다던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교육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더 단계별 교육을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치로 운영되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들 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면 좀 진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 매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시니어를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이렇게 왜 방장: 운영진 이런 역할부임을 하여서 이제 시니어 운영진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참여적인 프로그램까지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 인터뷰 발췌)

④ 초기의 안정성과 지속성: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과 구조보다 초기에 계획, 설계, 안정의 면밀함 견지

전반적으로 리듬감이 다소 느린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니어교육 콘텐츠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 진화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속도와 감을 기준으로 하되 처음 온라인 콘텐츠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정화’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즉, 안정된 플랫폼 형태에서 오픈하여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톡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매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것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안정적으로 50 플러스에게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 활동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들 혹은 교육의 내용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 보여요. 계속 변하면 안 되고 처음에 잘 설계해서 그것이 ‘아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예술 교육이나 아니면 그것의 콘텐츠나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딱 여기 들어가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심플하게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널리 확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죠. 그런 후에 ‘그렇게 정보 매체를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교육도 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미술을 감상하기, 내지는 미술에 대해서 공부하기’ 라고 하는 그 콘텐츠를 안내하는 교육.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코스도 모든 교육의 코스들이 제 생각에는 초반에 잘 면밀하게 설계가 돼서 약간의 변형은 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꼭 공급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I, 인터뷰 발췌)

(3) 시니어 대상 환경구축 (제반 사안)

① 미술관 staff(행정인력, 교강사, 큐레이터 등)의 태도

노인들이 미술관을 소위 ‘화이트 큐브(White Cube)’ 라는 박제된, 위엄있는 공간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친근하게 드나들고 넘나들 수 있으려면 공간이 가지는 분위기가 특히 중요하다. 앙리 리페브르(H. Lefebvre)는 저서 『리듬분석』(2013)을 통해, ‘분위기 담론’, ‘공간의 분위기’를 들어 다양한 문화적 공간의 효과성을 증명하였다. 이는 단지 고급화 전략·저급화 전략으로만 구분되는 문화예술경영적 관점을 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친숙한 형태로 문화예술공간이 조성되어야 하며, 물리적 자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교강사, 큐레이터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 또한 이를 결정하기도 한다는 견해이다.

② 편안한 이야기 공간에서 예술적 샤워를 꿈꾸기(사랑방) / 허들이 덜한 공간

50+ 현장·정책 전문가로 오래 몸담은 전문가는 본인의 다년간의 고민과 함께, 시니어 안에서도 나뉘어지는 문화예술 향유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문화시민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편안한 이야기 공간에서, 다양한 미술적 활동이 이뤄지는 사랑방 안에서 ‘예술적 샤워’를 꿈꾼다고 하였다. 또한 허들이 덜한 공간구조의 설계로 휠체어가 편안하게 이용되고 문턱이 많지 않아 걸음이 느리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해도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으며, 창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 물리적 공간으로 인하여 그것이 좌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제언들이 많았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발표에 의하면, 20년 전에 28세 정도로 측정되었던 우리나라의 중위연령(허리연령)은 현재 43세이며, 2050년에는 50대 중반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인구학적으로도 많은 문화예술시설이 허들이 덜한 공간으로 설계되고 재조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가 이제 50 플러스 교육을 할 때 조심스럽긴 한데, 계층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문화를 향유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남의 얘기인 50 플러스들도 있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떤 예술적인 샤워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인생을 자기가 다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접근성 두 가지 측면에서 공간과 이런 것이 50 플러스의 호흡과 걸음걸이와 그들의 템포.. 이것들을 고민한 세심한 공간적인 구성도 필요하겠고, 언제나 자주 앉아서 조용히 쉬면서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기관이든 모두 다 관심 있게 설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하게 뭔가 짚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휠체어는 당연히 필요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회적인 인프라를 접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사실 그 사회가 선진화되고 얼마나 고도로 성숙하느냐 그것의 기준은 제가 볼 때 아주 약한 어린이나 아주 약한 노인들이 어떻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느냐에 있다고 봐요. 그것이 세심하게,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그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딱 움직여지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 골격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세심한 사람들의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술을 향유하고 그 안에서 미술관이 아주 거창하게 뭔가 예술적으로 저기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것이 내 심리적으로 경계가 없이 넘어설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내 얘기나 나의 어떤 그
 붓터치가 예술가의 수준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지 못해도 작은 공간에서 늘상 사람들과 함께
 얘기되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립이라면. 그래서 국립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예술적으로 고양된 수준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또는 그 몸으로 그 경계를 쉽게
 무너뜨리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I, 인터뷰 녹취록)

③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미술관 인력들의 근속 지속성 확보 (살림을 꾸려갈 안정된 인력의 확보)

시니어교육을 담당할 안정된 인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미술관 시니어교육 전문 담당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실제로 현장에서 인력의 증장기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흐름의 끊김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람객과 교육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현장에서 다년간 경험하면서, 시니어교육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행정적 뒷받침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시니어 교육 담당이 3명 이상 배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으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시니어 전문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교육팀이 확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새로 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혹시 시니어 담당을 한 명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교육 프로그램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지속가능성이거든요. 지속가능성이예요. 저희 박물관도 제가 13년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지, 이 넓은 이 살림을 1년 하고 그만두고 2년 하고 그만두면 다 맥락이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인력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각 관별로 있는 인력들이 어디까지 시니어에 투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상 파악이 중요해 보입니다.
 (G, 인터뷰 발췌록)

3)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방향성에 대한 생각 (제언)

- ☐ 마지막으로 전문가 FGI를 통해서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방향성(제언)에 대해 청취할 수 있었다. 주로 1.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의 차별화 방향 모색을 위한 고려사항, 2. 사회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확대 (지역 연대 등) 관련 사항, 3. 시니어 특성 분석에 따른 교육 설계와 교육방법 관련 사항, 4. 국립현대미술관만의 시니어교육 차별화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5. 기타 의견 및 제안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 이에 대해 상위 범주로는 (1) 지역 유관시설과의 파트너십, (2) 관별 고려사항, (3) 국립현대미술관만의 차별화에 대한 제언으로 분류하였다.

(1) 지역 유관시설과의 파트너십

① 서울 권역의 50+센터와의 만남의 날 /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과의 지속적 연대

서울은 50+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다. 크게는 남부, 서부, 노원, 북부 네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50+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인문·예술·경제 등의 영역에서 재배움의 가치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50+센터 역시 문화예술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고(I), 이러한 점에서 MMCA가 각 관마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리적 위치에서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과 지속적인 연대를 함으로써 노인문화예술교육의 확장과 판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보더라도, 기존에 젊은 층, 일반인을 대상으로 흥행을 이루던 미술관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인구노령 현상을 인지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지역사회’ 안에서 답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다(F,G,H,I).

② 지역 유관 예술단체 공모사업 시스템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확대

전문가들은 예술단체의 공모사업과 파트너십 발굴 확대에 대한 제언을 하였는데, 실행에 있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자체 인력과 더불어 지역 유관 예술단체, 노인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를 발굴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이 Think Tank로서 행정, 재정, 홍보를 지원하고 유관단체가 기획,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한 형태라는 의견이었다.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많고 콘텐츠도 많고 교육도 많죠. 그래서 관심만 있으면 내가 어느 미술관을 가든지 박물관을 가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해요. 근데 하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 수원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시정에서 화성이라든지 뭐 뭐. 안산이라든지 이런 시에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쓰고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입찰을 해요. 그래서 공모가 되면, 저희한테 문화센터라든지 평생 학습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어를 해줘요. 그리고 돈을 당연히 저희한테 어느 정도 되게 소정의 돈을 받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8주라든지 12주라든지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과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소 접근성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면 그 외에 소외되어 있는 평생 학습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그런 곳과 협업을 해서 공간을 빌려서 어느 정도 수업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추후 미술관에 와서 작품을 보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인터뷰 발췌)

(2) 관별 고려사항

①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 문화해설사와 연대한 예술기행 프로그램 제안

덕수궁관은 많은 이들의 낭만을 품고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이다. 단순히 미술관에 간다고

다 자신의 추억을 스스로 향유하고, 그런 추억을 나누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한다. 또한 종로라는 곳은 노인들이 편안하게 드나드는 서울의 중심 공간으로,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이다. 전문가들은 궁 안에 문화해설사와 연대한 예술기행 프로그램,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에서 예술기행, 예술체험이란 관 안에 들어가서 도슨트 해설을 듣는 차원이 아니라 계절과 자연, 덕수궁 자체에 있는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한 기행 프로그램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당해 전시와 연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적 예술기행을 의미한다(F,G).

② 통합교육의 장으로서의 청주관: 실험과 융합적 예술교육 시도

청주의 경우 담배제조공장을 유희 공간으로 재생한 사례로, 공간의 시작점 자체가 변혁적이고 창의적이다.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실험과 융합적 예술교육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통합예술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전주 팔복예술공간의 사례를 보면, 예술교육 감독을 상주시켜 지역사회뿐 아니라 전국적 단위의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내, 학교 밖 예술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노인복지 시설과도 연계하여 노인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주관을 중심으로 실험과 LAB 형태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에 대한 반응과 가능성을 진단하여 타 관으로 이행하는 인큐베이팅 방식도 추천하였다(G, H).

③ 오래된 과천관, 그러나 접근성 어려움: 노인분들 참여시 지도, 카카오톡을 통한 찾는 길, 세부 안내와 같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

과천관은 전통과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다소 접근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는데, 참여자를 모집할 때부터 카카오톡 기능 등 참여자의 수집경로를 파악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노인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국립현대미술관 하면은 대부분 덕수궁도 아시고 서울도 아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천으로 아시거든요. 근데 과천은 접근성이 사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조금 이렇게 프린팅을 해가지고 드린다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카톡을 통해서 그분들이 접근성이 잘 오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해야지 다음에 또 오거든요 불편하면 두 번 절대 안 오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 인터뷰 발췌)

④ 팬시(Fancy)한 서울관: 심리적 거리 줄이기

서울관의 경우 타 관과 두드러지는 특징은, 전체 관람객 중 젊은 연령층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또한 유행적인 감각의 전시가 주를 이룬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치적으로 미술관을

나와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문화적 클러스터(안국, 삼청동)를 지녔음에도 정작 노인이 입장하기에는 심리적 거리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를 좁히기 위해서 작가들이 선호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결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노인들과 함께 예술교육과 창작을 해 본다든지, 다양한 세대 통합적(유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 시도들을 통해 이를 장점으로 살리기를 제안하였다.

(3) 국립현대미술관만의 차별화에 대한 제언

① 허브적 역할로서의 ‘국립’ 현대미술관 : 수도권, 지역 미술관 특색을 파악한 현황자료 배포 및 프로그램 공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국립현대미술관에게는 ‘허브(Herb)’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국립이기 때문에 요구되는 다양한 매개, 허브 역할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해외에서는 대개 허브의 역할을 네트워크와 연대 중심으로 인식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하드웨어를 짓고 기구, 위원회를 새로 조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판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수도권, 지역 미술관의 특색을 파악한 현황자료 및 프로그램의 공유와 환류가 국립현대미술관 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단순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치는 시니어 미술관교육 판로 개척이 아닌, 전국 단위 확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F,G,H,I).

②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작가, 공간)와 시니어교육 프로그램 연계

많은 젊은 작가들이 레지던시를 선호하는 가운데 창동, 난지 등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이 미술관과 연계한 다양한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탈 세대적, 융합 장르적, 주제 중심의 노인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③ 9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의 부활: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택트 찾아가는 미술관

90년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지역 곳곳 ‘찾아가는 예술여행’ 컨셉과 같이 이동 버스에 작품을 싣고 관람객들에게 다가갔다. 이후 인력의 소비적 형태와 체력적 고갈로 몇 년간 이뤄지던 프로그램은 중단이 되었으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금 온택트(Oncontact) 찾아가는 미술관이 필요한 때임을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 부록에 예시한 국내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시니어 예술제는 2020년도부터 온라인 시니어 문화예술체험 창을 만들었고 실제로 뜨거운 반응이 일고 있다.

④ 미술관 기행 프로그램: 관을 연대하여, 2박 3일 기행 프로그램 설계 (예시: 해외 루브르 박물관 예술 투어)

해외 루브르 박물관의 경우, 관내에서만 교육을 실행하지 않고 유럽 여러 지역으로 연계한 기행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배포하고 있다. 위험도가 다소 따르긴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미술관 기행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미술주간’에 맞추어 미술여행(서울·경기·충청·전라·제주)을 연계한 지역 미술관 기행프로그램과 벤치마킹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술주간 통합패스의 경우, 부산 비엔날레, 대전 비엔날레, 한국국제아트 페어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 행사를 티켓 한 장으로 묶어 판매하는 기획을 하였는데, 국립현대미술관 자체, 혹은 미술주간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도 실행해 볼 수 있겠다.

루브르 같은 경우는요. 루브르 안에서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을 투어를 한다던가 다른 나라에 있는 미술관을 간다던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당연히 다른 나라 로마라든지. 이태리를 가는 경우에는 가격이 좀 있겠죠? 근데 그런 수업들을 하고 싶어 하는 한국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시니어 분들은 개인적으로 관람을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투어로 가기는 하는데 미술관을 중점적으로 투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수요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보편은 루브르 같은 경우는요. 루브르가 2박 3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을 투어를 하는데 그 안에 숙박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같이 투어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해서 가는 프로그램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몇 번 문의가 들어오기는 해요. 어머님들이나 이제 시니어 분들이 그런 거 우리나라는 없나요? [...]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긴 하잖아요. 아무리 제가 거기에서 누군가가 살았었다라도 잘 알더라도 언어가 능통하더라도. 그런 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아주 제일 큰 기관에서 관광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믿고 많이들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생기면 좋을 것 습니다. 또 꼭 해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청주 가면 너무 좋잖아요. 시니어 분들은 사실은 자식분들이 아들이나 자손분들이 데려가지 않으면 모셔가지 않으면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일일 투어를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간다던가 그런 프로그램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I, 인터뷰 발췌록)

3. 소결 및 시사점

- 본 장에서는 미술관교육 전문가와 시니어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회의 FGI를 통해 시니어 (50+ ~ 고령, 세대별 분류 연구) 용어와 개념화에 대한 전략(개념),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미술관교육 환경 구축과 확장 방향(기반),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방향성에 대한 생각(제언)을 정리할 수 있었다.

○ 용어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로는, 시니어라는 용어의 생소함과 개념적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특성과 연령에 대한 고지, 무엇보다 젊은 층과 노년층의 브릿지 역할을 담당할 50+로서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 시니어라는 개념에 포함된 나이의 범주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50~60대 시니어와 70대 이상 시니어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베이비 부머 세대에 속하는 50~60대의 사회문화적 경험과 가치관은 70대 이상 세대의 그것과 상이하므로 세대별로 각기 다른 전통과 문화적 자산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본주의적 자산·소비적 접근이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 모두 예술적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이렇게 예술 애호가로 나서는 사람들은 내·외면적으로 활동성과 활동성취를 원하기 때문에 창의적 나이 들의 존재로서 환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시니어들은 교육의 대상이라기보다 경험과 재현적 사고를 제공하는 존재라는 관점의 요소를 살려 시니어교육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교육설계 방안에 있어서 가르침에서 존중으로의 접근이 필요함을 전술했듯이, 시니어들의 축적된 경험과 문화적 자산이 사회에 유용하게 환원되는 설계로 시니어 미술관교육이 기획되기를 노인교육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각예술에만 집중된 미술관교육에서 탈피하여 몸의 재현을 통한 융복합적 예술 장르의 시도와 공연예술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이 협업할 때 교육적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시니어가 시니어를 만나는 문화예술교육, 즉 문화예술교육 노출 경험과 빈도가 높은 시니어가 다른 시니어를 케어함으로써 교육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 주된 두 축을 이루는 직업 연계교육과 평생교육(취미, 취향 개발) 중 개인의 필요도에 따라 니즈별 문화예술교육, 단계별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미술관교육 후 진지한 여가(취미-봉사활동-아마추어)로 이어지는 사회확장의 판로를 고민해야 하겠다. 이상의 방안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술관 접근방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 소통에 중점을 둔 강의실 분위기 조성 및 공간 구성 등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 중심의 교육 설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미술관교육에서 시니어교육 관련 예산(%)의 진단과 확보도 질 높은 시니어교육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 홍보방안에 있어 대문의 일원화를 모색해야 하며, 특히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카카오톡 구독 서비스나, 유튜브 국립현대미술관 채널 안에 시니어 채널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 방장 등을 세워 온라인 홍보 주도권을 자치참여자와 연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속도가 다소 느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의 세대적 특성에 맞춘 접근 및 홍보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초

기에 면밀한 계획과 설계를 통해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환경구축(제반 사안)에 있어서 공간적 분위기 조성은 물론, 물리적 자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미술관교육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미술관 인력들의 근속 지속성 확보도 선행되어야 하겠다.
-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방향성(제언)으로서, 지역 유관시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서울권역의 50+센터,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한 ‘지역 파트너십’ 개발의 필요성이 거론되었다. 또한, 지역 유관 예술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미술관과 연결할 수 있는 시니어 / 세대통합 전문 문화예술교육단체 개발(공모사업 등)이 필요하다.
- 관별 특성을 고려한 사항으로서, 문화해설사, 문화기행 등 예술을 넘어선 문화적 자산과의 연결이 가능한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 실험과 융합적 예술교육 시도를 통한 통합예술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청주관,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체성이자 접근성이 어려운 과천관의 숙제, 젊은 세대가 사랑하고 트렌디한 서울관의 세대 통합적 프로그램 시도가 제언으로서 거론되었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차별성으로서, ‘국립’ 현대미술관의 허브적 역할로서의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박물관·미술관들의 특색을 파악한 현황 자료와 프로그램 공유 및 환류 등을 통해 미술관 시니어교육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의 강점인 작가들이 선호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니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탈 세대적, 융합적 시니어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90년대 찾아가는 미술관을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택트(Oncontact)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미술관과 연대한 미술관 기행 프로그램 설계 및 미술주간과의 연계 등이 제안되었다.

제2절 국내 유관기관 시니어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국내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내 유관기관으로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등 전국 7개 광역도시에 소재하는 116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 조사, 검토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상세 프로그램 현황은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1)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35개소)

서울은 전국에서도 노인복지관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 전체적으로 고른 비율을 보였다.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높은 수준이었고, 미술감상, 인문학 연계 교육, 외부 기관과 연계된 프로그램 수도 많은 편이었다.

2)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25개소)

부산은 사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영상매체 감상(2개소), 공예(5개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복지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사회참여 미술활동을 실시하는 복지관이 3개소(정관노인복지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동구노인복지관 본관) 존재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16개소)

대구에서는 서예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노인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고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연필 초상화 프로그램이 16개 복지관 중 2개소(강동어르신행복센터,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4)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9개소)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캘리그래피와 사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그 외에 도예, 한지공예, 종합공예(강화군 노인복지관,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등의 입체미술 강좌도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팬데믹 상황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한 미술교육(미추홀노인복지관, 연수구노인복지관)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8개소)

대전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서예,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강좌를 진행하는 복지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외부 기관과 연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인 ‘청춘, 나를 그리다’ 프로그램 등 외부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동구 정다운어르신복지관), 미술과 심리치료를 연계하여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유등노인복지관)도 있었다. 또한 공구, 공간, 소재의 준비 등에서 노인들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목공공예 강좌를 운영하는 등(유성구노인복지관) 다양한 성격의 개성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6)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9개소)

광주는 서예와 사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부와 연계하여 출사를 진행하는 등(광주행복나루노인복지관) 사진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압화 기법을 활용하여 냉장고 자석 등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소품들을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광주공원노인복지관).

7)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12개소)

울산은 전국에서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복지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진, 동영상 편집 관련 프로그램은 7개 광역시 중 6번째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으로는 서부노인복지관에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을 받은 미술반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장 많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는 한글서예, 한문서예, 동양화, 사군자 등을 들 수 있으며, 조사 대상인 7개 도시 전체 노인복지관 중 84.5%에 해당하는 98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예 프로그램은 한문서예와 한글서예, 글씨체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 다음으로는 사진, 동영상 편집이 53개소(45.7%)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영상 미디어 시대의 도래 및 스마트폰 보급의 확대는 시니어 미술교육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러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 및 편집, UCC 제작, 유튜브 채널 제작 등의 프로그램이 개설, 진행되는 등 다양한 영상 미디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 도구로는 주로 친숙하게 사용되는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이용되고 있었다.
- 캘리그래피(손글씨)는 사진, 동영상 편집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42개소, 36.2%).

캘리그래피는 노인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순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또한 노인들이 글씨 쓰기에 집중함으로써 대소근육의 둔화를 지연시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표 22〉 국내 노인복지관의 대표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98(84.5%)	53(45.7%)	42(36.2%)
프로그램 수	260	75	44

- 그 외에도 공예, 미술감상, 인문학 연계 및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신노년의 특성을 반영한 강좌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제작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어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전 상황과 크게 차별적인 것은 비대면 수업 형태의 활성화,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의 수업 참여와 실시간 화상수업의 병행으로, 온라인 영상 수업을 통해 시니어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소결 및 시사점

-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 미술교육 프로그램들은 노인의 요구와 환경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주로 서예나 동양화에 편중되어 있었다. 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문제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⁹⁷⁾. 다만 공예, 인문학 연계강좌, 미술감상, 외부 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 사진 및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등 신노년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시대변화 추이를 반영한 프로그램들도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 영상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영상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노인들도 현대 미디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젊은 세대와 경험과 관심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화합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판단된다⁹⁸⁾.
- 한정란(2015)은 노인 세대가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욕구를 파악

97) 심민선, 우리나라 노인미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강남구와 노원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86.

98) 국슬기, 사회복지로서의 노인미술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92.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노년 세대는 이전의 노인과 다르게 개인별로 문화생활과 자기계발, 성공적인 노후에 대한 욕구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때에도 그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⁹⁹⁾.

- 복지관과 경로당, 양로원 등 노인복지기관들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단계적인 미술교육 프로그램이 아직은 부족하며, 현실적으로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⁰⁰⁾. 하지만 미술관·도서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유관기관·미술대학 등 각 기관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프로그램 공유뿐 아니라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99) 한정란, 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 교육과정의 예비적 실천연구, 한국노년학 14(1), 1994, p.147.

100) 최예령, 초고령사회 신노년을 위한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p.54.

1. 시니어 세대별(50+ ~ 고령, 세대별 분류 연구) 적용 방향 및 전략

□ ‘시니어’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목적으로 2013년 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성인(20-64세 / 신중년 50-64)과 노인(64세 이상 / 초고령 85세 이상)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있고, 이 중 ‘시니어’라는 용어는 영어권에서 64세 이상의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¹⁰¹⁾, 우리나라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50대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은연중에 포함하기도 한다.
- 신중년 계층(50-64세)에서는 ‘시니어’ 용어에 대한 반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64세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 중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시니어’라는 용어뿐만 아니라 연령을 지칭하는 ‘신중년’과 같은 신조어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반감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50대는 ‘50+’와 같은 부드러운 느낌의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미술관 관람객 중 시니어 학습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60/70/80대 안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있음에도 학습자에 대한 관련 자료들은 주로 70-80대 노인에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노인 및 시니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
- 노인 학습자들은 ‘시니어’나 ‘실버’라는 제목이 있는 프로그램보다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어울리는 것을 선호하므로 프로그램을 연령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콘텐츠별로 전문화·세분화하여 기획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다양한 계층의 시니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며 미적, 문화적 취향을 포함한 노인 학습자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도 시니어층의 다양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시니어

101) 안지연, 예술, 삶에 스며들다(호모헌드레드 시대: 예술경험의 중요성), 부천: 우리에틀: 슈퍼스트링사운드, 2021, p.39.

학습자 집단들의 일상 생활태도, 가치 성향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직업 연계교육과 평생교육(취미, 취향 계발) 등 교육적 요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직업을 연계하길 원하는 사람과 취미, 취향 계발, 자기 연찬 등 평생교육을 의도하여 교육에 참가하는 사람으로 구분되고 있다. 취미를 계발하다가 도중에 직업이나 봉사로 연계되거나, 처음부터 직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직업개발로 이어지는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문화 향유 목적과 내용은 다양한 현상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시니어가 시니어를 돌보고 교육하는 형태의 교육의 선순환을 시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노노(老老)케어가 유사 사례이며, 문화예술교육을 먼저 익히고 경험한 시니어가 다른 초기 진입하는 비기너(Begginer)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를 케어하고 교육하는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박물관·미술관 교육의 부족한 인력, 아이디어, 기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노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맥락에서 시니어 도슨트, 문화해설사, 책 읽어주는 할머니 지원사업 등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많은 연구와 성공적인 시도를 해 온 분야이지만, 노인 학습자 계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매노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지’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둔 치매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들은 동반자를 포함하는 가족 참여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므로 이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가족뿐만 아니라 작업치료사나 사회복지사 등 인지장애 시니어 매개자들로 교육 대상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교육의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도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허브로서의 미술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미술관교육 환경 구축과 확장 방향

□ 교육설계 방향

- 노인 학습자는 그들의 경험적, 세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전적 이야기’와 그 시대만이 가지는 ‘사회적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공감적 이야기를 선호하므로, 문화적 자산의 축적으로서 노인이 가진 경험과 증언이 사회에 유용하게 환원되며 소비가 아닌 시간의 축적을

의도한 교육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대부분의 공공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에 의해 무료로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여건이므로 교육팀에서는 시니어 교육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담당자들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평가까지 실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양질의 미술관교육으로 자리잡기 어렵다.
- 노인 학습자들은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체험활동, 경험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더 나아가 미술분야뿐만 아니라 몸의 재현과 관련되거나 다양한 예술장르와 연계된 활동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매노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신체를 활용하는 타 장르와의 융합 교육을 진행했을 때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들이 있었다.
-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을 강조하는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교육 후 사회 참여로도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같은 ‘진지한 여가’로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관이 지니는 사회 공공적 역할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공고하게 한다
- 미술관은 사회교육기관이며 사회통합과 다양성, 포용성을 담아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으므로 미술관이라는 ‘공적인 장소’를 매개로 그 시절(과거)과 맞닿는 세대간의 대화의 장(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대소통 프로그램으로 구현되며 시니어와 그 가족들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 주민까지 확장하여 함께 교육하는 세대통합 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기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미술관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 조성을 위한 포용적이고 글로벌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지역 자치단체와 관련 대학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 콘텐츠에 적합한 다양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노인 학습자들의 인지적,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 관련 기관 담당자들, 교육부서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또는 워크숍 형태의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 홍보 및 온라인교육 방안

-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다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오

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게 되었다. 카카오톡 활용 구독서비스 등 시니어들이 접할 수 있는 간편한 온라인 루트를 중심으로 대문의 일원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유튜브 구독자는 4,26만 명으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명작>은 전시 자체가 예약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전시투어를 공개함으로써 구독자, 방문객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 전시뿐 아니라 온라인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차원으로 유튜브 안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채널을 생성 연결하여 알고리즘적으로 환류되는 플랫폼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시니어 방장이나 성실한 참여자를 발굴하고 온라인 홍보 주도권을 시민참여자와 연대하는 등의 거버넌스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자생력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계속 변화하는 플랫폼과 구조보다는 초기에 면밀하게 계획, 설계하여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노인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 콘텐츠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니어 대상 환경 구축

- 노인들이 미술관을 ‘화이트 큐브(White Cube)’라는 박제되고 위엄있는 공간으로만 바라보지 않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분위기 담론’, ‘공간의 분위기’ 등에 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문화적 공간의 효과성을 증명하기도 했는데, 이는 단지 고급화 전략·저급화 전략으로만 구분되는 문화예술경영적 관점을 넘어 편안하고 친숙한 형태로 문화예술공간이 기능해야 한다는 견해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자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행정인력, 교강사, 큐레이터, staff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매우 시사적이다.
-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에서 다양한 미술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랑방 개념의 공간이 노인 학습자들에게 ‘예술적 샤워’를 느낄 수 있게 한다. 허들이 덜한 공간구조의 설계로, 걸음이 느리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해도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하고자 하는 노인 학습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 외에도 사랑방뿐만 아니라 라운지,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 및 운영인력 확충에 대한 노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많았다. 또한 전시 기획 시, 작가들과 함께 협의하여 공간적으로 노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전시를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 노인교육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률적인 의자 배치보다 노인 학습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공간, 예를 들어 디귤자 의자 배치 등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리플렛이나 팸플렛에 상세한 지도나 이미지 첨부이 중요하고, 디지털보다는 지면 홍보에 익숙한 노인 학습자들을 위해 세심하고 친절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미술관 시니어교육 전문 담당자는 프로그램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미술관 인력의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인력의 중장기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흐름의 끊김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람객과 교육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교육현장에서 다년간 경험하면서 정책·행정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절감하였다는 견해였다.

□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 시니어 학습자의 모집이 쉽지 않으므로 기관과의 연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에 대한 List-up과 기관 대상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대한치매학회를 비롯하여 의료계를 접촉할 수 있는 방향성 모색이 요구된다. 나아가, 국립현대미술관이 구심점이 되어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노인교육 및 지역연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서울 권역의 50+센터와,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과의 파트너십 모델을 만들고,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지역의 50+센터는 남부, 서부, 노원, 북부 네 권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50+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인문사회·예술·경제 등의 영역에서 재배움의 가치가 확산되고 있다. 50+센터 역시 문화예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원한다는 점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각 관마다 뿌리내리고 있는 지리적 위치에서 50+센터는 물론,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노인문화예술교육의 확장과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지역 유관 예술단체의 공모사업 시스템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노인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은 예술단체의 공모사업과 파트너십 발굴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실행에 있어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자체 인력과 더불어 지역 유관 예술단체, 노인문화예술교육 전문단체를 발굴하여 Think Tank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이

행정, 재정, 홍보 지원을 담당하고 유관단체가 기획, 실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관별 고려사항

-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 문화해설사와 연대한 예술기행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덕수궁관은 근대적인 장소성이 있으므로 많은 이들의 낭만을 품고 있고, 기억을 환기할 수 있는 장소이며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문화해설사와 연대한 예술기행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도슨트 해설뿐만 아니라 계절과 자연, 덕수궁 자체의 문화적 자산과 연계한 기행 프로그램을 국립현대미술관의 당해 전시와 연계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적 예술기행으로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 통합교육의 장으로서의 청주관: 공간의 시작점 자체가 변혁적이고 창의적인 청주관의 특성을 살려, 실험과 융합적 예술교육의 시도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실험과 LAB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에 대한 반응과 가능성을 진단하여 타 관으로 이행하는 인큐베이팅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제언되었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오랜 정체성, 그러나 접근성이 불편한 과천관: 노인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도, 카카오톡을 통한 찾는 길, 세부 안내와 같은 세심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참여자 모집 단계부터 카카오톡 기능 등 참여자의 정보수집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접근이 용이하도록 ‘안내’ 하는 것이 노인문화예술교육에서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 팬시(Fancy)한 서울관: 젊은 연령층의 관람객 비율이 높은 서울관에 대한 심리적 거리와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위치적으로 미술관 주변의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적 클러스터(안국, 삼청동)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젊은 관람객층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반면, 노인들에게는 그것이 심리적 거리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작가 레지던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노인들과 창작활동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 통합적 시도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차별화 방안

- 허브적 역할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이 시니어 문화예술교육의 ‘허브(Herb)’ 또는 매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을 거점으로 하

여 수도권, 지역 미술관의 특색을 파악하기 위한 현황 조사 및 프로그램 공유가 필요하다. 특히 허브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하드웨어와 기구, 위원회를 조직하는 일뿐만 아니라, 해외의 경우처럼 네트워크와 연대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작가, 공간)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 하되, 프로그램 개발 시 이를 통해 탈세대적이고 장르 융합적이며 주제 중심의 노인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안을 둘 필요가 있다.
- 90년대 국립현대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관’의 부활: 종전의 ‘찾아가는 미술관’ 컨셉을 활용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는 ‘온택트(Ontact)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미술관 기행 프로그램: 지역 미술관과 연대한 미술기행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다. 관 기행 프로그램, 혹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미술주간’에 맞추어 지역 미술관 프로그램과 연계한 2박 3일 정도의 미술기행 프로그램도 참신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국내 유수의 비엔날레 및 아트페어 등 다양한 예술 행사를 티켓 한 장으로 묶어 참여할 수 있는 미술주간 통합패스를 활용하거나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멤버십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 제5장 ■

개선 과제 및 제언

제1절 담론적 · 정책적 제언

제2절 시니어 미술관교육 접근 확대를 위한 과제 및 제언

제3절 시니어 특성을 고려한 실행 전략

1. 담론적 측면

- 시니어 미술관교육을 문화역량 함양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즉, 노인 학습자들이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에 대해 성찰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자와의 차이를 수용하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선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예술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역량은 문화예술공통역량, 좁은 의미의 문화역량, 예술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량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하는 것이 노인들의 문화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시니어 미술관교육을 통한 미적 경험이 노인 학습자들과 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때, 이와 관련한 이론적 분석들이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시니어 미술관교육은 예술 영역과 노인교육 영역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론과 실천 및 정책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와 초점을 견지해야 할지 논쟁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미술관교육에서 노인 학습자들의 자발적 성숙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맥락과 연계하여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시니어 미술관교육은 노인들이 창출하는 미학적인 생산물이 개인의 미학적 체험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학습과정들로 여겨질 수 있다. 노인은 미학적 체험을 통해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져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2. 정책적 측면

- 미술관 이용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대미술관 차원의 미술관교육 비전과 계획 속에서 시니어 또는 관련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시니어 미술관교육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시니어 미술관교육 사업의 촉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문화예술교육 촉진을 위하여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 대한

예산을 배정, 지원했다는 사실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 노인들의 다양화된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들의 미적, 문화적 취향을 포함한 학습자 조사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시니어 미술관교육 정책의 기획에 있어서도 노인층의 다양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노인 학습자 집단들의 일상 생활 태도, 가치성향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다양한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기 위하여 시니어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적으로 개발한 후 교육적 측면에서 질적으로 우수하고 호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확산, 공유되어야 한다.
-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인교육, 노인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노인교육기관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 기관별로 시니어 미술관교육 지원 전략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집단이 상이하므로 각 노인교육기관들이 대상 집단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 관람과 해설 위주의 수동적인 노인교육에서 벗어나 강의, 토론, 자기표현 활동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육방법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니어 미술관교육 사업에 전문가 컨설팅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시니어 미술관교육 접근 확대를 위한 과제 및 제언

1. 교육 프로그램 측면

- 시니어가 시니어를 돌보고 교육하는 형태의 교육의 선순환 시도
문화예술을 먼저 접하고 익힌 시니어들이 새로운 시니어 참여자에 대한 교육의 일부를 담당하는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교육인력의 충원은 물론,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도 시니어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시니어의 다양한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계층별 시니어뿐만 아니라 미적, 문화적 취향 등 시니어의 일상생활, 생활태도, 가치성향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사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다각적인 접근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직업 연계교육과 평생교육(취미, 취향 개발)의 요구차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학습자로서의 시니어들의 학습참여 동기 및 요구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각각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해설사나 자원봉사의 판로를 활용하는 지역사회 연계 및 협업 프로그램 개발
문화해설사, 문화기행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문화적 자산과의 연결을 모색하고, 미술관교육 이후 시니어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사회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세대 간 소통의 개념을 일상생활의 이슈와 연결한 토론 기반 프로그램 개발
미술관을 매개로,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세대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예술 장르의 융복합교육 프로그램 개발
미술 분야뿐만 아니라 체험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아우르는 융복합교육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문화예술로의 다각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탈세대적, 장르 융합적, 주제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
예술가 레지던시를 활용하여 장르 융합적, 주제 중심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예술을 중심으로 한 탈세대적 소통을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심도 깊은 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국내외 노인 관련 기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제작
미술관 내 적용 프로그램뿐 아니라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의 적용 범위를 확장시켜 나간다. 이때, 미술관 소장작품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활용 가이드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한다.
- 학술대회 개최 및 온라인 송출을 통한 이론적·실천적 성과 공유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론적·실천적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으로의 환류를 모색한다.
- 국립현대미술관 자체 개발 교재를 활용한 연수 및 전문가 양성
시니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연수 등을 통해 전문가 양성으로 확장시켜 나간다.

2. 교육여건 측면

- 편안함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전시 및 교육공간 조성
- 라운지, 사랑방,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 증설
미술관에 대한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인식을 제 공한다.
- 허들이 없는 교육시설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노인들의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기반으로,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간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전시를 작가들과 개발
교육적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 기획과 더불어, 작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전에 관람
동선 등 공간적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다.
- 친숙한 형태로 문화예술공간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자원의 요소뿐만 아니라 행정인
력, 교강사, 큐레이터, staff 등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도 중요하다.

3. 운영 인력 측면

- 시니어교육 전문 인력 충원 필요
전문 인력 충원과 더불어 근무 지속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니어교육 담당
자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외부 강사 및 외부 운영 인력 활용방안 필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외부 강사 등의 인력 풀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해외연수 등 벤치마킹 기회 제공 필요
국내외 연수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 기존 인력을 대상으로 시니어교육에 대한 재교육 필요
- 편의시설 운영 인력 충원 필요

4. 운영 자원 측면

-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 지원 필요
-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충분한 자원 확보 필요
- 시니어 대상 교육예산 비율 확대 필요

- 편의시설 운영예산 확보

5. 온라인교육 활성화 방안

- 시니어들이 친숙하게 접속할 수 있는 간편한 SNS 루트를 개발하는 등 대문의 일원화를 모색한다.
- 알고리즘으로 환류되는 플랫폼 체계 구축
유튜브 안에 국립현대미술관 시니어 채널을 별도로 생성하고 이를 연결한다.
- 시니어 방장이 온라인 홍보 주도권을 시민참여자와 연대하는 등의 거버넌스 운영방식을 도입한다.
- 시니어들의 온라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변동되는 것보다는 안정된 플랫폼 형태에서 오픈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니어 대상 홍보자료로서의 온라인 영상을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시니어 대상 사전교육을 위한 온라인 강좌 및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아카이브 개선을 통한 국내외 학술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원을 확보한다.
- 적극적인 국내외 학술대회 유치 및 온라인 송출을 통해 이론적, 실천적 연구성과를 공유한다.

6. 관별 고려사항

- 시니어가 사랑하는 덕수궁관: 문화해설사와 연대한 예술기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통합교육의 장으로서의 청주관: 공간의 시작점 자체가 변혁적이고 창의적인 특성을 살린 실험적, 융합적 예술교육을 시도한다.

- 오랜 정체성, 그러나 접근성이 불편한 과천관: 지도, 카카오톡을 통한 찾아가는 길, 세부 안내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안내 방안이 필요하다.
- 팬시(Fancy)한 서울관: 시니어들의 심리적 거리 줄이기를 위한 세대 통합적 시도가 필요하다.

1. 전문성 (Professionalism)

- 국내외 시니어교육 및 세대 통합교육의 허브로서 Learning Resource & 아카이브 구축에 기반한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한다.
- 양질의 연구 및 교육 인력 확보, 경력개발과 재교육을 통해 내외부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2. 차별화 (Differentiation)

- 시니어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발현되는 ‘자전적 이야기’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이야기’의 확보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전시와 연계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허브적 역할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수도권, 지역 미술관의 특색을 파악한 현황자료 배포 및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상호 연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국제 학술대회 개최 및 온라인 실시간 방영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한다.

3. 질관리 (Quality Management)

- 시니어 관련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양질의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 세대 통합, 교육과 놀이, 여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4. 네트워크 (Network)

- 국내 노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연계망을

구축·활용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50+센터, 지역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 시설, 의료계와의 협업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전문기관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산출한다.

5. 플랫폼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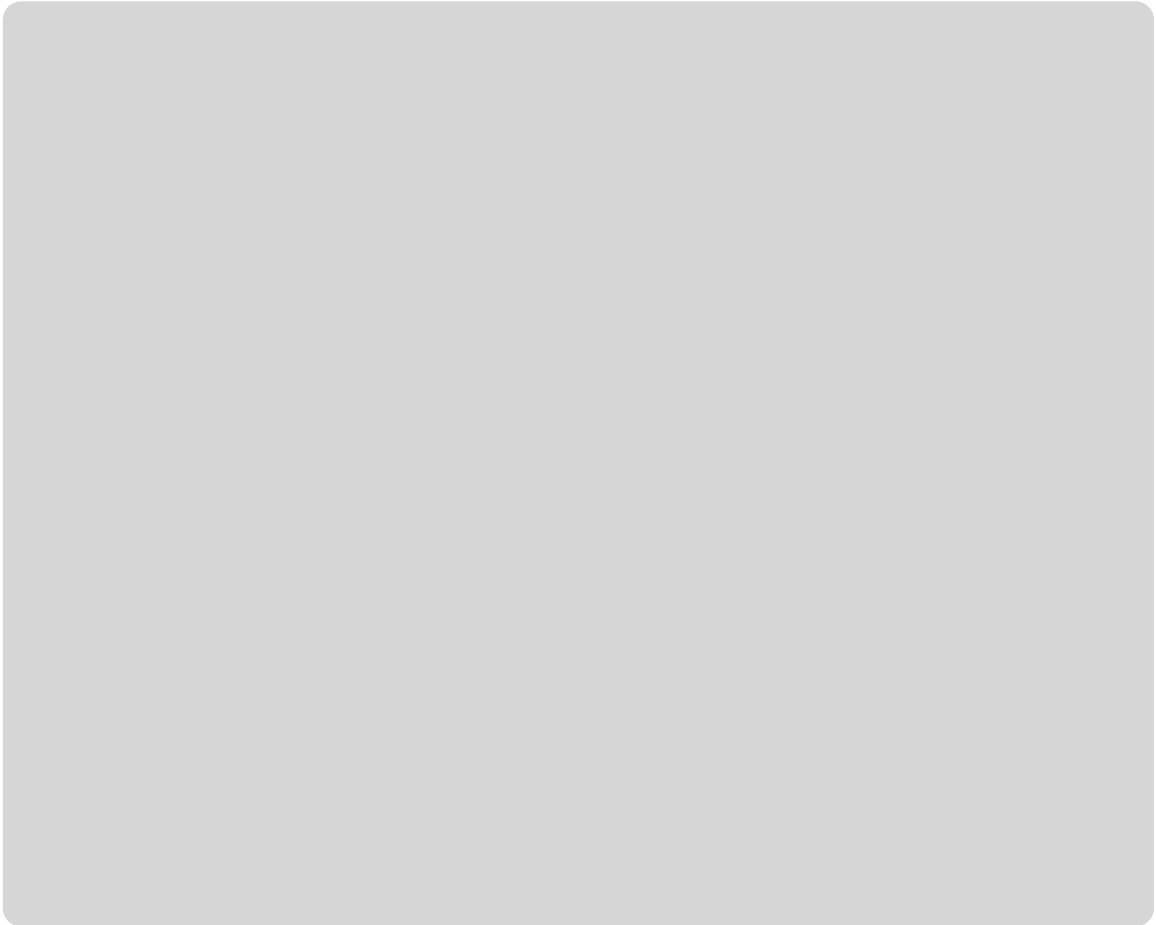
- 세대 소통의 매개체로서 국내외 노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한 정책을 설계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 및 미술관·박물관의 구심점으로서 상징적, 실천적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간다.

6. 공론장 (Public Sphere)

- 시니어의 경험적·세대적 증언을 바탕으로 문화적 기억의 형태로서의 체험교류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론장적 주제를 제공할 수 있다.
- 미술관은 자전적 이야기와 사회적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해석의 공간이자 상호 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은 전 세계 사람들이 ‘세대 소통’의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이 가능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장 ■

결론



-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제반 사회 문제의 심화 속에서, 노년 문화의 형성은 이제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년 세대의 삶을 통해 축적된 다양한 지혜와 경험, 통찰 등 값진 무형자원들을 발현시키고 통합하여 현대 사회에 적합한 노년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그것이며, 이와 같은 과제는 활발하고도 생산적인 노년기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배려와 인프라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러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여가 향유 문화 또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적 측면에서도 미래의 잠재된 고학력 노인 학습자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 이에, 본 연구는 체계화된 시니어 미술관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대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담론적·실천적 심층 진단 등의 다층위적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언을 행하였다.
- 정부의 정책과제적 측면에서, 사업의 연계성, 범 부처 간에 존재하는 ‘생애주기 복지’, ‘생애주기 예술교육’, ‘여가’ 개념 등에 대한 입장과 견해의 간극을 좁히고 사업적 중복을 정리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국공립 미술관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에 의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기획하게 되지만, 여타 사립기관에서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진행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담이 뒤따르기 쉽다. 따라서 향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 노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세계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 나이 들고 쇠약한 존재가 아닌, 노인 역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행위가 기대되는 존재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행위자, 문화예술교육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로서의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목표는 참여자 개개인의 예술적, 창조적 행위와 자기성찰적 행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노인들의 경험과 체험을 대상화하기 위해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 연극, 영화, 시 등 다양한 형태와 장르가 융합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이 시대에 필요한 유효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들은 미술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개인 및 조직, 사회가 상상력과 놀이, 인공물을 통해 문화와 예술을 생산, 축적, 공유, 이해, 소통하며

서로 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조적, 비판적으로 느끼고 표현하며 행위하는 역량'인 문화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인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체적인 사고력, 심미적 능력, 판단력, 행위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내용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시니어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인프라가 제공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시니어 미술관교육은 미술 분야를 포함하여 문화적·예술적인 분야에 대한 노인 학습자들의 관심과 활동을 자극하고 이와 더불어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평생교육 관점에서도 개인들로 하여금 자율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변화된 자아상을 반영해주는 그들의 일상을 교육내용으로 친숙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교육적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노인 학습자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내외 미술관의 시니어 대상 미술관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여러 기관들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니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술관교육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범주의 시니어 관련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대 간 통합의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시니어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기획,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술관이 지니는 사회 공공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적절한 시사를 제공하고 있다.
-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 미술관을 주로 이용하는 관람객 중 고령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시니어교육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환경의 구축이 시급하다. 노인의 잠재적 문화 역량을 계발시켜 세대·지역의 문화전수자로서 인력을 개발함으로써 노인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의지와 동기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침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세대 통합 관점에서의 상호 소통을 목표로, 시니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전 세대를 포괄할 수 있는 관련 전시 및 연구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 국립현대미술관은 평생교육 기관 및 노인 관련 기관,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의 활발한 연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인적 협력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노인들에게 개인적 성찰과정과 미적 경험들을 제공해야 한다. 시니어 미술관교육이 창조적이고 성찰적인 학습과정으로 연결되어 노인들이 개인과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율적인 존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제간 논의와 연구들이 필요하다.
- 국립현대미술관의 교육환경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립현대미술관의 포지셔닝을 고려하여 그 상징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시니어 미술관교육의 방향성을 조망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사회문화적 공론장이자 세대간 소통의 매개로서의 On-Off Line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국내외 노인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관별 지원 전략을 구체화, 차등화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 교육환경 또한 시니어들이 새로운 환경에 친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니어의 신체적, 심리적 제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 공간 또는 환경적 조건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시니어 전담 교육인력 및 전문인력의 육성, 시니어 관련 전문인력 대상 연수자료·교재의 개발 및 보급도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오프라인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술관교육은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즉, 효과적인 온라인교육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며, 이에 수반되는 시니어들의 온라인 매체 접근성 문제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술관은 시니어들의 리듬과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에도 전략적인 홍보, 시니어들의 원활한 온라인 매체 활용을 위한 사용 매뉴얼 제작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명희(2015). 박물관 교육과 질적연구.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 박차상 외(2013).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서울: 학지사.
- 안지언(2021). 예술, 삶에 스며들다 (호모현드레드 시대: 예술경험의 중요성), 부천: 우리에딸: 슈퍼스트링 사운드.
- 양리 르페브르 저·정기현 역(2013). 리듬분석. 서울: 갈무리.
-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과주: 나남.
- 최종호 외(2010).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 吉本光宏(2016). 文化芸術から始まる 経済再生 `産業活性化に向けて, 産業 争力会議 実行実現点検会合 (第44回).
- 筒井隆志(2011). 文化・芸術による地域活性化~活性化のための施策の方向~, 立法と調査.
- Andrews, F. M. & S. B. Withey(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Press.
- Andrews, F. M.(1986). Research on the Quality on Life. Ann Arber University of Michigan.
- Bourdieu, Pierre(1986). The Forms of Capital, Handbook of Theory Research of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IL: Aldine Publication.
- Cody, Choi(2010). The Contemporary Cultural Landscape, Culture Graper.
- Daniel L. Stufflebeam(1988). The Personnel Evaluation Standards: How to Assess Systems for Evaluating Educators, Education Assessment (Books).
- Dewey, John(2003). Art as Experience, Lee, Jea En Trans,(Original work published in 1934), the world of books.
- George, L. K.(2006), "Perceived quality of Life", in R. H. Binstook & L. K. Georg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John, W., Creswell(201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 Heung Sik et al Trans, (Original work published in 2013), Seoul: Hakjisa.
- Robert A. Stebbins(2012). 최석호 외 역. 진지한 여가. 서울: 여가경영.
- Sharan B, Merriam, Luana L, Bierema(2016). 성인학습 이론과 실천. 아카데미프레스.

학술논문

- 강영식(2008). 노인의 욕구 영역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선택 속성, 노인복지연구. 41. 327-352.

- 강은나(2016).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32. 29-37.
- 기경희·김광수(2018). 회복탄력성 연구 동향과 과제: 회복탄력성 개념과 척도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17(2), 157-175.
- 기영화(2004). 일본의 노인평생교육과 노인직업교육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노인평생교육의 새로운 이론적 모델 정립과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7(1).
- 김다솜, 김원택, 박현우(2014).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미래 커뮤니티 제안-가상현실(virtual reality) 공간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Vol. 44. 451-460.
- 김명자(1994). 미래사회에 있어서 고령자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6. 29-48.
- 김정현(2016). 노인 복지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 추이 2008~2015년. 노인복지연구 1. 91-108.
- 김주희·정영미(2002). 독거노인의 건강실태와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 4(1). 16-26.
- 김향미(2018). 미술교육의 사회적 기능 확장으로서의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형교육 (66). 77-104.
- 김현주(2007). 노인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형교육 (30). 49-83.
- 김형숙(2000). 미국의 미술관과 교육-미술관이 사회기관으로서 관람자층과의 연계성을 담당한 역사와 이론적 전제. 미술교육논총 제9집.
- 나향진(2002). 성공적 노화를 위한 노인의 여가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18. 131-163.
- 박애란·정경숙(2017). 일 지역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활동, 가족지지가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212-221.
- 박영숙(2015). 신노년 문화를 창출하는 노인복지관의 혁신.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5(1). 19-42.
- 박응희(2016). 노인문화예술교육의 평생교육학적 성찰: 부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1(4). 47-62
- 박지현, 장웅조(2017). 크리에이티브 에이징(Creative Aging)을 위한 미술관 시니어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구-국립현대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43.
- 박현식, 전오진(2014). 성공적 노후를 위한 노년세대와 신노년세대 인식 비교. 지역사회연구 22(4). 217-237.
- 변금선(2018). 활동적 노화수준의 변화: 1931~1951년생 출생 코호트 비교. 비판사회정책 61. 95-135.
- 변수정·황남희(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복지포럼 258. 41-61.
- 손덕순(2016).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노인복지실천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1(2). 195-218.
- 신덕상(2014). 성인의 학습참여동기 유형과 학습 메타포의 관계. 한국평생교육 제2권 제1호.
- 안지연·이병준(2020). '진지한 여가' 담론에서 바라본 노인여가교육의 미래방향 탐구. 문화예술교육연구 15(4). 227-295.
- 안지연·이송하(2020). 경력단절여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재배움의 가치와 의미 연구-직업훈련장에서의 '연극놀이지도자' 과정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15(6). 53-77.
- 양현미 외(2002). 박물관·미술관 중장기 발전방안연구. 정책과제 17.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여성준 외(2018).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IDI도시연구, (13), 107-142.
- 용채은 · 유지은(2018). 노인의 회복탄력성이 우울과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38(4). 945-962.
- 이가옥(2000).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한노인병학회 4(2). 23-28.
- 이가옥 · 우국희 · 최성재(2004). 노인독립 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독립과 의존의 재개념화. 한국사회복지학 56(1). 5-22.
- 이가옥 · 이지영(2005). 고령자 고용정책의 대응전략에 대한 비판과 시민권(citizenship)의 원리를 통한 대안 모색. 한국노년학 25(2). 171-193.
- 이동민, 김정곤(2015). 액티브 시니어의 행동특성 분류에 따른 인터랙션 디자인 방향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33. 381-390.
- 이동민, 이지연(2015). 시니어의 핵심 니즈에 기반한 디자인 서비스 방향성 도출. 디자인지식저널 34. 297-305.
- 이명석(2010). 협력적 거버넌스와 공공성. 현대사회와 행정 20. 23-53.
- 이병준 · 장소은 · 박주혜 · 박정현(2020). 성인계속교육연구 11(4). 179-205.
- 이상철 · 박영란 · 정은화(2016). 노인이 인식한 고령친화 환경의 구성개념과 활동적 노화와와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서울도시연구 17(2). 119-137.
- 이송하 · 안지연(2019). 50+세대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가치와 의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지 37(1). 195-209.
- 이은석 외(2017). 한국 신노년층의 회복탄력성과 생산적 노화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융합학회논문집 8(5). 255-263.
- 이주연(2018). 미래 사회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방향 탐색. 조형교육 66. 245-269.
- 이향란(2018). 고령사회의 시니어 평생학습참여가 긍정적 노화에 미치는 요인. 노인의료복지연구 10(1). 65-84.
- 전봉천 외(2005). 대도시 노인의 삶의 질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31(2). 124-137.
- 정경희(2011).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80. 16-27.
- 정순돌(2012). 한국 중산층 남성 노인과 여성 노인의 사회적 자본 경험과 의미-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7. 221-260.
- 최석규(2018). 창의적 나이듦에 대해 질문하기: 볼드페이스티벌 (B)OLD Festival. 연극평론 90. 190-194.
- 최순식(202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1(5). 21-37.
- 최용민 · 이상주(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2. 193-217.
- 탁지현(2019). 크리에이티브 에이징의 관점에서 본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 한국무용학회지 30(4). 43-59.
- 한정란(1994). 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 교육과정의 예시적 실천연구. 한국노년학. 14(1).

140-153.

- 허준수(2011). 노인들의 고독감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 복지관 이용 노인과 비이용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 101-131.
- 황지영 · 홍해지(2017). 일상예찬-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미술관교육 관점에서의 의미와 방향. 2017 국립현대미술관 · 대한치매학회 공동세미나 발표집: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미술관교육.
- Midori(2011). 모두를 위한 박물관-시각장애인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립민속박물관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박물관교육: 혁신. 42-51.
- Beard, J. G. & Raghead, M. G.(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 Cambell, A.(1976).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2.
- Caston E. B.(1989). A model for teaching in a museum setting. In Berry N. & Mayer, S., Museum Education: History, Theory, and Practice, Virginia: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90-108.
- Coleman, Jame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 Research, 31.
- DiMaggio, P.(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 Felce, D. & Perry, J.(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 O' Rand, A. & Kreckler, M. L.(1990). Concepts of the life cycl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241-262.

학위논문

- 국슬기(2010). 사회복지로서의 노인미술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용(2019).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연(2009). 건강관련 노인의 삶의 질 모형.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호(2011). 미래의 미술관: 국내외 미술관교육의 역사, 현황, 대안.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봉(2013). 노인의 평생교육 강사활동 참여동기 및 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노인회 K숲 해설가 클럽 활동사례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소리(2008). 평생교육에서 노인 미술교육의 전문성 신장방안.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소영(2010). 문화소외계층 대상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진(2018). 고령사회의 박물관·미술관교육 연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은(2018).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영(2018). 평생교육으로서 노인미술교육 전문성 신장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원(2007). 노인종합복지관의 교육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10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소미(2004). 노인미술교육 환경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주연(2015). 고령화에 따른 노인미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민선(2000). 우리나라 노인미술교육 현황조사 연구 : 강남구와 노원구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수(2004).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가 인지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경(2021). 고령사회의 신중년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란(2007).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명진(2013). ‘확장된 공론의 장’으로서 미술관 공공성에 관한 연구: 한나 아렌트의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희근(2021). 한·중 미술관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현황 연구.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예령(2021). 초고령사회 신노년을 위한 미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현(1997). 건강 수준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민아(2018). 액티브시니어 여가활동참여자의 여가태도와 여가충족이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형수(2002). 한국 사회 도시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정숙(2007). 박물관미술관의 노인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고서

- 강수권 외(2017). 서울 50 + 세대 연구 I. 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고용노동부(2021). 2021년 고용노동부 업무추진계획.
- 고용노동부(2020).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 운영지침(최종).

고용노동부(2021). 2021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20). 신중년 인생3모작 설계지원 안내서.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주요내용(요약).

국립현대미술관(2020). 2020 미술관 연보.

김춘남(2015).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연령 상향조정 공론과 대응방안. 경기복지재단.

남경아(2017). 50 플러스 세대. 서울과학기술연구원.

대구문화재단(2020).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결과자료집.

대한민국정부(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06-2010.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1-2015.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2016-2020.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2019 문화예술정책백서.

백선아(2018). 2017 50+세대 문화예술교육 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건복지부(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보건복지부(2021).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보건복지부(2021).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유지웅(2010). 노인자살 실태 분석과 예방 대책.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윤소영(2016). 고령화 시대 문화의 역할과 과제 :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민선 외(2018).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보도자료.

정지혜(2010). 대한민국의 시니어 그들은 어떤 소비자일까. LGERI 리포트.

조현성·최보연(2020). 예술향유정책 분석 및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20). 2020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전환.

한국문화원연합회(2021). 202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안내문.

文化庁(2016). 我が国の文化政策. 株式会社ニッセイ基礎研究所(2016). 文化産業の経済規模及び経済波及効果に関する調査研究事業報告書.

웹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노사발전재단: <http://www.nosa.or.kr>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시50플러스재단: <http://www.50plus.or.kr>

워크넷: <http://www.work.go.kr>

정부24: <http://www.gov.kr>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www.betterfuture.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index.do>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연합회: <http://www.kocac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kcti.re.kr>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부록

-
1. '창의적 나이 듦' 담론과 관련된 시니어 예술교육 사례
 2. 국내 유관기관 시니어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
 3. 국내 유명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및 관련 기사

1. 국내 : 실버문화 페스티벌

- 대표적인 시니어 예술교육 관련 국내 사례로, 2015년 개막된 실버문화 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마추어 예술가로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조명하고, 문화를 매개로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축제이다. 특별히 2019년 실버문화 홍보대사로 63년째 현역 및 ‘창의적 나이 들’을 살아내고 있는 배우 이순재씨를 위촉하여, 어르신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한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
- 2020년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이어진 축제는 ‘찬란한 어제를 그리며 희망찬 내일을 꿈꾸는 청춘가득 실버세대의 문화예술 축제’라는 슬로건과 함께, 실버 세대가 주체적으로 다양한 세대 구성원들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도전하는 어르신 중심 축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한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식의 축제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샤이니 스타를 찾아라’라는 주제 하에, 전국의 자발적 생활예술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예-본선 과정을 통해 20개 팀들이 본선에 진출하여 아마추어 어르신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실버문화 발굴에 기여하였다.
- 특히 다양한 공연과 시각예술 장르를 중심으로 한 실버문화 공유의 장(filed)이 마련되어, 창의적 나이 들을 위한 목표의식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그림 1-2>와 같이, ‘오늘 더- 청춘해’는 키트 아트 교구재를 통한 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으로서 단순 체험과 기술표현에 그치지 않고, 축제 슬로건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과정 중심의 예술교육 코너들이 다채롭게 설계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2021년 10월 18~29일까지 마포구 일대에서 작년과 같이 온라인 예술체험 코너를 기획하였고, 이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그림 1-1> 2020 실버문화제, 온라인 예술 체험코너



<그림 1-2> 2020 실버문화페스티벌, 예술(교육) 체험 코너
(출처: <http://www.silverfestival.or.kr>)

2. 국내 : 서울 시니어연극제

- 2015년 서울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시작된 ‘서울 시니어연극제’는 사회 참여가 활발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문화감수성을 충족하고 노인 문화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극문화의 메카인 대학로 내에서 격년으로 진행되었다. 1회에는 서울 소재 5개 노인복지관이 콜라보로 진행하였고 2회에는 그 규모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울산, 부산 등 전국 13개 노인복지관이 참여하였으며, 3회는 전국 아마추어 시니어 연극단으로 대상이 확대되어 시니어 연극단 8개, 프로 연극단 2개 극단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 주도의 연극문화 축제 기반을 다진 바 있다.
- 액티브 시니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체험은 한 번뿐이지만, 연극을 통해 2개, 3개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인생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노인 주도의 노인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세대 교류를 위한 특별 공연, 세대 간 공연 관람 등을 통해 세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3. 해외 : 볼드 페스티벌

- 해외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런던 사우스뱅크에서 열린 ‘볼드 페스티벌(B)Old’을 들 수 있다. 최석규 연극평론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2017 한영 창의적인 나이 들 컨퍼런스’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예술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양국 간의 지식 교류, 네트워크 형성 및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2018년에는 동북아시아 소재 영국문화원들(한국, 대만, 일본, 중국)이 주관하여 ‘창의적 나이 들(Creative Ageing)’을 주제로, 런던사우스뱅크에서 열린 ‘볼드 페스티벌’과 런던 및 맨체스터의 창작 단체, 문화예술기관, 공공정책에 관한 리서치에 참가하였다.
- ‘볼드 페스티벌’은 런던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인 사우스뱅크(SouthBank)가 주최하고 베링재단 등 시니어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기관과 다양한 예술단체가 함께 한 축제로, 2018년 5월에 열린 축제의 주제는 ‘나이 들을 즐기며, 창의적 나이 들 만들기(Celebrate age and creativity)’였다. ‘볼드 페스티벌’은 공연, 커뮤니티 이벤트, 심포지엄,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워크숍과 심포지엄을 제외한 모든 창작 공연들은 65세 이상 예술가들의 작품만으로 이루어졌다. 축제 공간으로는 중, 소극장, 로얄 페스티벌 홀과 퀸 엘리자베스 홀 로비, 사우스뱅크 야외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살아있는 도서관(Living Library)> 으로,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그들의 살아 있는 인생 경험담을 일대일 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하는 작품이었다. 또한, <신경 디스코(Neuronal Disco)> 는 치매에 대한 행동 분석을 기반으로 디스코라는 형태를 적용하여, 놀이로써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세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직접 운영한, 많은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었으며, 다양한 워크숍과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만남도 준비되었다. 라인댄스 워크숍, 치어리딩 워크숍, 볼드 파티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제한이 있는 시니어들의 참여를 위한 의자, 휠체어 무용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 섬세함을 보였다. 또한 볼드 커뮤니티(BOLD Communities)와 볼드 마켓(BOLD Market) 등을 통해 시니어 문화예술단체들의 네트워크 기회도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심포지엄과 대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년 문화와 창의적 나이 들에 대한 정책, 창작활동, 테크놀로지와 나이 들, 노년의 성 등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울러 대만, 일본, 한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뿐만 아니라 노년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해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되었다. 많은 시니어들과 시니어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 문화예술 정책 입안자,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개방된 공간에서 일반 관객들의 참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관람과 더불어 직접 체험에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림 1-3> 볼드페스티벌 풍경, 최석규 (2018)

1.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35개소)

〈표 2-1〉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31(88.6%)	22(62.9%)	17(48.6%)
프로그램 수	103	38	19

〈표 2-2〉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마포 노인 복지관	서예 초급, 캘리그래피, 스마트폰 동영상 편집 교실, 시니어 유튜브(정보화 시대에 맞는 유튜브 활용 및 나만의 유튜브 채널 제작하기)
2	강남 구립 시니어 프라자	*온라인(ZOOM) 강좌안내(백신접종유형: 미접종, 1차, 2차) 미술-수채화(다양한 모양의 예쁜 꽃 그리는 기초 수채화 배우기), 테블릿드로잉(테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드로잉 시작하기), 인문학- 작품으로 배우는 한국미술이야기(시대별작품으로 보는 고려부터 조선까지 미술이야기), *대면 강좌 안내(백신접종유형: 미접종, 1차, 2차)- 인문학-서양미술의 흐름과 전개(시대의 흐름을 읽는 서양미술사), 한국 근현대 미술사(한국 미술작품 감상과 근현대 역사), 18세기 영국 풍경화와 예술이야기, *IT-일상기록 동영상 만들기(심화)-쉽게 배우는 나만의 영상 만들기 평생교육프로그램-서예,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 등 작품 활동과 함께하는 미술 프로그램
3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대면(현장)교육- 문화예술학과(민화, 종이접기, 디지털 카메라), 정보화학과(동영상 편집, 파워디렉터, 포토샵)
4	서초구립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동영상 만들기, 디지털카메라, 영상작가 도전하기, 스마트폰 카메라&동영상, 한국화, 수채화, 종이접기, 천연화장품&비누만들기, 한문서예, 한글서예

5	시립용산 노인종합복지관	DIY 공예, 한글서예, 서화교실, 만화그리기, 사진,
6	서울 특별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대면)문화예술교육 미술반, 사군자, 수묵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7	서울노인복지센터	미디어교육- 태블릿/스마트폰으로 그리는 그림, 디지털 드로잉, 스마트폰 교육- 추억의 포토영상 만들기, 컴퓨터 교육- 사진을 내마음대로-편집하기'포토샵 사진 편집반', 이제 나도 영상 편집자! 파워디렉터 영상편집반, 어학 교육- 일본 동화와 민화로 배우는 일본어 (초중급과정), 인문학 교육- 글쓰기-사진으로 '나'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기 [포토에세이 '힐링스토리, 나를 담다'], 음악-[오페라 감상과 그 음악 속 이야기], 미술-[명화를 통해 본 화가의 삶과 작품 속 이야기] 미술/서예교육 -유화로 그리는 여름풍경 -수채화로 그리는 도시 풍경화 -향긋한 그림, 커피드로잉 -아크릴화로 떠나는 지중해 산토리니 -연필로 나를 그리는 시간, 연필덧생 -예쁜 손글씨, 캘리그래피 서예 -기초로 탄탄히 익히는 붓글씨서예 -왕희지행서로 배우는 한문서예 -한문서예해서의 맛 '주홍사가 지은 사언시 쓰기' -한국의 고유한 미를 담은 한국화 -여흥이 느껴지는 문인화 문화예술로 교류하는 광장, 탐골미술관 전시: [탐골미술관 프로젝트 공 <어떤 쓰임> -우리 주변에 흔한 일회용품인 비닐봉지, 빨대를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 두 작가, 사물의 쓰임에서 나아가 사람의 역할과 가치란 무엇인지 재정의하는 탐골미술관의 기획 프로젝트 전시 체험: [작가와 일상을 나누는 '집콕 워크숍'] -씨실이 걸린 틀에 다양한 색상의 면사, 비닐봉지로 직조 작품 만들기
8	서대문 노인 종합복지관	대면수업: 한글서예(정자/흘림체), 한글서예(민체/봉서체), 캘리그래피, 사군자(매화/난), 사군자(국/죽), 산수화, 한문서예(해서), 한문서예(행서), 한문서예(예서), 전통매듭, 사진초/고급,

9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서예한글, 서예기초, 서예한문, 디지털카메라, 예쁜글씨 초/중급,
10	서울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입문반/활용반, 캘리그래피반, 서양화반, 손뜨개반, 동영상 편집반, 수목화 입문반/활용반,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별도운영), 한문서예 입문반/활용반, 종이접기반, 사진반,
11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 카메라, 캘리그래피, 한글서예, 한문서예, 디지털에이징 똑똑A, 스마트폰 영상제작, 동양화
12	서울시립 성동노인종합복지관	A비접종 및 1차 접종자 (대면) 그림자서전쓰기, 스마트폰 사진촬영반, 예쁜손글씨 캘리그래피, 한글서예 첫걸음/중급, 수채화 초/중급, 사군자, 색연필로 그리는 세밀화(보태니컬아트), 아크릴 중급, 영상만들기, 한문서예,
13	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 한문서예, 캘리그래피
14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엽서감성수채화, 캘리그래피 초급/중급, 힐링손뜨개,
15	서울특별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사진·동영상 편집, 문화예술교육(무용), 종이접기(초보), 종이접기 지도자 양성과정, 종이공예, 손뜨개
16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실버 영상 에세이, 사진과 이야기, 컬러링북, 이복경의 그림교실, 민화, 한글서예, 한문서예기초, 한문서예아카데미, 동양화, 동양화아카데미, 사군자
17	시립 강동노인종합복지관	창작사진,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18	도봉노인종합복지관	한문서예, 한글서예, 쉽게 그리는 서양화, 스마트폰 영상제작, 유튜브 크리에이터,
19	시립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예쁜글씨, 한문서예, 서예첫걸음, 한문전서, 캘리그래피, 추사체, 수채화반, 사군자, 동양화, 한글서예
20	용산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	종이접기, 힐링미술, 손뜨개DIY, 캘리그래피, 사군자, 서예, 별별 힐링공방,
21	송파 노인종합복지관	미술, 도예, 서예(한글/한문), 수목화
22	시립 동작노인종합복지관	한문서예작품반, 캘리그래피, 서예입문,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수묵담채화, 작품연습반, 미술동아리, 인물화그림동아리, 미술반(초급/중급),
23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문화예술교육 미술반, 사군자, 수목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24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사진작품(DSLR사진촬영기법 및 보정을 배워 취미활동을 즐기는 수업, 스마트 블로그(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블로그, 카페, UCC(동영상제작), 1인 유튜버 과정을 배우는 수업, 사군자, 수채화, 인물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한문서예고급반, 매듭공예, 종이접기,
25	상월곡실버복지센터	한글서예, 한문서예, 캘리그래피,
26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캘리그래피(외부공모사업 무료), 한글서예작품, 사진반(외부공모사업 무료),

27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 한문서예, 예쁜손글씨, 사진동아리,
28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수채화, 사진편집 및 영상만들기, 디카사진반,
29	서초구립양재노인종합복지관	1차 이상 접종 완료자-한문서예, 미술반, 한글서예, 민화반, 수묵화반,
30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수채화, 한문서예, 미술, 사진, 창작미술, 문인화,
31	강동구립해공노인복지관	드로잉(연필스케치), 한글서예, 한문서예, 캘리그래피,
32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창의미술(여름을 주제로 색종이, 점토, 물감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창의미술), 수채꽃 & 캘리그래피, 한글서예, 한문서예, 서양화, 민화,
33	구립성수1가2동노인복지센터	캘리그래피,보태니컬아트, 드로잉, 손뜨개공방, 스마트폰사진반
34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한문서예, 한글서예, 자율서예, 사진편집
35	서초구립방배노인종합복지관	서양화

2.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25개소)

〈표 2-3〉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21(84.0%)	13(52.0%)	5(20.20%)
프로그램 수	39	14	5

〈표 2-4〉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사구노인복지관	영상사진반, 서예,사군자,
2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서예, 사군자
3	다사랑종합문화예술회관 (다사랑노인복지관)	서예한자, 사진동아리
4	남구노인복지관	플래시애니메이션, 서예, 사군자
5	장산노인복지관	서예, 한국화, 사군자, 한글서예, 연필그림
6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서예, 사군자, 문인화, 실용미술, 수채화미술
7	금정구노인복지관	연필그림, 영상제작(파워디렉터), 스위시(애니메이션, 사진편집)

8	사상구 노인복지관(본관)	*평생교육 -무비데이 내용: 최신 영화 감상 -캘리그래피반
9	사상구 노인복지관 (분관)	사진 및 영상 편집 교육, 수채캘리그래피, 출발 비디오 여행(유튜브, 네이버 TV등 영상매체를 활용한 영상 시청 프로그램
10	중구노인복지관 (분관)	서예, 사군자, 캘리그래피, 서양화,사진
11	중구노인복지관 (분관)	종이공예, 서예, 사진,
12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사군자, 서예, 사회참여지원사업: 레인보우 풍선아트 봉사단: 지역사회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방문하여 풍선아트 활동
13	기장군노인복지관	한문서예
14	일광노인복지관	대면교육: 사군자, 서예, 종이접기, 온라인 화상교육: 서예, 종이접기, 사군자,
15	정관노인복지관	*어르신평생학습동아리'무한도전'운영 ;연필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미술과 함께하는 '헬로 마이 라이프'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이웃과 함께 재능을 공유하는 지역사회 참여활동 *분야: 미술(수채화, 콜라주, 스텐실, 민화 등)
16	동구노인복지관(본관)	노인미술(수채화, 아크릴화, 냅킨공예, 한지공예), 서예동아리 사회참여지원사업 은빛봉사단: [복지관사업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활동] -전문봉사: 사진촬영, 주간보호 프로그램 진행
17	동구노인복지관(분관)	서예, 수공예: 생활 수공예품(가죽공예, 양말 목공예 등 소품만들기) 토탈공예: 종이, 클레이아트, 냅킨공예 등 생활소품 만들기 동영상 제작반
18	부민노인복지관	사군자, 서양화, 서예, 디지털카메라
19	실버벨노인복지관	서예, 실버영상반,
20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	동영상만들기, 서예, 문인화, 수채화, 캘리그래피,
21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사군자, 서예
22	영도구노인복지관 (본관)	서예
23	영도구 노인복지관 (분관)	토탈공예교실, 미술교실(보테니컬)
24	자성대노인복지관	서예, 사군자, 문인화, 생활공예, 동영상 제작반
25	수영구노인복지관	서예교실, 연필그림, 캘리그래피,

3.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표 2-5〉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15(93.8%)	5(31.3%)	6(37.5%)
프로그램 수	38	5	6

〈표 2-6〉 대구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대면:서예, 스마트폰활용 영상제작
2	대구중구노인복지관	사진반, 한문서예, 한글서예, 수채화, 사군자, 캘리그래피,
3	대구동구노인종합복지관	미술, 서예, 컴퓨터포토샵
4	팔공노인복지관	동영상편집, 미술교실, 한글서예, 한문서예, 사군자
5	강동어르신행복센터	서예, 사군자, 연필초상화,
6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서예,
7	대불노인복지관	사군자, 한글서예,
8	강북노인복지관	한글서예, 사군자, 사진,
9	북구노인복지관	사군자, 해서, 예서, 행서,
10	함지노인복지관	해서, 행서, 한글서예, 캘리그래피, 예서, 사군자, 민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사진반)
11	범물노인복지관	온라인문화교육-내글씨는 작품(pop&캘리그래피)
12	고산노인종합복지관	서예, 수묵화, 문인화, 캘리그래피
13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예, 사군자, 수채캘리그래피,
14	성서노인종합복지관	서예, 사군자, 문인화
15	달성군 노인복지관	사군자, 서예, 수묵화, 미술
16	달성군북부노인복지관	서예, 연필인물화, 생활수채화, 문인화, 캘리그래피

4.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표 2-7〉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7(77.8%)	4(44.4%)	5(55.6%)
프로그램 수	19	6	5

〈표 2-8〉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강화군노인복지관	서예,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캘리그래피, 한지공예, 도자기, UCC제작반,
2	인천서구노인복지관	문인화, 미술, 종합공예, 캘리그래피, 한글서예, 한문서예, UCC
3	계양구노인복지관	수묵화, 서예, 캘리그래피, 스케치
4	남동구노인복지관	캘리그래피
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서예,
6	미추홀노인복지관	춤(실시간)교육 유튜브(녹화형)교육-수채화
7	중구노인복지관	서예(한자), 미술-연필인물화
8	인천동구노인복지관	한글서예, 문인화, 한문서예, 수채화, 사진편집&알씨동영상, 포토샵,
9	연수구노인복지관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녹화형 네이버 밴드(BAND)활용-캘리그래피, 색연필일러스트, 캐리커처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실시간화상 *대면 프로그램-정보화 -UCC제작, 스마트폰으로 담는 세상(스마트폰으로 영상 만들기) 대면프로그램-여가지원 한문서예, 한글서예, 한국화, 민화, 사군자, 서양화, 카메라로 담는 세상,

5.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표 2-9〉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6(75.0%)	1(12.5%)	2(25.0%)
프로그램 수	21	1	2

〈표 2-10〉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동구 정다운어르신 복지관	서예한문,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프로그램, 사군자, 문화예술 지원사업-노인미술("청춘 나를 그리다"), 서예 한글(캘리), 시니어리더십 양성교육-POP글씨
2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서예한글, 한국화, 추사체, 해서
3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서예한문, 서예한글, 수묵화, 미술반
4	대전서구노인복지관	한글서예, 해서, 예서, 행서, 사군자, 문인화,
5	유등노인복지관	집단상담프로그램, 미술교실, 미술심리치료
6	유성구노인복지관	목공공예,미술, 문인화, 서예, 치유적 사진자서전, 캘리그래피,
7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본관)	한글서예, 한문서예, 종이접기, POP교실, 문인화,
8	신대인노인복지관(분관)	캘리그래피

6.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표 2-11〉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8(88.9%)	4(44.4%)	0(0.0%)
프로그램 수	15	5	0

〈표 2-12〉 광주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광주시노인복지관	붓글씨, 수묵화, 현대한글서예, 수채화, 유화, 연필소묘,
2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예, 문인화
3	광주남구노인복지관	서예, 사진반, 미술반,
4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문인화, 서예 맹자, 서예 공자, 영상파워디렉터, 포토샵디자인,

		공원아카데미-미술교육(압화를 활용한 냉장고 자석 만들기)
5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동양화, 미술교실, 서예, 사진디카사랑
6	효령노인복지타운	서예
7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서예, 수목화
8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서예
9	광주행복나루노인복지관	외부연계프로그램-사진

7.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표 2-13〉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주요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서예 관련	사진, 동영상 편집	캘리그래피
복지관 수	10(83.3%)	4(33.3%)	7(58.3%)
프로그램 수	25	6	7

〈표 2-14〉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순번	복지관명	미술프로그램
1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캘리그래피, 서예, 문인화, 서예추사체,
2	울산중구노인복지관(분관)	종이공예, 서예,
3	울산중구노인복지관(본관)	사진반, 서예, 사군자, 캘리그래피, 서양화
4	울산북구노인복지관(본관)	한글서예, 한문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5	울산북구노인복지관(분관)	글씨가 예술 캘리그래피, 보테니컬아트
6	문수실버복지관	한글서예, 영상제작, 한문서예, 미술반, 수목화, 사군자, 캘리그래피, 천아트반,
7	선암호수노인복지관	한문서예, 문인화, 캘리그래피
8	도산노인복지관	흑백의 조화, 심신을 수양하다! 서예교실-서예반, 사군자반, 추사체반, 캘리그래피반 오밀조밀 나만의 취미만들기! 취미만들기 특강-비누/향초공예, 손뜨개질공예, 토탈공예, 천연화장품공예(연4회 진행)
9	방어진노인복지관	스마트폰사진반, 영상제작반, 생활공예교실
10	서부노인복지관	서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미술반)
11	남목노인복지관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동영상 제작반, 노년기 디지털 앨범 제작

12	함월노인복지관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
----	---------	-----------------

- 최근 신중년의 창조적 특징으로서, 삶의 시간에서 쌓아온 개개인의 예술적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은퇴 전 직업의 전문적 지식을 자신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자기주도적으로 문화예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실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제작 콘텐츠에 젊은이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문화예술적 창의적 소산물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공감과 통합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 선배 시민으로서의 노년의 상상력, 거부감 없는 스토리텔링적 기법의 예술 창의적 삶으로서의 율림과 호소력이 일반 대중의 흥미로운 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신노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들을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에서 동시대적 예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협력자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실버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채널과 관련 이슈들의 보도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표 3-1〉 유명 시니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채널 현황

순번	채널명	채널주소	주요내용
1	박막례 할머니 Korea Grandma	https://youtube.com/c/Koreagrandma	한국을 대표하는 유튜브로 구글 본사에 초청받으며 그 인기와 화제성을 입증
2	영원씨01seeTV	https://youtube.com/c/%EC%98%81%EC%9B%90%EC%94%A8TV	최고령 먹방 유튜버
3	심방골주부 Korean Food Recipes	https://youtube.com/c/%EC%8B%AC%EB%B0%A9%EA%B3%A8%EC%A3%BC%EB%B6%80	농사짓는 평범한 39년차 주부의 푸드 크리에이터 채널
4	성호육묘장	https://youtube.com/channel/UCBWihGlpMzCdTgRJRD5GYA	구수한 말투로 시골의 일상과 농작 노하우를 공유
5	할담비 지병수 Korean Grandpa's crazy K-pop	https://youtube.com/c/KoreanGrandpascrazyKpop%ED%95%A0%EB%8B%B4%EB%B9%84%EC%A7%80%EB%B3%91%EC%88%98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서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춤과 노래를 선보이며 '할담비'로 인기
6	꽃할배 tv	https://youtube.com/channel/UCGHUoknZbx1oRi_kLgi2KUQ	한국의 '닉 우스터'로 불리며 '패셔니스타'로 40년 이상의 경력의 베테랑 재단사

7	순이 엄마 SUNI MOM	https://youtube.com/c/%EC%88%9C%EC%9D%B4%EC%97%84%EB%A7%88SUNIMOM	팝핑보바, 쿠키젤리 등 젊은 세대가 주목하는 먹거리 리뷰
8	노래하는 할머니 A Singing Grandma	https://youtube.com/channel/UCT4oWVjEXnLjI_Nzsn2j1A	방탄소년단, 폴킴 등 신세대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른 콘텐츠로 인기
9	Dear Grandchildren	https://youtube.com/c/DearGrandchildren	은퇴 후 취미삼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 국내외에서 개인전을 열며 활발히 활동
10	밀라논나 Milanonna	https://youtube.com/c/Milanonna	은퇴 후 유튜브를 통해 ▲패션 트렌드 ▲브랜드 및 아이템 소개 ▲쇼핑 '꿀팁' 등 본인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패션 크리에이터
11	Anyone can make	https://youtube.com/c/anyonecanmakeit	한식과 양식, 디저트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요리채널

〈표 3-2〉 실버 크리에이터 관련 인터넷 기사 목록(2021-2018년)

순번	기사명/작성일자	링크주소
1	디지털 바다를 주름잡는 Sliver Surfer들의 세상-시니어와 유튜브, 2021.03.09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898018&memberNo=50007109
2	5060 세대가 선호하는 호칭 물어보니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2021.09.14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0388
3	5060 신중년 10대 못지않은 스마트폰 몰입, 하루 3시간 이상 사용, 2021.06.30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6137
4	시니어 유튜버 누구나 할 수 있다! 유튜브 스타로 떠오르는 노인들, 2021.1.19	https://shin-tube.tistory.com/34
5	시니어, 유튜브의 매력에 빠지다 上 쉬운 조작법과 시청각 중심 자료, 취향 저격 콘텐츠 등 유튜브 열혈 시청자 된 시니어, 2020.04.06	http://www.100news.kr/sub_read.html?uid=7098&section=sc4
6	시니어, 유튜브의 매력에 빠지다 下 콘텐츠 소비자에서 생산자로...노인에 대한 편견 딛고 '표현의 주체' 되다, 2020.04.17	http://www.100news.kr/7187
7	밀라논나 현상-'우리의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52년생 장명숙' 2030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68세 '신생 패션유튜버' 장명숙 씨, 2020.01.1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61018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8	캠캠 어르신도 매일 보는 영상... '실버세대 e-놀이'로 부상 [언택트 시대, 소외된 노인들], 2020.10.06	https://m.segye.com/view/20201005520079
9	코리아 그랜마 만세 더 이상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젊은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플랫폼이 아니다. 메가 인플루언서로 자리잡은	https://m.thesingle.co.kr/article/709145/THESINGLE

	실버 크리에이터들, 2020.02.05	
10	수십억 버는 키즈 채널에 도전장... '실버 유튜버' 뜬다, 2020.01.25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12512471214505 2020.01.25
11	5060세대 시니어 유튜버 도전하세요! 오팔세대가 잘 할 수 있는 유튜브!, 2020.02.05	https://www.horse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26
12	대세는 우리, 잘 나가는 실버 크리에이터, 2020.05.05	https://lifesquare.kr/%EB%8C%80%EC%84%B8%EB%8A%94-%EC%9A%B0%EB%A6%AC-%EC%9E%98-%EB%82%98%EA%B0%80%EB%8A%94-%EC%8B%A4%EB%B2%84-%ED%81%AC%EB%A6%AC%EC%97%90%EC%9D%B4%ED%84%B0/
13	노인 유튜브에 열광하는 '1030'세대, 2019.05.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77989#home
14	유튜브에 폭 빠진 실버세대... "소비자 넘어 창작자로", 2019.05.18.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90517_0000654379#_eniple
15	70년 인생이 콘텐츠라는 실버 크리에이터들, 2019.03.07	https://allets.com/contents/?contentsId=30737
16	실버 크리에이터, 유튜브시장 强者로 뜬다, 2019.06.11	https://www.hankyung.com/entertainment/article/2019061176251
17	'실버 크리에이터', 유튜브에선 나도 청춘이다, 2019.10.24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277
18	유튜브에 '실버 크리에이터' 뜬다, 2018.07.25	https://zdnet.co.kr/view/?no=20180724143901
19	노인 유튜브에 열광하는 '1030'세대, 2019.05.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477989#home
20	삶의 경험을 유튜브로 공개하다-실버크리에이터, 2019.07	http://www.postnews.kr/cpost_life/sub_read.asp?cate=21&BoardID=7286
21	시니어, 유튜브로 날개 달았다...50플러스 유튜버스쿨을 가다, 2019.08.30.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3823
22	박막례 할머니에서 할담비까지! 실버 크리에이터의 인기 비결은?, 2019.04.12	https://www.adic.or.kr/journal/column/show.do?ukey=531796
23	스마트폰 든 고령층, 소비의 중심이 되다, 2019.01.15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menuId=MENIU00285&maxIndex=00487427939998&minIndex=0000175919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1685&linkId=48742332
24	새로운 취미에 눈을 뜬 시니어들, 실버 크리에이터,	http://www.samsungfundblog.com/archives/41066

	2018.10.02.	
25	실버작가 '삶의 지혜' 2030 홀리다, 2019.06.04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ACBCJ3U
26	"IT에 빠진 노인들"... 한국은 지금 '실버서퍼' 시대, 2018.10.1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101119364840641&outlink=1&ref=https%3A%2F%2Fwww.google.com
27	유튜브시대에 유튜브를 시청만 하는 것은 아깝지 않을까?, 2019.05.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38016
28	유튜버부터 모델까지...요즘 시니어 셀럽이 뜨는 이유, 2019.05.07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298493/

2021 시니어 미술관교육 확장 방향성 연구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

김향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교수

공동연구원

안지연 상명대학교 글로벌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교수

박정현 경인교육대학교 예술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최예령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 전공 박사과정
시니어문화예술교육연구소-K 대표

김연윤 숙명여자대학교 문화예술교육 전공 박사과정
아트스페이스 호서갤러리 큐레이터

보조원

이민경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 석사